

정조문화유산
사료총서

正祖文化遺産

제 2 권

정조문화유산 사료총서

일러두기

- 이 책은 오산시의 독산성(禿山城) 관련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 이 책에서 활용한 자료는 아래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를 망라해서 발췌하고 정리하였다.
 - ▶ 한국고전연구원 한국고전종합db
 -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자료 및 원문검색서비스
 - ▶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종합정보서비스
- 상기 시스템과는 별도로 활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풍천유향(風泉遺響)』, 1990
 - ▶ 화성시, 『수원부읍지』(화성시역사자료총서1), 2006
 - ▶ 화성시, 『화성지』(화성시역사자료총서1), 2006
 - ▶ 화성시, 『수원군읍지』(화성시역사자료총서1), 2006
 - ▶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궤』(기전문화예술총서 16), 2005
 - ▶ 수원화성박물관, 『화성성역의궤』(수원화성박물관 역사자료총서 3), 2016
- 출처는 『책명』 편명 또는 『책명』 권수 편명으로 표시하고, 단위 기사는 표제어를 밝혔으며, 해당 번역문과 원문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 자료는 오산시의 독산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표제어를 선정해 발췌하였다.
- 각주는 번역본의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 문장부호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 ▶ 『,』,《》: 책명
 - ▶ 『,』,〈〉: 편명 또는 서명
 - ▶ (),【】: 음이 같은 한자를 묶거나 간주(間註)를 표시할 때
 - ▶ (): 음은 같지 않으나 뜻이 같은 한자를 묶을 때
 - ▶ “ ”: 대화문 또는 인용문
 - ▶ ‘ ’: 대화문 내의 대화문 또는 강조 내용

contents

발간사

『정조문화유산 사료총서』는 정조문화유산과 연관된 인물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	04
정조문화유산 사료총서 제2권을 펴내며	05

01	조선후기 독산성 축조 및 관리와 관련된 인물	06
	노영구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02	李奭祚의 수원 화성 운영론과 둔전 경영	60
	이왕무 경기대학교 교수	



『정조문화유산 사료총서』는 정조문화유산과 연관된 인물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

우리는 독산성의 다양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19년도 경기도·경기문화재단과 업무협약으로 세계유산등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초조사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1년부터는 정조문화유산이라는 명칭으로 경기도·수원시·경기문화재단과 실무 차원의 구체적인 협약을 맺고, 작년에 이어서 『정조문화유산 사료총서-제2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산시에서는 독산성 원형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2016년도 종합정비계획수립을 시작으로 시굴조사 및 총 6차에 걸쳐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발굴조사의 괄목할만한 성과로 독산성의 삼국시대 성벽과 조선시대 전기 문지 등 여러 시대에 걸쳐서 독산성이 다양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닌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금번에 발간하는 『정조문화유산 사료총서-제2권』에서는 독산성을 비롯한 정조문화유산내 관방유적과 관련된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연구·조사하여 정리한 자료집입니다. 정조대왕의 충·효·애민 사상과 권율장군의 무혈 승전의 지혜를 엿보고 그 외 숨겨진 인물들의 이야기가 담겨진 소중한 역사서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정조문화유산 사료총서-제2권』발간을 위해 애쓰신 연구진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를 시작으로 정조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가 나오고 세계유산등재의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2021. 12

오산시장 **곽 상 욱**



정조문화유산 사료총서 제2권을 펴내며

경기도, 오산시, 경기문화재단연구원은 오산 독산성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재정립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연구를 2019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산 독산성은 정조가 계획한 화성 건설의 일환으로서 18세기 정조대왕의 신도시 건설 계획을 위한 문화유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새롭게 규명하였습니다.

2020년 발간한 사료총서 제1권에서는 고문헌에 근거한 오산 독산성의 사료적 진정성 및 세계유산적 가치를 발굴하였으며, 이번 연구는 제2권(인물편)으로서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오산 독산성 기초조사(2020)」에서 제시한 정조문화유산(능침·관방·관개유적으로 구성)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유적의 조성, 운영, 관리와 연계한 인물들을 조사하여 등재신청을 위한 진정성 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 오산 독산성과 연계한 정조문화권 내 현릉원, 수원화성 조성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오산 독산성이 세계유산등재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사료총서 제2권이 발간되기까지 물심양면 지원을 해 주신 경기도와 오산시, 자료의 수집과 정리, 발간에 애써주신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 사료총서가 정조문화유산 세계유산등재의 첫 걸음이자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 12

경기문화재단연구원장 **장 덕 호**

1

조선후기 독산성 축조 및 관리와 관련된 인물

1. 조선후기 독산성의 축조 및 관리 · 09

1. 서론
2. 임진왜란 이후 독산성의 축조
3. 17세기 북방 위협과 독산성의 군사적 위상 강화
4. 18세기 영조대 독산성 정비와 관련 논의
- 5, 18세기 후반 정조대 독산성 수축과 방어체제 완비
6. 19세기 이후 독산성의 역할 축소

2. 독산성 축조 및 관련 인물 · 29

1. 김천일(金千鎰, 1537~1593)
2. 권율(權慄, 1537~1599)
3. 유성룡(柳成龍, 1542~1604)
4. 유근(柳根, 1549~1627)
5. 변양걸(邊良傑, 1546~1610)
6. 변응성(邊應星, 1552~1616)
7. 권준(權俊, 1547~1611)
8. 윤두수(尹斗壽, 1533~1601)
9. 이한흥(李漢興, ?~?)
10. 정약용(丁若鏞, 1762~1836)
11. 서유린(徐有隣, 1738~1802)
12. 송규빈(宋奎彬, ?~?)
13. 우하영(禹夏永, 1741~1811)
14. 조심태(趙心泰, 1740~1799)
15. 강유(姜游, 1722~1798)

3. 독산성 관리 인물 · 51

1. 황경원(黃景源, 1709~1787)
2. 조발(趙撥, ?~?)
3. 최두명(崔斗明, ?~?)
4. 김후(金煇, 1751~1805)
5. 이문철(李文喆, 1736~?)
6. 박기수(朴綺壽, 1774~1845)
7. 이여염(李汝恬, 1561~?)

조선후기 독산성의 축조 및 관리

1 서론

경기도 남부 지역인 오산에 위치한 독산성은 해발 208m인 독성산의 7~8부 능선을 둘러싼 이른바 테뫼식 산성으로 전체 둘레는 1,100m 정도의 작은 석축 산성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산성의 주변이 해발 200m 이하의 낮은 구릉성 산지와 평야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동쪽으로 멀리 약10km 이상 떨어진 용인의 평야지대까지도 관망할 수 있다. 아울러 독산성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오늘날 국도 1번이 지나가는 등 여러 도로가 좌우에 개설되어 있어 경기 남부에서 매우 중요한 교통의 요충에 위치해 있다.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초 최초로 투입된 미 24사단의 선발대인 스미스 부대가 남하하는 북한군과 최초로 교전한 죽미령(竹美嶺) 일대로 독산성에서 그다지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더라도 그 군사적인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고대부터 독산성 지역에는 여러 차례 수축과 개축이 이루어졌다. 최초 백제가 축성한 이후 통일신라, 고려를 거쳐 임진왜란 때까지 이용되었다.¹⁾ 임진왜란 당시 이곳은 김천일의 의병 부대가 주둔하였을 뿐 아니라 1592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전라 감사 권율이 이끄는 전라도 군사 수천 명이 주둔하면서 일본군과 대결하였던 곳으로도 유명하다.²⁾ 임진왜란 이후 여러 차례 개축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명목의 관원이나 군관과 군사들이 상주하면서 이 성의 관리를 계속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 도성방어체제가 정비되면서 도성의 남쪽 방어의 핵심적인 방어 시설로서 한강 이남에서 남한산성과 함께 매우 중요한 군사적 요충으로 그 군사적 의미가 매우 중요해졌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후 독산성의 축조 및 관리, 군사제도, 그리고 각종 군비의 마련 등 방어체제 정비에 대해 조선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조선후기 다양한 주요 인물들이 독산성의 축조 및 관리, 방어체제 등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본 자료집은 조선후기 오산 독산성의 축조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선후기 독산성의 군사적 변화와 관련된 인물들을 시기별로 검토하기 위해 먼저 이 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유산적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그 흐름 속에서 독산성에 관련된 인물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밝히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1) 유재춘, 2003 「조선성곽」, 『경기도의 성곽』, 경기문화재단, 310~311쪽.

2) 심승규, 2012 「임진왜란 중 독산성 전투와 그 역사적 의의」, 『한국학논총』 37.

2 임진왜란 이후 독산성의 축조

임진왜란 초 전라도 관찰사 겸 순변사였던 권율(1537~1599)이 전라도 근왕병을 이끌고 이곳에 주둔하였다. 독산성은 당시 일본군 거점의 하나였던 용인에 근접하여 있으며 주변 지역에 대하여 조망할 수 있고, 특히 독산성 좌우로 주요 교통로가 위치하여 있어서 남도 지역에서 한양으로 연결되는 일본군의 주요 보급로를 위협할 수 있는 요충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전까지 독산성 일대는 성곽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조선초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독산(禿山) 관련 내용에 산성에 대한 기록이 미비한 것은 이를 반영한다. 독산성에 권율의 조선군이 주둔하자 우키타 히에이에의 일본군은 이 성을 포위 공격하였으나 성의 산세가 매우 험준하여 쉽게 공격하기 어려웠다. 이 성안에 식수가 부족한 것을 알아차린 일본군은 산성을 포위하고 고립시키며 지구전을 시도하였으나 권율은 높은 대에서 쌀로 말을 씻어 성안에 물이 풍부하 것처럼 보여 포위를 풀었다는 이야기가 전하여 일명 세마산(洗馬山), 혹은 세마대(洗馬臺)라고도 한다.

독산성은 권율의 전승과 일본군의 남하 이후 국방상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부각되었다. 1593년 4월 일본군이 한성에서 철수하고 선조가 한성으로 환도한 직후인 그해 10월, 영의정 유성룡은 경기 광주(廣州)의 남한산성, 수원의 독성(禿城), 금천(衿川)의 금지산(衿之山)이 모두가 특별한 요새로서 이곳을 지키면 호남을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경기방어사(京畿防禦使)를 따로 차출하여 광주와 이천(利川) 등지의 군사를 모아 도성을 방어하게 하고 변응성(邊應星)을 방어사로 임명할 것을 주장하였다.³⁾ 이처럼 독산성의 군사적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일대 방어를 위해 경기방어사로 변응성이 임명되고 아울러 독산성의 성곽 축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594년 경기감사 유근(柳根, 1549~1627)이 의해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수원부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단 4일간의 공역으로 수축하였다.⁴⁾ 이 수축 공사는 옛 성터에 성을 다시 고쳐 쌓고 산성의 한 가운데에 창고를 세우는 일이었다. 공사 일정이 겨우 4일에 불과했기 때문에 충분한 수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사 일정이 단기간에 그쳤던 것은 수원 지역민의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한 탓이었다. 독성을 수축하고 성 안에 창고를 세운 까닭은 군량을 저장하여 장기간 군대가 머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인지 산성 공사가 마무리되자, 지역민을 위로하고자 한 달 뒤인 10월에 선조는 독산성의 군진[禿城陣]에서 무과의 일종인 시재(試才)

3) 『선조실록』 권, 선조 26년 10월 임인.

4) 『선조실록』 권55, 선조 27년 9월 갑오.

를 시행하였다.⁵⁾ 이 당시 독산성 축성은 성을 새로 쌓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성터 위에 고쳐 쌓는 방식으로 임시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공역이 너무 단시간에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어에 충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체제도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가 개축이 요구되었다.

1595년(선조 28) 7월에는 수성장 조발이 임명되면서 독성의 2차 수축이 추진되었다. 유근에 의한 1차 수축이 끝나고 거의 1년 만에 다시 전면적인 수축이 이루어졌는데, 조발은 성자(城子)를 개축하고, 성의 세 곳에 동문, 서문, 남문 등을 설치하였으며, 대청마루가 있는 옥우(屋宇)와 군시방실(軍器房室)을 모두 고쳤다. 아울러 주변 지역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둔전을 설치하였다.⁶⁾ 1차 수축에 이은 2차 개축 공사로 성문을 설치한 결과 독성은 산성의 골간을 갖추 수 있었다. 그러나 방어에 필요한 군기 등을 제대로 갖춘 것은 아니었고 아울러 필요한 군사제도를 마련한 것도 아니었다. 특히 화포는 조총을 중심으로 공성전에 나서는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무기로 인식되었다. 산성 내에서 적과 싸울 때 필요한 무기나 시설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을 경우, 쓸모가 없어질 가능성이 컸다. 이를 위해 독산성에는 각종 총통과 대포 등을 갖추었다. 이와 함께 독산성에는 정예병을 편성하여 훈련시키고 방어를 책임질 만한 장수가 없는 것도 문제였다. 이에 경기방어사 1인을 두어 독산성의 군사훈련과 관방의 설치 등을 맡게 하였다.⁷⁾ 9월 초부터 시작된 독성의 2차 수축 공사는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2차 수축 공사에서는 특히 성곽 위의 방어시설이 성첩(城堞)과 함께 새로운 성곽 제도인 포루(砲樓)를 새로 설치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었다. 당시 조선의 성첩은 성가퀴는 너무 낮아 성을 지키는 사람은 몸을 숙이고 허리를 굽혀 엎드려 가더라도 적의 탄환을 면치 못하고, 두 여장의 사이가 너무 넓은 것이 문제였다.⁸⁾ 더구나 성첩의 길이가 짧아 사람이 피하기 어려워, 두 여장을 하나로 합쳐야만 제 구실을 할 수 있었다.

포루는 치성 내부를 비워 여러 층을 나누어 총통과 화포 등의 화기를 쏘게 만든 성곽 제도였다. 포루는 16세기 후반 척계광이 고안하여 설치한 공심적대(空心敵臺)를 바탕으로 일본군의 보루(堡壘)를 조사하여 고안한 성곽 시설의 하나로써, 화승총과 화포를 장비한 방어군이 그 속에서 안전하게 적군을 공격하는데 유용하였다.⁹⁾ 전국

5) 『선조실록』 권, 선조 27년 10월 신유. 임진왜란 중 독산성의 수축에 대해서는 심승구, 2020 「임진왜란 중 독산성의 축성과 성곽사적 의미」, 『백산학보』 119 참조.

6) 『화읍집』 권2, 「陳啓京畿編伍軍兵及城柵措置形止且請水原判官趙撥論賞仍給印信狀」.

7) 『선조실록』.

8) 『노영규, 1999 「조선후기 성제 변화와 화성의 성곽사적 의미」, 『진단학보』 88.

9) 王兆春, 1998, 『중국과학기술사』(軍事技術卷), 科學出版社, pp.237~238.

시대(戰國時代) 후반 일본의 주요 공성전술은 기본적으로 조총인 철포(鐵砲)를 성곽의 취약 구역에 집중 사격을 하여 방어군을 제압하고 그곳으로 병력과 화력의 우위를 통해 축차적으로 군사를 투입하여 성곽 전체를 단기간에 공략하는 것이었다.¹⁰⁾ 실제 임진왜란 중에도 일본군은 낮은 조선의 성에 대해 높은 망루(望樓)를 설치하고 조총을 난사하여 조선군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이후 성에 접근하여 성을 공격하는 전술을 사용하였다.¹¹⁾ 일본군의 조총 공격에 대비하여 성을 방어하고 조선의 장기인 화포의 위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포루의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1595년(선조 28) 10월에는 독산성의 포루가 완성되었다. 임진왜란 중 포루를 갖춘 성으로는 전주 읍성과 함께 독산성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독산성에 설치된 포루의 모습은 류성룡의 언급을 통해 유추가 가능한데, 성의 4면에 포루를 만들되, 웅성(甕城)과 같이 설치하여 왼쪽, 오른쪽, 전면에 구멍을 많이 뚫었다. 포루의 맨 아래에 천·지·현·황(天地玄黃) 등 대형 총통, 바로 위 층에는 승자총통(勝字銃筒), 그리고 제일 위층에는 루(樓)를 만들어 적을 관망하며 활을 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적이 성의 왼쪽을 침입하면 왼쪽 구멍에서 포를 쏘고, 성의 오른쪽을 침입하면 오른쪽 구멍에서 포를 쏘며, 전면으로 침입하면 전면을 향해 포를 쏘도록 하여 모든 방면에서 화포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적군을 방어할 수 있었다. 이 포루 설치를 통해 독산성의 방어 능력은 급격히 향상되었다.

1, 2차의 두 차례 개축을 통해 독산성은 경기 남부의 방어 거점으로서 면모를 갖추 수 있었다. 일본군의 재침 우려가 고조되자 일본군의 재침에 대비하여 독산성을 보강하는 제3차 수축이 이루어졌다. 이 무렵 일본군의 공격을 막기에는 산성을 축조하여 방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타나 전국 주요 지역에 산성이 수축되었는데, 예를 들어 파사성, 남한산성 등이 대표적이다.¹²⁾ 독산성의 수축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독산성의 3차 수축은 경기도 방어사에 새로 부임한 변양길(1546~1610)에 의해 추진되었다. 정유재란 직전인 1597년(선조 30) 2월에 마무리된 독산성의 수축 공사는 성 위에는 방어용 집을 짓고, 성 밖에는 목책을 설치하는 데에 집중되었다. 변양길은 성벽 위에 흙을 쌓아 평평하게 한 뒤 집을 세우고, 창을 뚫어 내려다 볼 수 있게 만들었다. 그 집안으로 석차(石車)와 포군(砲軍)은 모두 그 속에 들어가도록 하였다.¹³⁾ 그리고 성 밖에는 목책(木柵)을 세워 틈 사이로 적을 쏘도

록 하였다. 성벽 위에 지은 집은 포루와는 별개로 성벽 위에 세운 성랑(城廊) 또는 포(鋪)와 그 형태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차는 기계의 힘을 이용하여 큰 돌을 장전하여 멀리 날리는 투석기로서, 일명 석차포(石車砲)라고도 하였다. 성곽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성용 무기인 동시에 방어용 무기로 쓰인 석차는 성첩 위에 만들어 성으로 접근하는 적을 차단하는 무기로서, 이 석차 한 대로 수백 명을 죽일 수 있는 무기로 평가받았다. 석차, 포차의 배치와 함께 성 밖에 목책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때 정비된 독산성은 정유재란 당시 주변의 조선 군사들과 주민들이 들어가 방어하여 경기와 충청도 경계까지 북상한 일본군을 견제 저지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¹⁴⁾

1597년(선조 30) 8월 정유재란이 일어나 일본군은 전라도를 석권하고 충청도를 거쳐 경기와 충청도의 경계인 직산까지 올라왔다. 9월 7일 일본군 선발대가 직산으로 침입하였다가 명 부총병 해생(解生)의 반격을 받아 더 이상의 북상은 저지되고 남으로 퇴각하였다.¹⁵⁾ 아울러 명나라 유격장 계금(季金)이 이끄는 3,000여명¹⁶⁾의 명수군 선발대로 9월 3일경 충청도 당진 구십포(九十浦)에 도착하였다.¹⁷⁾ 조선군도 경기, 황해, 평안, 함경도의 병력을 한성과 주변 일대로 불러들여 방어를 강화하였다.¹⁸⁾ 수원 일대의 조선군과 백성도 독산성에 의지하여 이 지역을 지켰다. 하지만 1598년(선조 31) 12월, 전쟁이 끝난 뒤 산성 관리가 점차 소홀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비변사는 1600년(선조 33) 4월 독산성에 대한 새로운 대비책을 제시하였다. 전쟁이 끝난 직후 가장 큰 과제는 명나라 군이 철수한 뒤 독자적인 방어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 가운데 양호(兩湖)의 요충으로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한성으로 올라오는 수원의 독산성 경우, 성안에 연못이 충분하지 못하여 식수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군대가 장기간 주둔하기에 마땅치 않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더구나 임진왜란 이후 독산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독산성은 날로 파폐해졌다. 이에 경기방어사 권준(權俊, 1547~1611)으로 하여금 독산성을 정비하여 한편으로는 대규모 전란에 대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둑을 차단함으로써 한성을 보호하는 군사적 요충으로 만들도록 하였다. 이는 임진왜란 이후 독산성을 다시 수축하는 배경이 되었다.

당시까지 독산성 방어와 관리를 전담하는 장수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10) 久保田正志, 2008, 『日本の軍事革命』, 錦正社, p.90.

11) 『선조실록』 권46, 선조 26년 12월 壬子.

12) 『선조실록』 권84, 선조 30년 1월 갑인. 임진왜란 중 조선의 산성 축조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이장희, 1995 「임란중 산성수축과 견벽청야에 대하여」, 『阜村申延澈教授 停年退任紀念 史學論叢』, 일월.

13) 『선조실록』 권85, 선조 30년 2월 丙戌.

14) 『화성지』 독성 「鎭南樓」.

15) 李光濤, 1972 『조선 「임진왜란」 연구』, 中央研究院 歷史言語研究所, 213~228쪽.

16) 『상촌집』 권57, 「天朝詔使將臣先後來姓名記」.

17) 吳希文, 『쇄미록』, 「丁酉日錄」, 9월 초2일.

18) 이태진, 2008 「'누란의 위기'관리 7년 10개월」, 『류성룡과 임진왜란』, 태학사. 203~205쪽.

종래 경기도 방어사가 독산성을 관장하였지만, 방어사는 경기도의 전반적을 방어할 수 없었기에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다. 이에 좌의정 유두수는 독성과 수원부를 보수하고 북방인 영변(寧邊)과 경성(鏡城)의 군사 제도와 같이 전담하는 수신(帥臣)을 보내어 방어사로 삼아 겸임토록 할 것과 수원부의 병력(兵力)과 전세(田稅)를 독산성에 속하게 하고 문무를 겸비한 인물을 뽑아 맡길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1602년(선조 35) 2월 수원부사 겸 방어사에 최초로 임명되었던 변응성은 독산성의 네 번째 수축을 추진하였다.

1602년에 이루어진 4차 수축공사는 종래 독산성 수축 과정에 제기되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4차 수축은 최초에는 경기도 방어사 권준에게 맡겨 실행할 예정이었으나, 권준이 체직되면서 수원부사 겸 방어사인 변응성에게 4차 수축을 맡겨 추진하도록 하였다. 4차 수축의 방향은 독자적 군진인 독산성에 새로이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겸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성벽을 다시 축조하되 이전보다 체성(體城)의 높이를 올렸고, 둘째 성 둘레에 해자를 깊이 파서 성곽의 방어를 더욱 강화하였다. 셋째 성 내에 샘을 파서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충분한 식수가 공급되도록 하였고, 넷째 둔전인 밭을 일구어 백성들이 굶주리게 않게 하였으며 아울러 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궁노, 석차, 화포, 화전, 기계 등 각종 군비를 대량으로 제조 설치하여 방어력을 높였다.¹⁹⁾

4차 수축이 마치고 한 해가 지나가자 성안에 거주하는 백성이 2백 호를 넘었으며, 사찰과 관청이 도합 100여 곳이나 되었다. 종래 1차로 쌓은 석성의 성벽을 3장 높이로 올려 쌓았으며 성 안의 연못이 6~7개로 늘어나 고질적인 식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 사실이 보고되자 조정에서는 근신을 파견하여 군사들을 호궤하여 위로했을 뿐 아니라 이들의 군사 기예를 시험보고 포상하도록 하였다. 이듬해에는 남장대에 진남루(鎭南樓)라는 문루를 세워 성의 위용을 보였다. 이상과 같은 수축 작업을 통해 방어력이 향상된 독산성은 이제 기보(畿輔)의 큰 관문으로 평가받기에 이르렀다. 실제 임진왜란 이후인 광해군 초 독산성은 경기도의 산성 17곳 중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²⁰⁾

19) 『월사집』 권37, 「鎭南樓記」.

20) 『광해군일기』 권, 광해군 2년 정월 갑오.

3 17세기 북방 위협과 독산성의 군사적 위상 강화

광해군 즉위를 전후한 시기 북방의 정세는 매우 험악해지기 시작하였다. 누르하치는 1599년~1601년 사이에 해서 여진의 하다부哈達部를 완전히 복속시켰고 이후 1607년(선조 40)에는 휘발부(輝發部)를 공격하여 병합하였다. 특히 광해군 초기인 1609년 건주여진과 경쟁을 하며 조선을 위협하던 함경도 건너편의 해서여진인 홀온(忽溫) 세력을 중성 건너편의 문암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완전 복속시키게 되었다.²¹⁾ 이를 계기로 누르하치는 예허부(葉赫部)를 제외한 해서여진의 3부족을 완전 통일하였고 특히 해서여진 부족이 보유하였던 명나라와의 무역권도 장악하였다. 이 전투의 승리를 통해 누르하치는 영고탑(寧古塔, 현재의 寧安)을 점령함으로써 건주위를 넘어 군사 원정까지 수행할 수 있는 노동력과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다.²²⁾ 누르하치의 건주여진 세력은 이제 명나라와 조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다. 북방의 위협이 계속되자 광해군은 독산성을 따라 강화도에 성과 행궁을 수축하도록 하였고, 인조 때에는 독성산성에 도첩이 없는 승려가 3,000명이나 거주하였다고 전한다.

인조반정 직후인 1624년(인조 2) 경기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군영으로 총융청(摠戎廳)이 설치되면서 수원은 좌영이 되었고, 독산성에는 영장(營將)이 주둔하여 경기 남부의 주요 군사 거점 역할을 하였다. 인조는 1624년 이괄의 난을 피해 공주로 가던 길에 독산성에 잠시 머물렀는데 읍성이 허물어진 수원부 관아보다 안전한 독산성을 택하였다. 숙종 때에는 독성산성에 총융청의 중군 외에 별장을 파견하고 봉수 연대를 새롭게 설치하였다.

1636년 발발한 병자호란 이후 국왕의 피난처인 이른바 보장처(保障處)로서 강화도와 남한산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청의 조선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되면서 독산성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는 못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지 백 년이 지나지 않는 시기에 제작된 지도를 보아도 독산성은 ‘성이 있었던 산’이란 독성산(禿城山)이라는 지명으로만 기록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17세기 중반 이후 ‘도성 방어론’을 구상하면서 주위의 파사성-문수산성 등과 도성 방어를 구성하는 중요한 산성으로 거명되기는 하였지만, 실제적인 성의 개수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²³⁾

18세기 초 숙종 후반기 나타난 도성 중심의 방위론은 17세기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 한성의 성장과 조선의 군사력 조정에 따른 것이었다. 그 일환으로 북한산성과 도성의 수축이 숙종 말 이루어졌다. 영조 4년(1728) 3월 무신난(戊申亂), 이른바 이인좌의 난이 일어나면서 도성 방비의 필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재개되었다.

21)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225~229쪽.

22) 임계순, 『앞의 책』, 2000, 25쪽.

23) 최재현, 2020 「오산독산성의 세계유산가치에 대한 고찰, 고지도류」, 『오산독산성 사료총서1』, 경기문화재단, 280쪽.

특히 반란군의 최종 목표가 도성의 함락이었다는 사실은 영조로 하여금 도성 수비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다. 숙종대 후반 정비되었던 도성과 경기 일대 방어체제는 무신난의 조기 진압과 도성 방어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지만 실제 운영상에서는 아직 충분하지는 못한 측면이 드러났다.²⁴⁾

경기 일대 방어를 위해 총융청의 정비에 착수하였다. 특히 경기 방어군인 총융청의 외영은 여러 차례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영조대 『속병장도설』에 의하면 외영의 세 영(營)은 좌영, 중영, 우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수원의 군병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독진(獨鎭)인 중영은 가장 규모가 컸다.²⁵⁾ 수원부사가 겸직하는 영장 1인과 중군 1원 아래 각 군사들을 지휘하는 장수로서 별장 2원, 천총 3원, 파총 6원, 초관 40원이 편성되어 있었다. 수원군의 주력은 마병 6초와 보군 30초, 즉 36초가 있었고 이에 더하여 제장표하군과, 치중군, 독성모입보군 3초 등이 있었다. 40인의 초관이 있는 것을 통해 40개 초가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제장표하군은 각 장수에 소속된 군사이므로 별도의 초를 편성하지는 않으므로 독성모입보군 3개초에 치중군이 1개초를 구성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독산성에는 독성모입보군 등 4개초의 방어군이 배당되었다. 7천여 수원 군사 중 독산성에 500명 정도의 소규모 군사가 배당된 것은 18세기 들어 독산성의 군사적 중요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17세기 중반~18세기 중반까지 독산성 일대에 대한 성곽 수축 관련 사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를 보여 준다.

4 18세기 영조대 독산성 정비와 관련 논의

17세기 후반 삼변의 난 등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동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본의 침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²⁶⁾ 따라서 삼남 지역의 방어 필요성이 나타나 그 일환으로 수군을 중심으로 한 해안의 주요 지역에 대한 방어체제 정비가 이루어졌다. 남방으로부터의 위기의식의 대두와 함께 17세기 말~18세기 초에는 청과 러시아, 몽골 간의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과 서해안 일대의 청나라 해적의 등장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수도권 일대의 개성, 강화도, 북한산성 등에 대한 방어체제 정비가 나타났다.²⁷⁾ 그러나 영조 초 무신난과 이 무렵의 조선의 상업과 교통망의 발달을 계기로 한성으로 들어오는 교통 요충지에 대한 방어 대책이 매우 중요해졌다. 영조 후반기 평지의 읍성을 방어의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와 축성 움직임이 나타났다. 1731년(영조 7) 동래 읍성의 축조가 이루어지고 1737년에는 대구 읍성이 축조되었다. 1734년에는 전주 읍성의 방어시설 증축이 이루어졌다. 정조대인 1785년(정조 9) 충청 병영이 있는 청주 읍성이 개축되었다.²⁸⁾

18세기 후반 독산성을 도성 외곽 방어의 거점으로 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었다. 『풍천유향』을 지은 송규빈(宋奎彬)은 영조 말년에 송도(松都), 강화도 및 남한산성, 수원의 독성산성 등의 방어책을 주장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송도는 서울 도성의 오른팔로서 청석동과 벽란도와 함께 서쪽의 요충지로서 북방의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곳이며, 강도는 천연 요새이므로 강화 수군을 복구하고 강화성 내의 정비와 문수산성 방어 조정을 통해 견고한 요새지를 구축할 것을 주장하였다. 남한산성은 지형적으로 천연의 보장지이지만 지원로가 부족하므로 왼쪽의 목암주점이나 오른쪽의 봉안역촌을 이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수원의 독산성도 개축하여 이 일대 방어 거점으로 삼도록 하였다.²⁹⁾ 구체적으로 송규빈은 독산성은 성보와 성곽, 식수원을 보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이 성은 삼남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을 뿐아니라 도성의 보군(輔郡)인 장단, 수원, 양주, 광주를 연결하는 곳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성 내부가 협소하여 많은 주민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성곽의 구조가 방어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권석(拳石)과 괴토(塊土)로 쌓아 도보로 성에 오를 수 있고 여장이 미비하고 사구, 포혈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³⁰⁾ 송규빈의 언급은 정조가 즉위하기 직전의 독산성 면모와 함께 도성 방어를 위해 독

24) 조준호, 1998 「영조대 수성절목의 반포와 수도방위체제의 확립」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106~110쪽.

25) 영조대 후반기 수원병의 규모를 ‘7千兵馬’라고 언급할 정도로 대규모였다(『승정원일기』 1267책, 영조 43년 5월 16일 己卯).

26) 정응수, 2015 「정경의 조선침공설에 관한 고찰」, 『일본문화학보』 56.

27) 김우진, 2019 「숙종대의 수도권 방어정책과 국왕의 대응」,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8) 구열회, 2019 「숙종~영조시기 삼남 등의 방어체제 정비와 변화-교통로에 위치한 요충지 방어의 확장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85, 124쪽.

29) 장필기, 1998 「정조대의 화성 건설과 수도방위체제의 재편」,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157~158쪽.

30) 백기인, 2002 『조선후기 국방론 연구』, 혜안, 119~120쪽.

산성의 정비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한편 영조는 1750년 온양온천에 다녀오던 길에 독산성에 올라 임진왜란 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황경원에게 명하여 독산성의 군기를 검열하고, 궁시와 검극, 기고 등을 수리하도록 하였다. 1760년(영조 36년)에 사도세자는 온양에 행차하였다가 돌아가던 도중 장마로 황구지전을 건널 수 없자 독산성에 올라가 하룻밤 유숙하고, 아침에 진남루에서 활쏘기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때 독산성을 평하기를 “이 성은 들판 가운데 불룩하게 솟아 나온 것이 이와 같으니 특별히 이루어진 것이다. 적이 만약 가볍게 여기고 경솔하게 침범한다면 낭패를 당할 것이다. 권율의 대첩이 좋은 전례이다”라며 독산성의 전략적 가치를 평하였다. 사도세자의 독산성 유숙은 ‘경진년 경숙(經宿)’으로 불리면서 정조 때 대대적인 독산성 정비의 원인이 된다. 영조 때(1724-1776) 간 행된 『해동지도(海東地圖)』 「수원부지도」에는 “4대 문 가운데 남문과 서문에 누각을 설치하여 우마가 통행할 정도이고, 누각을 설치하지 않은 동문과 북문은 겨우 걸어서 통행할 수 있으며 성 내에는 51호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독산성에 소속된 군사는 보군 및 차중군(輜重軍) 560명, 수첩군관(守堞軍官), 별무사(別武士), 궁사인(弓矢人) 등 1,600여 명이다”라고 기록하였다. 정조대인 1785년에 편찬된 『수원부읍지』의 독산성 관련 내용을 보면, 독산성이 정조대 후반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시기 독산성은 둘레 5리, 성첩 303첩, 높이 3장(=30尺)의 규모에 수첩군 11명, 사령 14명, 위전 13명, 군뇌 4명, 비장 2명 등이 배치되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³¹⁾ 따라서 18세기 영조대의 구축된 독산성에는 상당한 규모의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 『여지도서』 「수원부읍지」.

5 18세기 후반 정조대 독산성 수축과 방어체제 완비

18세기 후반 정조대 독산성의 수축과 방어체제 개편은 정조를 대도회로 키워나가 고자 한 정조의 구상에 따라 수원의 면모가 일변한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정조는 즉위 후 자신이 추구해온 탕평정치가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자 사도세자 묘소인 영우원을 수원으로 천봉하여 왕릉에 버금가는 위의를 갖추고자 하였다. 1789년(정조 13) 7월 금성위 박명원(朴明源)의 상소에 따라 영우원의 전격적인 천봉은 정조의 장기적 정국 구상을 실현시키고,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며 수원을 대도회로 발전시키는 단서가 된다.³²⁾ 이 상소를 계기로 급속히 영우원의 천봉이 추진되었다.

수원에 견고한 성곽을 갖춘 대도회를 건설하자는 구상은 영우원의 천봉 다음해인 1790년 6월 부사직 강유(姜游)의 제안으로 처음 제기되었다. 강유는 상소에서 수원은 총융청의 외영으로서 국가의 중진(重鎭)이며 현릉원이 위치한 곳이므로 성곽 설치が必要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수원의 새로운 고을(新邑)은 들판 가운데 있으므로 성곽을 축조하고 해자를 두드도록 하여 수원 남쪽의 독산성과 협공하는 형세를 이루어 불의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³³⁾ 1792년 겨울 정조는 정약용에게 명하여 성을 쌓는 방법을 조목별로 올리도록 하였다. 이에 정약용은 윤경(尹耕)의 『보약堡約』과 유성룡의 「성설城說」 등에서 도움을 받아 그중에서 좋은 방법을 따다가 초루(譙樓), 적대(敵臺), 현안(懸眼), 오성지(五星池) 등의 여러 방법을 정조에게 올렸다.³⁴⁾ 이에 정조는 이상의 여러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올릴 것을 명하고 당시 내각에 소장 중이던 『도서집성圖書集成』의 『기기도설奇器圖說』을 내려 주었다.³⁵⁾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약용은 웅성(甕城), 포루(砲樓), 현안, 및 기중(起重)에 대한 도설을 완성하였다. 정약용의 성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성곽 축조를 위한 여러 새로운 시설에 대한 기본 설계안은 완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조는 화성 건설의 총 감독으로 채제공을 임명하고 조심태로 하여금 성역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영우원의 천봉은 독산성이 새로운 군사적 기능과 함께 성곽의 전반적인 수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정조는 부친 사도세자의 묘인 현릉원(顯隆園)의 이장지를 화산에 있는 수원부 읍치 자리로 선정하면서 독산성이 현릉원의 좌청룡 가장 자리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독산성의 위상은 새로이 정립되게 된다. 현릉원의 경내 경계를 정하는 과정에서 독산성은 홍범산, 양산과 함께 금양지(禁養地)로 설정되었다. 문제는 독산성은 현릉원에서 보이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독산성을 그대로 두어야 할지 아니면 헐어 없애야 할 것인지를 두고 원소도감당상 정민시(鄭民始)와 총호사

32) 유봉학, 1996 『꿈의 문화유산, 화성』, 신구문화사, 158~161쪽.

33) 『정조실록』 권32, 정조 15년 정월 丁酉.

34) 『다산시문집』 1집 16권 「자찬묘지명」(集中本).

35) 『다산시문집』 1집 권10 「城說」.

김익(金燧)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즉, 정민시는 독산성의 형국이 목국(木局: 良, 卯, 巳向)에 있고 독산성에는 병장기를 쌓아 두고 있으며, 읍치를 옮기는 마당에 산성을 별도로 설치해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독산성을 그대로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김익은 현릉원과 산성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성을 허물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정조는 한번 직접 가서 형국을 살펴본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하였다.³⁶⁾

정조는 1790년 독산성을 방문하였는데, 그는 산성의 봉우리가 혈상(穴上)에서 바라보여 가까운 것 같지만 실제 거리가 10리 정도 떨어져 있고 연화(煙火)의 기운이나 닭과 개 짖는 소리가 간섭하지 않으며, 병장기를 저장해 둔 것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현릉원 천봉과 화성 축조, 그리고 그 배후에서 보좌하는 독성산성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수립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정조는 이듬해(1790) 2월 독산성에 직접 올라 부모들을 위로하였는데, 이때 영조 36년(1760)에 사도세자가 독산성에 거동(擧動)한 사실을 물어보고 있다. 이때 독산성의 부모들은 사도세자의 방문 사실과 세가자 진남루에 올라 활을 5矢를 쏘아 4矢를 얻거푸 관중하였다는 과거의 사실을 회상하였다.³⁷⁾ 정조는 독산성이 사도세자가 유숙하였던 유적지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풍수적 문제와 관계없이 남겨두었으며, 명목상으로는 독산성에 현릉원을 밖에서 호위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그러던 중 1792년(정조 16) 7월 독산성이 큰 비로 무너져 성첩이 거의 다 붕괴되고 산기슭도 사태가 난 곳이 많았다. 폭우로 인한 독산성의 산사태는 독산성이 면모를 일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능침에 가까운 성곽인 탓에 토신에 고유제를 올리도록 명하였다. 告由 때 쓰는 祭品·祭文의 규식을 정하면서 土神에 고유하는 것이지만 다른 성곽과 달리 존엄하다고 하면서 부사를 헌관(獻官)으로, 중군(中軍) 및 고을 안의 당상, 선천(宣薦), 조관(朝官)을 차헌(次獻)으로 삼고, 향축은 향관(香官)이 경기감영[畿營]에 전하면 경기감영에서는 문관 찰방을 정하고 그로 하여금 축문을 읽도록 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이어 7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70여 일 동안 대대적인 수축 공사를 진행하여 무너진 성을 수축하고 회를 발라 여장의 벽돌을 덮었다. 독산성의 수축 공역은 수원부 중군 이한흥(李漢興)과 대술군관 민광록(閔光祿)이 패를 나누어 감독하여 마무리되었다.

당시의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당시 독산성의 수축 규모는 성의 둘레가 1,004보로써 신축한 곳이 732보, 수축한 곳이 272보였다. 수문 3곳을 개축하고 산사태가 난 12곳

은 길이 101보, 너비 108보로 돌을 채워 새로 쌓았으며, 여장 309첩 모두를 신축하고 벽돌을 덮어 회를 발랐다. 남장대 6칸은 3척을 안쪽으로 옮겨 이건하면서 단청을 다시 하였다. 4곳의 문 가운데 남문은 8칸 규모의 문루를 갖추어 들보 위에 회를 발랐고, 문의 확쇠 1개를 새로 갖췄다. 서문 역시 8칸 문루를 갖추고 기와를 보수하였다. 북문과 동문의 좌우 석축을 고치고 문짝 2개씩을 다시 갖췄으며, 서문은 확쇠 1개를 새로 마련하였다.³⁸⁾ 이는 당시 자료에는 고쳐 지은 수축(修築)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사실상 새로이 만든 신축에 가까운 공역으로 이를 계기로 독산성의 면모는 완전히 일신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독산성의 위상도 여느 성곽과 달랐는데 수원화성의 고유제를 지내면서 독산성 고유제의 사례를 따르게 하였다. 이는 독산성이 園所와 가까운 위상이 뚜렷한 산성이라는 것을 반영하여 준다. 이는 독산성이 단순히 화성의 보조 산성이 아니라 화성에 못지않은 위계를 지닌 산성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산성 수축과 함께 독산성의 지휘체계 정비에 대한 논의도 나타났다. 정조 18년(1794) 독산성을 총괄하는 수원부 중군의 깃발을 독성수성장(禿城守城將)이라고 하였는데, 정조 20년에 수원의 중군이자 독산성의 수성장이기에 마땅히 수원유수부 중군(中軍)이라 바꾸고 독성의 수성장을 겸하여 띠도록[兼帶]하도록 변경하였다. 이는 수원유수부 중군이 수원유수부 내의 도적을 그치게 하는 것과 함께 첨정(籤丁)을 관할하는 중책임에도 독성수성장이라는 명칭으로 좁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수원 화성 축조와 함께 수원유수부 중군이 독산성에만 전념하지 말고 화성과 독산성 모두 관할하도록 한 것이다.

독산성의 수축과 함께 장용영 외영이 독산성 방어를 담당하도록 하는 군사체제 변화도 나타났다. 1792년 정조에 의한 추진된 독산성 수축은 사도세자 유적지 정비라는 의미 외에도 이듬해 창설되었던 장용영 외영의 주요 근거지로서 정비하였다는 점에서 군사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다. 정조는 독산성 수축이 있기 직전인 1791년에는 독산성을 배경으로 수원부에 5초의 향군을 설치하여 장용영에 소속시켰다. 5초(1초=127명)의 향군은 정조의 행차 때 후상(後廂)에서 배호하여 경군(京軍)이 여가를 따르는 것으로 인한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독산성 수축이 완료되자 장용영에서는 내영과 외영의 새로 정한 절목을 올리게 되는데, 그 내용 가운데 독산성에 이전까지 총용청의 소관이었던 장초(壯抄) 2초, 아병 1초, 둔장초(屯壯抄) 68명, 군수보(軍需保) 1백 25명을 본성의 소관 아래 모집해 들인 군관 30인, 수첩군관 1백 30인, 아병 2초, 봉족군(奉足軍) 4백 명, 별무사 1천 5백

36) 『일성록』 正祖 13년 7월 13일 丁酉. 이에 대해서는 정해득, 2009 『정조시대 현릉원 조성과 수원』, 신구문화사, 342쪽 참조.

37) 신영문, 20 「조선후기 도성방어체계의 추이와 독산성의 위상변화」, 『백산학보』 119, 59쪽.

38) 『일성록』 정조 16년 10월 3일 戊辰.

23명 등과 합하여 독산성에 전속시키는 조치를 하였다. 그 중 본래 쌀을 납부하던 장초 2초, 아병 1초, 둔장초 68명, 군수보 1백 25명이 납부한 쌀은 외영에서 받아 유회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독산성이 독자적인 경기 남부의 군사 거점이면서 아울러 수원 화성의 방어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장용영은 정조가 왕권 강화를 위해 창설한 부대로서 처음에는 국왕의 호위를 위해 만든 소규모 부대였지만 점차 규모를 확대하여 도성 중심의 내영과 함께 화성 중심의 외영을 갖추었다. 외영은 사도세자의 능을 호위한다는 구실로 설치하였지만, 본래 정조의 의도는 화성을 왕권 수호의 배후 거점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독산성의 수축과 군사력의 정비와 함께 이를 실제 방어에서는 운용하기 위한 병력 배치에 대한 계획도 상세하게 수립되었다. 정조 22년(1798) 비변사가 올린 장용위 외영 5읍 군병의 절목에 따르면 독산성은 수원 화성과 기각(掎角)의 형세를 이루고 있으며 이 성에 소속된 각종 명목의 병력이 2,123명이나 되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독산성의 성타의 수효에 따라 군병을 배치하는 수성절목(守城節目)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즉 독산성의 방어는 화성과 기각을 이루고 유사시 「수성절목」에 의해 체계적으로 방어에 임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11월 壯勇外使 서유린(徐有隣)은 독산성의 別將은 비록 수원부에 속해 있지만 군기와 군량에 대한 것은 장용영 외영에 속하여 있으므로 인신(印信)을 만들어 주고 節目을 작성하여 권한을 별장에게 위임할 것을 건의하였다. 독산성이 비록 장용영 외영에 속해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수원 유수부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산성에는 장용 외영 군사 이외에 승군들도 주둔하였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원찰인 용주사(龍珠寺)를 1790년(정조 14) 건립하고 용주사 주지를 도승통(都僧統)으로 임명하여 조선의 모든 승군들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정조는 용주사 도승통 임명을 옥새로 찍어 교지로써 작성하고 용주사 도승통의 인신(印信)을 예조에서 만들어 보내도록 조치하였다. 이는 매우 특별한 조치이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중 승군의 총대장인 승군 총섭(摠攝)에 대한 예우보다도 더한 조치였다. 용주사의 승군은 1796년(정조 20)에 화성유수 조심태(趙心泰)의 건의로 용주사를 장용영 외영에 소속되고 조총 사격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군사 훈련으로 승군들은 외영의 군병보다 힘을 발휘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승군들이 바로 독산성 안의 주둔한 군영사찰 보적사(寶積寺)의 승군들이었다.³⁹⁾

39) 김준혁, 2020 「조선후기 독산성 방어책과 군영 경영」, 『문화와 융합』 74, 519쪽.

화성 축조와 함께 독산성을 아울러 수축하고 군사력을 정비하여 수원 방어를 돕고 현릉원을 수호하려 한 정조의 정책에 대해 비판도 나타났다. 18세기 말 19세기 초 이 지역 실학자인 우하영(禹夏永)은 독산성이 수원의 구읍이 있을 때에는 삼남의 요충으로 역할을 하였으나 본래 성안에는 우물이 없으므로 주민과 군사들이 불편이 많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읍성인 화성이 축조된 이후에는 군병이 양분되어 성의 수비에도 군사상 많은 불편과 곤란이 따른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는 수원부 내로 군민과 병기 들은 옮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주장하였다.⁴⁰⁾

40) 최홍규, 1995 『우하영의 실학사상연구』, 일지사, 345~346쪽.

6 19세기 이후 독산성의 역할 축소

19세기 초반 세도정치의 등장과 군사적 긴장의 완화 등으로 인하여 1802년(순조 2) 장용영이 혁파되면서 수원의 장용영 외영은 총리영(總理營)으로 축소되고 수원 유수가 총리사(總理使)로서 수원 지역의 군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장용영이 혁파되고 수원의 정치, 군사적 중요성이 약화되면서 독산성도 이전보다는 충분히 관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807년(순조 7)의 한 장계에, 이 당시 독성산성(禿城山城)이 성루와 담장이 허물어져 참으로 언제 무너질지 모를 염려가 있고 망가진 기계와 무더진 칼은 모두 긴급할 때에 의지할 수가 없으며, 그 나머지 문루(門樓)와 공해(公廨)도 기울어 무너진 것이 많았다고 한다.⁴¹⁾ 당시 독성중군 이문철이 박봉을 덜어내어 석달 만에 무너진 건물 등의 보수를 마쳤다고 한다. 이 때의 보수는 전면적인 개수라기 보다는 무너질 우려가 있는 성곽과 공해에 대한 응급 수선 수준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다.

정조대보다는 그 위상은 떨어졌지만 정조 사후 장용영이 폐지된 이후에도 독산성의 군사적인 지위는 상당히 유지되었다. 1805년(순조 5)에는 아문을 설치하고 1831년(순조 31)에는 성첩과 성문을 모두 중수하는 등 시설의 개수와 수축은 계속되었다. 정조대 이후 갖추어지기 시작한 독산성의 면모는 1831년 화성유수 박기수(朴岐壽)가 편찬된 『화성지(華城誌)』에 나타난 독산성의 주요 시설물과 수성 군사들의 현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화성지』에 의하면 독산성에는 장대(將臺, 세마대洗馬臺) 3칸, 운주당(運籌堂) 9칸, 삼문(三門) 3칸, 행랑(行廊) 11칸, 진남루(鎭南樓) 6칸, 아전청(衙前廳, 이청吏廳) 9칸, 장교청(將校廳) 9칸, 관청 4.5칸, 사창(四倉·大廳 3칸 倉庫 60칸), 오창(五倉), 군기고(軍器庫, 火藥庫) 26.5칸, 무고(武庫) 3칸, 군기고에 속한 서고(西庫), 동고(東庫), 보방고(保別庫), 그리고 운적사(寶積寺) 21.5칸 등의 시설이 있었다. 이를 통해 독산성은 지휘소인 운주당을 중심으로 각종 창고 등 여러 관청 건물들이 운집해 있고, 정상부에 세마대가 위치하고 있었다. 아울러 성 경내에는 보적사라는 사찰이 있었는데 이 절의 승도들은 용주사 총섭의 절제를 받는 승군이였다. 수성 관원과 군사는 별장(別將) 2인, 유영장(留營將) 1인, 궁시감관(弓矢監官) 1인, 각창고감관(各倉庫監官) 3인, 별군관(別軍官) 6인, 성문장(城門將) 4인, 초관 5인, 아전(衙前) 21인, 통인(通引) 10인, 사령(使令) 7명, 관노 7명, 관비 2명, 순뢰(巡率) 7명, 성문졸(城門卒) 4명, 산직(山直) 5명, 수성군(守城軍) 2,226명, 남부군(南部軍) 1,941명 등 상당한 규모의 관원과 군사들이 있었다.

41) 『일성록』 순조 7년 11월 3일(庚子).

장용영 해체와 군사력의 조정이 있었던 19세기 전반기까지 큰 변화가 없던 수원 일대 방어체제는 1866년 프랑스의 침공인 병인양요로 인해 수원 일대 군사체제의 변화가 나타났다. 병인양요 당시 수원의 군사 중 정조군(精抄軍) 500명은 금위영으로 편입되었다가 다시 한강 하류의 나루터인 염창항(鹽倉項)을 지키던 총융청으로 배속되기도 하였다.

병인양요 이후 서구 세력의 침공에 대비하여 조선 조정에서는 경기 내륙의 군사력 정비도 아울러 나타났다. 1869년(고종 6) 말 마군과 보군이 각자 소속된 고을에 거주하고 있어 유사시 신속히 동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에 수원의 속읍에 있는 마군과 보군을 폐지하고 수원부에 거주하는 주민 중 200명을 모집하고, 또한 남쪽의 독성(禿城)에서도 50명을 모집하여 정군으로 편성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독산성의 정군 50명은 자체적으로 1열 5대로 만들고 총리영 집사 중 1명을 선발하여 지휘관으로 삼았다. 독산성 군사들은 조총병인 포군(砲軍)으로서 이들에게는 조총과 환도 각 1자루, 화약통, 화승 등과 함께 탄환인 연환(鉛丸) 50발을 지급하였다.⁴²⁾

1876년 개항 이후에는 조선의 군사적 중심이 경기 해안 방어로 옮겨감에 따라 강화도와 경기만 일대 방어체제 정비가 우선 과제였다. 인천과 강화도 등지의 이루어진 해안 포대 건설은 이러한 상황의 반영이다. 19세기 말 독산성 일대에 대한 추가적인 관망의 정비는 나타나지 못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19세기 말 이후 현재까지 독산성은 군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고대 이후 조선후기까지, 특히 임진왜란 이후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여러 차례 축조되었으므로 한국의 근세 이후 성곽의 변화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 유산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18세기 후반 정조의 주도로 건설된 수원 화성과 연계된 이른바 ‘정조문화권(正祖文化圈)’을 구성하는 주요한 유적의 하나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향후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42) 연갑수, 1997 「병인양요 이후 수도권 방비의 강화」, 『서울학연구』 8, 80~83쪽; 배항섭, 2002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92쪽.

참 고 문 헌

경기문화재단 편, 2003 『경기도의 성곽』, 경기문화재단

노영구, 2019 『조선후기 도성방어체계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백기인, 2002 『조선후기 국방론 연구』, 해안

심승구 등, 1997 『조선후기의 수도방어체제』, 서울학연구소

유봉학, 1996 『꿈의 문화유산, 화성』, 신구문화사

정해득, 2009 『정조시대 현릉원 조성과 수원』, 신구문화사

최홍규, 1995 『우하영의 실학사상연구』, 일지사

구열화, 2019 「숙종~영조시기 삼남 등의 방어체제 정비와 변화-교통로에 위치한 요충지
방어의 확장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85

김우진, 2019 「숙종대의 수도권 방어정책과 국왕의 대응」,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준혁, 2020 「조선후기 독산성 방어책과 군영 경영」, 『문화와 융합』 74

노영구, 1999 「조선후기 성제 변화와 화성의 성곽사적 의미」, 『진단학보』 88

배항섭, 2002 『19세기 조선의 군사제도 연구』, 국학자료원

신영문, 20 「조선후기 도성방어체계의 추이와 독산성의 위상변화」, 『백산학보』 119

심승구, 2012 「임진왜란 중 독산성 전투와 그 역사적 의미」, 『한국학논총』 37

심승구, 2020 「임진왜란 중 독산성의 축성과 성곽사적 의미」, 『백산학보』 119

연갑수, 1997 「병인양요 이후 수도권 방비의 강화」, 『서울학연구』 8

이태진, 2008 「‘누란의 위기’관리 7년 10개월」, 『류성룡과 임진왜란』, 태학사

정응수, 2015 「정경의 조선침공설에 관한 고찰」, 『일본문화학보』 56

조준호, 1998 「영조대 수성절목의 반포와 수도방위체제의 확립」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서울학연구소

최재현, 2020 「오산독산성의 세계유산가치에 대한 고찰, 고지도류」, 『오산독산성 사료총서1』,
경기문화재단

久保田正志, 2008, 『日本の軍事革命』, 錦正社



독산성 축조 및 관련 인물

1 김천일(金千鎰, 1537~1593)

조선중기의 문신이며 의병장. 본관은 언양(彦陽). 자는 사중(士重), 호는 건재(健齋)로 나주 출신이다. 할아버지는 주부 김운손(金潤孫)이고, 아버지는 진사 김언침(金彦琛)이며, 어머니는 양성 이씨(陽城李氏)로 부위(副尉) 이감(李城)의 딸이다. 이항(李恒) 문인으로, 김인후(金麟厚), 유희춘(柳希春) 등과 교유하였다.

1573년(선조 6) 학행(學行)으로 발탁되어 처음 군기시 주부(軍器寺主簿)가 된 뒤 용안현감(龍安縣監)과 강원도와 경상도의 도사를 역임하였다. 지평(持平) 때에 소를 올려 시폐를 적극 논란하다가 좌천되어 임실현감이 되었다. 그 뒤 담양 부사 한성부 서운 수원 부사를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일본군이 북상해 전쟁 발발 20일만에 한성이 함락되고 국왕이 서행(西幸)했다는 소식에 접하자 고경명(高敬命), 박광옥(朴光玉), 최경회(崔慶會) 등에게 글을 보내 의병을 일으킬 제의하고 담양에서 고경명 등과 협의하였다.

그 뒤 나주에서 송제민(宋濟民)·양산숙(梁山壽)·박환(朴權) 등과 함께 의병의 기치를 들고 의병 300명을 모아 북쪽으로 출병하였다. 한편, 공주에서 조헌(趙憲)과 호서 지방 의병에 관해 협의하고는 곧 수원에 도착하였다. 북상할 때 수원의 연도에 서 스스로 의병에 참가한 자와 또 호서 방면에서 모집한 숫자가 크게 늘어나자 군세를 떨쳤다.

수원 독성산성(禿城山城)을 거점으로 본격적인 군사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특히 다양한 유격전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특히, 금령전투(金嶺戰鬪)에서는 일시에 적 15명을 참살하고 많은 전리품을 노획하는 대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8월 전라 병사에 최원(崔遠)의 관군과 함께 강화도로 진을 옮겼다. 이 무렵 조정으로부터 창(倡)의사(倡義使)라는 군호(軍號)를 받고 장례원판결사(掌禮院判決事)에 임명되었다.

조정의 명령을 호남·호서에 전달할 수 있는 전략상의 요충지인 강화도에 진을 옮긴 뒤 강화부사, 전라병사 등과 협력하여 강화도 연안에 방책(防柵)을 쌓고 병선을 수리해 전투 태세를 재정비하였다. 9월에는 통천(通川)·양천(陽川) 일대의 의병까지 지휘했고 매일같이 강화도 연안의 적군을 공격했으며, 양천, 김포 등지의 일본군을 공격하여 패주시켰다.

이듬해인 1593년 정월 명나라 군대가 평양을 수복, 개성으로 진격할 때 이들의 작전을 도왔으며, 명 일간에 강화가 제기되자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서울이 수복되어 굶주리는 자가 속출하자 배로 쌀 1,000석을 공급해 구휼하였다. 전투에서도 충청수사 정걸 등과 함께 한성 인근의 선유봉(仙遊峯) 및 사현(沙峴)의 전투에서 다수

의 일본군을 죽이거나 생포하였다. 2월에는 권율(權慄)의 행주산성 전투에 강화도로부터 출진해 참가하였다. 이들 의병은 강화도를 중심으로 장기간의 전투에서 400여 명의 적을 참살하는 전공을 세웠다.

1593년 4월 일본군이 한성에서 철수하자 이들을 추격하여 경상도 상주를 거쳐 함안에 이르렀다. 당시 일본군은 동래, 김해 등지의 각처의 군사를 모아 1차 진주성 전투에서의 패배를 설욕하기 위한 진주성 공격을 준비하였다. 이에 김천일은 6월 14일 300명의 의병을 이끌고 입성하였다. 김천일은 합세한 관군 의병의 주장인 도절제(都節制)가 되어 항전 태세를 갖추었다. 10만에 가까운 일본의 대군이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진주상에 대해 대공세를 감행하자 조선군은 중과부적임에도 분전했으나 끝내 함락되고 말았다.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김천일은 아들 김상건(金象乾)과 함께 축석루에서 남강(南江)에 몸을 던져 순사하였다.

1603년(선조 36) 좌찬성에 추증되고, 이어 1618년(광해군 10)에 영의정으로 추증되었다. 나주의 정렬사(旌烈祠), 진주의 창렬사(彰烈祠), 순창의 화산서원(花山書院), 태인의 남고서원(南臯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건재집(健齋集)』이 있고, 시호는 문열(文烈)이다.

2 권율(權慄, 1537~1599)

조선중기의 문신,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언신(彦愼), 호는 만취당(晩翠堂) 모악(暮嶽). 도첨의(都僉議) 권보(權溥)의 9세손으로, 조부는 강화부사 권적(權勣), 부친은 영의정 권철(權轍), 어머니는 적순부위(迪順副尉) 조승현(曹承現)의 딸이다. 임진왜란 당시 도승지 및 병조판서였던 이항복(李恒福)의 장인이다.

1582년(선조 15)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승문원 정자가 되었다. 이어 전적 감찰 예조좌랑 호조정랑 전라도도사 경성판관 등의 여러 관직을 지냈다. 1591년에 다시 호조정랑이 되었다가 곧바로 의주목사로 발탁되었으나, 이듬해 초 해직되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광주 목사에 제수되어 곧바로 임지인 전라도 광주로 떠났다. 일본군에 의해 5월 초 도성이 함락된 뒤 전라도 관찰사 이광(李洸)과 방어사 곽영(郭嶸)이 4만여 명의 군사를 모집할 때 광주목사로서 곽영의 휘하에서 중위장(中衛將)이 되어 서울의 수복을 위해 함께 북진했다.

이광이 수원과 용인 경내에 이르러 이곳에 진을 친 소규모의 적들을 공격하려 하자 극력 반대하면서 자중책을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광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취해 대패하고 선봉장 이시지(李詩之), 백광언(白光彦) 등의 여러 장수들이 전사했다.

전라도로 돌아온 이후 남원에서 1,000여 명의 의군을 모집해 전열을 정비하여 금산군에서 전주로 들어오려고 하는 고바야카와[小早川隆景]의 정예 부대를 맞아 동북현감(同福縣監) 황진(黃進)과 함께 전북 금산 근처의 이치(梨峙)에서 싸웠다. 이 전투에서 황진이 총을 맞아 사기가 저하되었으나 굴하지 않고 군사들을 독려해 일본군을 격퇴시켜 호남을 보존하였다. 그해 가을 권율은 이치 전투의 공으로 전라 감사에 승진하였다.

12월 도성 수복을 위해 1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북진 길에 올라 직산에 이르러 잠시 머물다가, 체찰사 정철(鄭澈)이 군량미 마련 등에 어려움이 있으니 돌아가 관내(管内)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잠시 주저했으나 북상하라는 행재소의 전갈을 받고 북진을 계속했다. 앞서 용인에서 크게 패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 바로 북상하는 것을 피하고, 수원의 독성산성(禿城山城)에 들어가 진지를 구축했다. 대병이 독성산성에 와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군 총사령관 우키타[宇喜多秀家]는 후방의 연락이 단절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도성에 주둔한 일본군을 풀어 세진(陣)을 만들고 오산 등 주변 여러 곳에 진을 친 다음 서로 오가게 하며 독성산성의 아군을 밖으로 유인하려 했다. 그러나 성책을 굳게 해 지구전(持久戰)과 유격전을 펴가면서 그들에게 타격을 가하자 몇 날이 지난 다음 영책(營柵)을 불사르고 도성으로 물러났다. 적이 퇴각할 때 정예 기병 1,000명을 풀어 적의 퇴로를 기습해 많은 왜병을 베었다.

3 유성룡(柳成龍, 1542~1604)

이듬해 초 평양성을 수복한 명나라 원군의 남하에 호응해 도성을 수복하기 위해 독성산성으로부터 서울 근교인 행주산성으로 진을 옮겼다. 그리고 조경에게 명해 2 일간에 걸쳐 목책(木柵)을 완성하게 하고 이어 독성산성으로부터 군사를 옮기는 작업을 개시했다. 대군의 행렬을 위해서 독성산성에 소수의 군사만을 남겨 많은 군사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이 위장한 뒤 불시에 행주산성으로 옮겼다. 휘하 병사들 가운데 4,000명을 뽑아 전라병사 선거이(宣居怡)로 하여금 금천(衿川)에 주둔하게 하고 도성의 적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이때 휴정의 고제(高弟) 처영(處英)이 의승병(義僧兵) 1,000명을 이끌고 당도하여, 행주산성에 포진한 총 병력은 수천 명에 달하였다.

벽제관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2월 중순 총대장 우키타를 위시해서 본진의 주요 장군들까지 3만의 병력으로 행주산성을 공격했다. 일본군은 7대로 나누어 계속해 맹렬한 공격을 가해 성이 함락될 위기에까지 직면했으나, 권율의 일사불란한 통솔력과 화차 등 각종 화약을 이용한 방어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것이 1593년 2월 12일에 있었던 행주대첩이다.

이 전투 이후 권율은 일본군의 재침을 경계해 행주산성은 오래 견디어내기 어려운 곳으로 판단한 유성룡의 명령으로 행주산성의 진을 파주산성(坡州山城)으로 옮겨가서 도원수 김명원(金命元), 부원수 이빈(李彬) 등과 이 성을 지키면서 정세를 관망했다. 이후 명나라와 일본 간에 강화 회담이 진행되어 일본군이 한성에서 철수하자 군사를 이끌고 전라도로 복귀했다. 그해 6월 행주대첩의 공으로 도원수로 승진되어 영남에 주둔하였다. 1596년 도망병을 즉결한 죄로 해직되었으나 바로 한성부 판윤에 기용되었으며, 호조판서, 충청도 관찰사를 거쳐 재차 도원수가 되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적군의 북상을 막기 위해 명나라 제독 마귀(麻貴)와 함께 울산에 대진했으나 양호(楊鎬)의 돌연한 퇴각으로 철수했다. 이어 순천의 예교(曳橋)에 주둔한 고니시 유키나가(高木友房)의 일본군을 공격하려 했으나, 전쟁의 확대를 꺼리던 명나라 장수들의 비협조 등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1599년 노환으로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7월에 죽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1604년(선조 37) 선무공신(宣武功臣) 1등에 영가부원군(永嘉府院君)으로 추봉되었다. 시호는 충장(忠莊)이다.

조선중기의 문신.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이현(而見), 호는 서애(西厓). 의성 출생. 유자온(柳子溫)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유공작(柳公綽)이다. 아버지는 황해도 관찰사를 지낸 유중영(柳仲郢)이며, 어머니는 진사 김광수(金光粹)의 딸이다. 이황(李滉)의 문인으로, 학봉 김성일(金誠一)과 동문 수학하였다.

1564년(명종 19) 생원 진사가 되고, 다음 해 성균관에 들어가 수학한 다음, 1566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승문원 권지부정자가 되었다. 이듬해 정자를 거쳐 예문관 검열로 춘추관 기사관을 겸직하였다. 1568년 대교, 이듬해 전직 공조 좌랑을 거쳐 감찰로서 성절사(聖節使)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왔다. 이어서 부수찬, 지제교로 경연검토관(經筵檢討官), 춘추관 기사관 등을 겸직한 뒤, 수찬에 제수되어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그 뒤 정언(正言), 병조 좌랑, 이조 좌랑, 부교리, 이조정랑, 교리, 전한, 장령, 부응교, 검상, 사인, 응교 등의 주요 관직을 역임하고 1578년 사간이 되었다. 이듬해 직제학 동부승지 지제교로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과 춘추관 수찬을 겸하고, 이어 이조참의를 거쳐 1580년 부제학에 올랐다. 1582년 대사간, 우부승지, 도승지 등을 거쳐 대사헌에 승진해 왕명을 받고 「황화집서(皇華集序)」를 지어 올렸다.

1583년 다시 부제학이 되어 「비변오책(備邊五策)」을 지어 올렸다. 그 해 함경도관찰사에 특별히 임명되었으나 어머니의 병으로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이어 대사성에 임명되었으나, 역시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다가 경상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 다음 해 예조판서로 동지경연춘추관사(同知經筵春秋館事) 제학을 겸했으며, 1585년 왕명으로 「정충록발(精忠錄跋)」을 지었고, 다음 해 『포은집(圃隱集)』을 교정하였다.

1588년 대제학에 올랐으며, 다음해에는 대사헌 병조판서 지중추부사를 역임하였다. 이 해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있자 여러 차례 벼슬을 사직했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자 상소하여 스스로 탄핵하였다. 1590년 우의정에 승진, 광국공신(光國功臣) 3등에 녹훈되고 풍원부원군(豊原府院君)에 봉해졌다. 1591년 우의정으로 이조판서를 겸하고, 이어 좌의정에 승진하고 이조판서를 겸하였다. 이 해 건저문제(建儲問題)로 서인 정철(鄭澈)의 처벌이 논의될 때 동인의 온건파인 남인(南人)에 속해, 같은 동인의 강경파인 북인(北人)의 이산해(李山海)와 대립하였다.

임진왜란이 있을 것에 대비해 형조정랑 권율(權慄)과 정음현감 이순신(李舜臣)을 각각 의주목사와 전라 좌수사에 천거하였다. 그리고 경상우병사 조대군(曹大坤)을 이일(李鎰)로 교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진관법(鎭管法)을 예전대로 고칠 것을 청하였다. 1592년 4월 13일 일본이 대거 침입하자, 병조판서를 겸하고 도체찰사로 군무(軍務)를 총괄하였다. 이어 영의정이 되어 왕을 호종(扈從)하여 평양에 이르렀으나

나라를 그르쳤다는 반대파의 탄핵을 받고 면직되었다. 이후 의주에 이르러 평안도 도체찰사가 되었다.

이듬해인 1593년 정월 초 명나라의 구원군 장수 이여송(李如松)과 함께 평양성을 수복, 그 뒤 충청 경상 전라 3도의 도체찰사가 되어 파주까지 진격하였다. 이해 다시 영의정에 올라 4도의 도체찰사를 겸하여 군사와 민사를 모두 총괄 지휘하였다. 이어 송이 서둘러 남하하다가 한성 북쪽의 벽제관(碧蹄館)에서 대패한 이후 평안도 지역으로 퇴각하는 것을 극구 만류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 해 4월 이여송이 일본과 화의하려 하자, 글을 보내 화의를 논한다는 것은 나쁜 계획임을 역설하였다. 또 군대 양성과 함께 명나라 군이 선보인 절강 지역의 새로운 신형 무기를 본떠 화포와 각종 단병기 등의 무기 제조 및 성곽의 수축을 건의해 군비 확충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소금을 만들어 굶주리는 백성을 진휼할 것을 요청하였다. 10월 선조를 호위하고 서울에 돌아와서 훈련도감의 설치를 요청했으며, 변응성(邊應星)을 경기좌방어사로 삼아 용진(龍津)에 주둔시켜 반적(叛賊)들의 내통을 차단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유성룡은 경기 일대의 방어체제 정비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는데, 독성과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그곳에 군량을 확보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경기 일대의 진관체제를 복구하고 독성 등에 방어영을 설치하는 등 경기 지역 지방군 강화를 요청하였다. 유성룡의 독성 일대에 대한 방어체제 정비 주장으로 방어사 변응성에게 명하여 독성 수축이 이루어졌다. 독성 일대에 대한 방어체제 정비는 정유재란 당시 경기와 충청도 경계까지 북상한 일본군을 이 일대에서 저지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1594년 훈련도감이 설치되자 제조(提調)가 되어 『기효신서(紀效新書)』를 강해(講解)하였다. 또한 호서 지역의 사사위전(寺社位田)을 훈련도감에 소속시켜 군량미를 보충하고 조령(鳥嶺)에 관둔전(官屯田)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등 명나라와 일본과의 강화 회의를 진행되는 기간에도 군비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였다. 1598년 명나라 경략(經略) 정응태(丁應泰)가 조선이 일본과 연합해 명나라를 공격하려 한다고 본국에 무고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이 사건의 진상을 변명하러 가지 않는다는 북인들의 탄핵으로 관작을 삭탈당했다가, 1600년에 복관되었으나 다시 벼슬을 하지 않고 은거하였다.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고 다시 풍원부원군에 봉해졌다. 안동의 병산서원(屏山書院) 등에 제향되었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저서로는 『서애집(西厓集)』, 『징비록(懲毖錄)』, 『난후잡록(亂後雜錄)』, 『상례고증(喪禮考證)』 등이 있다.

4 유근(柳根, 1549~1627)

조선중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회부(晦夫), 호는 서경(西炯). 유팽수(柳彭壽)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유운(柳潤)이다. 아버지는 진사 유영문(柳榮門)이며, 어머니는 안세언(安世彦)의 딸이다. 황정욱(黃廷馱) 문인이다.

1570년(선조3) 생원시와 진사시에 모두 급제하고, 1572년(선조 5) 별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1587년 이조정랑으로서 문신 정시(文臣庭試)에 다시 장원하였다. 이 해 일본의 중 겐소[玄蘇] 일행이 조선에 사신으로 오자, 문장이 뛰어난 그는 선위사(宣慰使)에 특별히 임명되어 이들을 맞이하고 대접하였다. 1591년 좌승지로서 건저문제(建儲問題)로 정철(鄭澈)이 화를 당할 때 일파로 몰려 탄핵을 받았으나, 문재(文才)를 아끼는 선조의 두둔으로 화를 면하였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주까지 임금을 호종하였다. 그후 예조참의, 좌승지 등을 거쳐 예조참판으로 특별진급되었다.

1593년 도승지로서 경성 안무사(京城安撫使)가 되어 한성으로 들어와 한성 주민들의 민심을 수습하고, 이어 한성부 판윤에 올랐다. 이후 사은부사로 명나라에 다녀온 이후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다. 경기 관찰사 재임 당시 독산성의 군사적 중요성을 인식하여 1594년 9월 11월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독산성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옛 성터에 성을 부분적으로 고쳐 쌓고 백성들을 모집해 들여다 성 가운데에 창고를 설치하고 곡식을 쌓도록 하였다. 이 당시 수축된 독산성은 정유재란 당시 경기 남부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운항검찰사(運餉檢察使)로 조선으로 파병온 명나라 군의 군량미를 명나라에서 수송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1601년 예조판서가 되어 동지사로 다시 명나라에 다녀왔고, 1603년에는 충청도관찰사로 있으면서 온조묘(溫祚廟)를 다시 세울 것을 건의하였다.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녹훈되고 진원부원군(晉原府院君)에 봉해졌다. 대제학에 이어 좌찬성이 되었다.

광해군 때 대북파가 국경을 농단하고 1613년(광해군 5) 폐모론까지 일어나자, 괴산으로 물러나 정청(庭請)에 참여하지 않아 관작이 삭탈되었다가, 1619년 복관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다시 기용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1627년 정묘호란 당시 강화도에 국왕 인조를 호종하던 중 통진에서 죽었다. 괴산의 화암서원(花巖書院)에 제향되었다. 문집으로 『서경집』이 있고,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유근 초상

5 변양걸(邊良傑, 1546~1610)

조선 중기의 무인.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국화(國華). 충좌위 사직(忠佐衛司直)을 지낸 변확(邊確)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토산 현감(兎山縣監) 변자정(邊自靖)이고, 아버지는 예조 좌랑 변위(邊偉)이다. 어머니는 부장(部將) 민희현(閔希賢)의 딸이다.

1572년(선조 5) 무과에 급제한 뒤, 용양위부장(龍驤衛部將), 벽동군수, 인산진첨절제사(麟山鎭僉節制使), 강계부사 등 여러 지방관을 지냈다. 1583년 여진족인 니탕개가 두만강을 건너 경원부(慶源府)에 침입하자 길주목사 겸 조방장으로 출전하여 공을 세웠다. 그러나 부하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시기한 주장(主將)의 무고로 서변(西邊)에 유배되었다가 곧 풀려나 북변(北邊)의 여진족 침입을 방어한 공으로 순천부사가 되었다. 1591년에는 충청도 수군절도사로 승진하였다.

이듬해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뱃길로 행재소에 군량을 조달하는 한편, 창의사 김천일(金千鎰)과 협력해 강화도를 방어하고, 조정의 명령이 충청도와 전라도에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 공로로 충청도병마절도사, 함경남도병마절도사를 지냈다. 1596년(선조 29) 말 경기우도 방어사(京畿右道防禦使)에 임명되어 독산성을 수축하여 경기 남부 지역 방어의 주요 지역으로 삼았다. 변양걸은 독성 위에 흙을 쌓아 위를 평평하게 한 뒤에 집을 세우고 창을 뚫어 아래로 내려다 볼 수 있게 하고 석거(石車)와 포군(砲軍) 모두를 그 속에 들어가 방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 밖에는 목책(木柵)을 세워 틈 사이로 적을 쏘도록 하는 등 독성을 방어력을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1599년(선조 32) 훈련대장이 될 때까지 계속 경기우도 방어사를 맡아 정유재란 당시 일본군의 북상을 독산성을 거점으로 견제 저지하였다.

전쟁이 끝난 1599년에는 훈련대장이 되었으나 문신과 연관들의 탄핵을 받고 사직하였다. 그러나 명나라 군사들 가운데 조선에 남아 있던 자들이 난을 일으키자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훈련대장에 복직되고, 이어 지중추부사, 지훈련원사가 되어 비변사의 군국(軍國) 대사에 참여하였다.

1604년 포도대장으로서 임진왜란 후 혼란한 장안의 치안을 바로잡았다. 당시 도적들이 유성군(儒城君) 유희서(柳熙緒)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과 관련하여 유희서의 첩이 사통(私通)한 외간 남자를 조사하던 중, 선조의 맏아들 임해군(臨海君)도 그녀와 관계한 정황이 드러났다. 변양걸이 모두 체포하여 국문하고 그 사건의 전모를 밝히자 선조가 도리어 대노하여 그를 동래로 유배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나 도총관을 거쳐 1608년 수원부사 겸 방어사가 되어 독산성의 정비에 힘썼다. 이후 제주 목사가 되었다. 그러나 제주목사 재직 중 관마(官馬) 10여 필을 훔쳤다는 혐의로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제주목사 재임 당시 제주도에서 얻은 풍토병이 악화되어 1610년(광해군 2)에 죽으니, 향년 65세였다. 시호는 정의(貞毅)이다.

6 변응성(邊應星, 1552~1616)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기중(機仲). 아버지는 공조판서 겸 도총관 변협(邊協)이다.

1579년(선조 12) 기묘(己卯) 식년 무과에 병과(丙科) 3위로 급제하였다. 강계부사를 역임한 끝에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물러가 있었으나,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주부윤(慶州府尹)에 임명되었으나 경주로 부임하기 전에 일본군이 먼저 경주를 점령하여 부임하지 못하였다. 8월 가평 전투에서는 적과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쳤다는 이유로 백의종군되었다. 이듬해 2월 유성룡(柳成龍)이 그의 죄를 변호하여 경기 방어사가 되었다. 이후 이천부사(利川府使)가 되어서는 여주목사 원호(元豪)와 협력하여 남한강에서 적을 무찔렀다.

경기방어사가 된 변응성은 독산성을 둘러보고 이 성 일대가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임을 인식하고 인근의 장정 500명을 뽑아 사수(射手)로 삼아 방어군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선조에게 보고하였다. 이를 계기로 처음으로 독산성이 축조되었다. 독산성은 정유재란 시기 일본군이 근처까지 북상하였으나 백성들이 이 성에 들어가 지키면서 일본군을 저지하였다.

1594년 전쟁의 혼란으로 경기의 광주 이천 양주 등지의 산간에 출몰하는 토적(土賊)을 토벌하였고, 한강 상류인 용진(龍津)에 승군을 동원하여 목책(木柵)을 구축하여 병졸을 훈련하였다. 그러나 토적 토벌에 성과가 적다는 이유로 1595년 파직 추고되었다. 1596년 이몽학(李夢鶴)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용진과 여주의 파사성(婆娑城)을 수비하였다.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경기좌방어사로서 경기 지역의 유이민을 모아 군병으로 확보하고, 조경과 함께 가평에 진을 치고 일본군의 북상을 견제하는 등 공을 세웠다.

1602년 변응성은 수원부사 겸 방어사로 임명되어 독산성의 제4차 수축을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성벽을 다시 축조하되 이전보다 체성(體城)의 높이를 올렸고, 둘째 성 둘레에 해자를 깊이 파서 성곽의 방어를 더욱 강화하였다. 셋째 성 내에 샘을 파서 성내의 군사와 백성들에게 충분한 식수가 공급되도록 하였고, 넷째 둔전인 밭을 일구어 백성들이 굶주리게 않게 하였으며 아울러 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궁노, 석차, 화포, 화전, 기계 등 각종 군비를 대량으로 제조하고 비치하여 독산성을 방어력을 제고하는데 공을 세웠다. 1604년 전라 병사, 1606년 함경도 남병사 등의 주요 무관직을 거쳤다.

광해군 때에 훈련대장과 한성 판윤에까지 승진하였다. 1612년(광해군 4) 박응서(朴應犀)의 옥사에 연루되었으나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사후 병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양혜(襄惠)이다.

7 권준(權俊, 1547 ~ 1611)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언경(彦卿), 호는 원당(元堂)으로 1547년(명종 2) 한성에서 출생하였다. 조선 개국공신 권근(權近)의 7대손이며, 길창군 권규의 6세손이자 병조참판 등을 지낸 권눌(權訥)의 아들이다.

내금위(內禁衛)로 있다가 1579년(선조 12) 식년 무과에서 갑과(甲科) 3등으로 급제한 이후 여러 직위를 거쳐 1589년(선조 22) 순천도호부사(順天都護府使)가 되었다. 순천은 전라좌수영 소속의 5관 5포 중 하나로 가장 규모가 큰 고을이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최초 육군의 조방장으로 참전하였고, 곧이어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 이순신(李舜臣) 휘하에서 2차 출동인 사천 해전에 참여한 이래 한산 대첩(閑山大捷), 부산포 해전 등 주요 해전에서 중위장(中衛將)으로서 활약하며 조선 수군이 연승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594년(선조 27) 사간원(司諫院)의 요구로 조사를 받고 순천도호부사에서 사임하고 경상좌병사 박진(朴晉)이 그의 후임으로 순천도호부사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듬해 원군의 뒤를 이어 경상우도 수군절도사(정3품)로 임명되었으나 이후 이순신이 일본군의 반간계로 인해 파직되고 원군이 삼도수군통제사로 임명되자 경상우도 수군절도사를 사임하였다.

1597년(선조 30) 칠천량 해전에서 원군이 이끈 조선 수군이 대패하고 이순신이 다시 삼도수군통제사에 임명된 후 권준도 충청도 수군절도사(忠淸道水軍節度使)에 임명되어 이순신 휘하에서 활약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경기도 방어사를 거쳐 1601년(선조 34) 충청도 병마절도사(忠淸道兵馬節度使)에 임명되었다. 1604년(선조 37) 임진왜란 당시의 전공으로 선무공신(宣武功臣) 3등에 녹훈되고 안창군(安昌君)에 봉해졌다. 이듬해인 1605년 황해도 병마절도사(黃海道兵馬節度使)가 되었으나, 1607년(선조 40) 해랑도(海浪島)에 나타난 해적을 체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처벌되었다.

사후 병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묘는 여주시 점동면 원부리에 위치한다.

8 윤두수(尹斗壽, 1533~1601)

본관은 해평. 자는 자양(子仰), 호는 오음(梧陰). 아버지는 군자감정(軍資監正) 변(忭)이며, 동생이 우찬성 근수(根壽)이다. 성수침(成守琛) 이중호(李仲虎) 이황(李滉) 등에게 배웠다. 1558년(명종 13)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정자 저작 등을 지냈다.

1563년 이조정랑으로 있을 때, 명종비 인순왕후(仁順王后)의 외삼촌으로 권세를 누리던 이조판서 이량(李樑)이 아들 정빈(廷賓)을 이조좌랑에 천거하자 이에 반대하다가 대사헌 이감(李戡)의 탄핵을 받고 벼슬에서 쫓겨났다. 같은 해 이량이 반대파 사림의 숙청을 꾀하다가 유배됨에 따라 다시 기용되어 수찬이 되었다. 그뒤 이조참의 장령 사복시정 부응교 우승지 등을 지냈고, 1576년(선조 9) 대사간이 되었다. 1577년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도승지로 있다가 이종동생 이수(李銖)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양사(兩司)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으나, 1579년 연안부사로 복직되었다. 이때 구항의 공으로 선조로부터 옷 1벌을 상으로 받았다. 이어 한성부좌윤 형조참판을 거쳐 1587년 전라도관찰사, 1589년 평안감사를 지냈다. 이듬해 종계변무(宗系辨誣)의 공으로 광국공신 2등, 해원군(海原君)으로 봉해졌다. 1589년 정여립(鄭汝立)의 역모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기축옥사를 통해 서인이 동인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뒤, 대사헌과 호조판서를 지냈다. 1591년 서인의 영수 정철(鄭澈)이 광해군의 세자책봉을 건의하다가 유배를 당할 때 함께 파직되어 회령과 홍원 등지에서 귀양살이를 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다시 기용되어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扈從)하였다. 곧 이어 우의정을 거쳐 평양에서 좌의정에 올랐다. 평양에 있을 때 명나라에 대한 원병 요청을 반대하고 평양성의 사수를 주장하였으며, 국왕의 함흥 피난론을 물리치고 의주로의 피난을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킴으로써 함흥이 일본군에게 함락된 뒤에도 선조가 무사하게 했다. 의주에서는 상소를 올려 임금의 랴오둥[遼東] 피난을 막았다.

1594년 세자를 따라 남하하여 삼도체찰사(三道體察使)가 되었으며, 그해 9월 윤두수는 군사를 이끌고 거제(巨濟)에 머물고 있는 일본군을 공격하여 몰아내려고 했다가 계획이 누설되어 그만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윤두수는 패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적들의 탄핵을 받고 파직되었다가 1595년 초에 판중추부사로 복직하여 왕비를 해주로 시종한 공으로 해원부원군(海原府院君)에 봉해졌다. 1599년 영의정에 이르렀으나 곧 사직하였다.

1601년 3월 사망하기 직전에 올린 상소에서 한성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방략으로 경기의 수원(水原)을 중심으로 방어체제를 갖추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수원이 기보(畿輔) 중에 가장 큰 고을로서 무인(武人)이 거의 1천 명에 이르며 독성(禿城)과 같은 요새지도 있으므로 이 성을 수축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이 곳에 평안도

영변과 함경도 경성의 제도처럼 병사를 보내어 방어사로 삼아 겸임하도록 하며 둔전을 설치하여 군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윤두수는 임진왜란 중에도 여러 차례 수원과 독산성, 남한산성의 군사적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 지역의 정비를 주장하였다.

1605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추록(追錄)되었다. 저서로는 『오음유고梧陰遺稿』, 『성인록 成仁錄』와 편저로는 『기자지箕子志』, 『평양지平壤志』, 『연안지延安志』 등이 있다. 시호는 문정이다.



윤두수 자화상

9 이한흥(李漢興, ?~?)

조선후기의 무신으로 18세기 후반 정조대 독산성 수축에 공을 세웠다.

1753년(영조 29) 계유(癸酉) 식년 무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1761년 황해 병사로서 군액을 누락한 것이 많다는 것으로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말 영달만호(永達萬戶)로 임명되고, 1766년 선전관이 되었다. 1769년 부장(部將), 훈련주부, 이듬해 도총도사(都摠都事), 1773년 부사과, 1774년 감찰, 공조좌랑, 훈련부정, 이듬해 명천군수 등 내외의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다. 1776년에는 대흥산성의 중군(中軍), 1776년에는 국왕 호위 부대인 검사복장을 거쳐 1778년에는 갑산부사가 되었으나 이듬해 갑산부에 유배온 죄인 관리의 부실로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1783년 어영청 천총이 되었으나 신병이 심하여 교체되었다. 1785년 장연현감, 1789년 선천부사 등 지방관으로 나갔다가 1791년 선전관이 되어 중앙으로 돌아왔다.

1792년 2월 수원 중군으로 임명되고 그해 7월 하순부터 대솔군관 민광록과 함께 당시 독산성의 대규모 수축 공사의 책임을 맡았다. 이 수축 공사는 1792년 7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70여일 동안 이루어진 공사로 주로 무너진 독산성의 체성을 수축하고 회를 발라 여장의 벽돌을 덮었다. 당시 수축한 규모는 성의 둘레 1,004보로서 신축한 곳이 732보, 수축한 곳이 272보였다. 아울러 수문 3곳을 개축하고 산사태 난 12곳에 길이 101보, 너비 108보로 돌을 채워 신축하고 여장 309개소를 모두 신축하였다.

독산성 수축의 공으로 가선대부로 승진하고 그해 연말에는 우림위장(羽林衛將)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영흥부사, 선전관 등으로 임명되었다. 사후인 1813년 병조참판으로 추증되었다.

10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조선후기의 실학자. 자는 미용(美鏞). 호는 다산(茶山)·사암(俟菴)·여유당(與猶堂)·채산(菜山).

근기(近畿) 남인 가문 출신으로, 정조 연간에 관직 생활을 하였으나, 청년기 접했던 서학(西學)으로 인해 장기간 유배되었다.

그는 진주목사(晉州牧使)를 역임했던 정재원(丁載遠)과 해남윤씨 사이에서 4남 2녀 중 4남으로 태어났다. 1783년 그가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고, 1789년 식년문과(式年文科) 갑과(甲科)에 급제하여 희릉 직장(禧陵直長)을 시작으로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 사간(司諫), 동부승지(同副承旨), 곡산부사(谷山府使), 병조참지(兵曹參知), 형조참의(刑曹參議) 등의 내외의 여러 관직을 역임했다. 1789년에는 한강에 배다리[舟橋]를 준공시키고, 1793년에는 수원성을 설계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 등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1792년 겨울 정조는 정약용에게 명하여 성을 쌓는 방법을 조목별로 올리도록 하였다. 이에 정약용은 윤경(尹耕)의 『보약堡約』과 유성룡의 「성설城說」 등에서 도움을 받아 그중에서 좋은 방법을 따다가 초루(譙樓), 적대(敵臺), 현안(懸眼), 오성지(五星池) 등의 여러 방법을 정조에게 올렸다. 이에 정조는 이상의 여러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올릴 것을 명하고 당시 내각에 소장 중이던 『도서집성圖書集成』의 『기기도설奇器圖說』을 내려 주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약용은 웅성(甕城), 포루(砲樓), 현안, 및 기중(起重)에 대한 도설을 완성하였다. 정약용의 성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성곽 축조를 위한 여러 새로운 시설에 대한 기본 설계안은 완성될 수 있었다.

1801년(순조 1)의 천주교 교난 때 유배를 당하여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는 1818년까지 18년 동안 유배되었다. 그는 강진 유배기간 동안 학문 연구에 매진했고, 이를 자신의 실학적 학문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그는 당시 조선의 사회현실을 반성하고 이에 대한 개혁안을 정리하였는데, 그는 이 유배기간 동안 자신의 학문을 더욱 연마해 이른바 일표이서(一表二書) 즉 『經世遺表』, 『牧民心書』, 『欽欽新書』 등을 비롯하여 모두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고, 이 저술을 통해서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1818년 57세 되던 해에 유배에서 풀려나 『상서(尙書)』 등을 연구했으며, 강진에서 마치지 못했던 저술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였다.

11 서유린(徐有隣, 1738~1802)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달성(達城). 자는 원덕(元德), 호는 영호(潁湖). 한성부 서윤(漢城府庶尹) 서종적(徐宗積)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도승지 서명형(徐命珩)이고, 아버지는 교리 서효수(徐孝修)이다.

1765 을유(乙酉) 식년시(式年) 생원시에 2등 1위로 급제하고 이듬해 1766년(영조 42) 정시 문과에 장원 급제하였다. 1767년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을 거쳐 1772년에는 승지가 되었으며, 다음 해 대사헌을 지냈다. 1780년(정조 4) 전라도관찰사로 나가 전라도 지방의 군제(軍制)를 개편하여 국방력 강화에 노력하였다. 1784년 병조판서에 임명되어 군직(軍職) 개편을 통해 무인(武人)들의 사기 진작에 주력하였다.

1786년에는 좌참찬에 올랐으며, 2년 후에는 공시 당상(貢市堂上)이 되어 국경지방의 무역을 관장하였다. 1788년에는 임진왜란 때 승병(僧兵)을 일으켜 크게 공헌한 서산대사(西山大師)의 사당을 새로 건축하게 하였고, 1790년에는 다시 사육신 가운데 한 사람인 유응부(兪應孚)의 묘비를 잘 관리하도록 경제적 뒷받침을 하였다. 1790년 정조의 명으로 법의학서인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의 언해에 참여하여 2년후 『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를 간행하였다.

1795년에는 판의금부사를 거쳐 한성부 판윤, 수원부 유수를 지냈다. 1800년(순조 즉위년)에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의 수렴정정이 시작되면서 정권을 장악한 계비의 형제들이 벽파와 결탁하여 시파에 대한 탄압을 할 때 이안묵(李安默)의 상소에 의해 함경도 경흥에 유배갔다가 그곳에서 병사하였다.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12 송규빈(宋奎彬, ?~?)

조선후기의 무인. 본관은 연릉, 자는 이형, 호는 매곡(梅谷).

무반 가문에서 출생하였으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고 자신의 선조 중 지신공이 있다는 것 외에 가계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다. 내외의 여러 무관직을 거쳐 정헌대부 동지중추부사에 올랐다. 83세 때인 1773년(영조 49) 당시 조선에 시급한 관방론과 전술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풍천유향(風泉遺響)』을 국왕에게 올렸다. 이 책에서 그는 조선의 국토 방위에 대한 논의 중, 수원 독산성을 개축하여 경기 남부 일대의 주요 방어 거점으로 삼을 것을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독산성을 방어하기 위해 성보와 성곽, 식수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이 성은 삼남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을 뿐아니라 도성의 보군(輔郡)인 장단, 수원, 양주, 광주를 연결하는 곳으로 중요하지만 성 내부가 협소하여 많은 주민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성곽의 구조가 방어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언급하였다.

송규빈의 시 3편이 여항문학 작품을 담은 『풍요속선』에 수록된 것을 보면 그는 아마도 한성 일대의 거주하던 도시적 취향의 이른바 여항인(閭巷人) 출신으로 북파에 속해있는 인물임을 짐작하게 한다.

13 우하영(禹夏永, 1741~1811)

경기도 수원 출신의 실학자. 본관은 단양(丹陽). 자는 대유(大猷), 호는 취석실(醉石室). 아버지는 우정서(禹鼎瑞)이며, 출생 이후 큰아버지인 우정태(禹鼎台)에게 입양되었다.

1755년(영조 31)부터 과거 공부를 시작하여 여러 번 응시했으나 회시(會試)에서만 12번 낙방하는 등 관원으로는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당시 만연하였던 과거 부정이나 관직 구걸 운동을 마다하고 시골의 유생으로 평생을 보낸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농촌 지식인이었다.

우하영은 전국의 산천을 유람하고 사회실정을 체험하였으며, 옛 문헌과 당대 제가들의 논설을 널리 읽고 수집하여 국가·사회의 경영 및 개혁 방안을 종합한 『천일록(千一錄)』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역사·지리·전제(田制)·군제·국방·관제·농업기술 문제 등에 관한 그의 독창적인 사상과 정책을 기술한 것이다.

1796년(정조 20) 조정의 구언교서(求言敎書)가 내려자 우하영은 이를 정리하여 책자로 만들어 바쳤다. 1804년(순조 4)의 구언 때 이를 다시 보완하여 『천일록』이라는 제명으로 조정에 상정했으나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정조대 올린 책자는 ‘수원유생 우하영경륜(水原儒生禹夏永經綸)’이라는 제명으로, 순조대 올린 책은 ‘천일록’이라는 표제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우하영의 사회 경제사상의 핵심은 권농 정책에 있었다. 우하영은 권농관(勸農官)의 설치, 권농 절목 마련, 농서 반포, 수차(水車) 보급, 양전과 조세의 공평, 농지 확장 등을 주장했고, 무위도식자나 부유자(浮遊者)를 엄벌할 것을 건의하였다.

한편 우하영은 상업적 농업과 시장 경제에 의한 정당한 이윤 추구를 인정했고, 공명첩(空名帖)에 의한 부농의 신분 상승을 긍정하였다. 그러나 농민층의 분화에 의한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를 우려했고, 상민들의 양반 멸시를 용납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널리 퍼져있던 광작(廣作) 농업 경영을 비판하고, 화성 장시(華城場市)에서 외부 행상의 금절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우하영의 정책과 태도는 한편으로는 실학적 근대성의 단면을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전통적 양반 사회의 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한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우하영의 광범위하고 창의적인 개혁 정책은 당시 농촌 지식인들의 의식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국가 정책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한계는 있으나 당시했고, 별다른 주목도 받지 못하였다.

14 조심태(趙心泰, 1740~1799)

조선후기의 무신. 본관은 평양(平壤). 자는 집중(執仲). 아버지는 삼도수군통제사를 지낸 조경(趙敬)이다.

무반 가문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무예를 익혀 그 실력이 매우 뛰어났으므로 1768년(영조 44)에 음보(蔭補)로 선전관에 임명되어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해 무과에 급제하여 1769년 우변포도종사관, 1770년 도총부 도사(都事), 1771년 도총부 경력, 1772년 훈련원 부정(副正), 이듬해에는 훈련원의 책임자인 훈련원정(訓練院正)에 임명되고 얼마지나지 않아 전주 영장이 되었다. 1774년 우림위장(羽林衛將), 1775년에는 지방관인 함경도의 부령부사가 되었다가 1778년 중앙으로 돌아와 부호군, 이듬해 오위장(五衛將), 평안도 용천부사, 창성 부사 등 여러 내외의 무관직과 지방관 등을 두루 거쳤다. 1785년(정조 9)에 홍충도 병마절도사, 1787년(정조 11) 함경북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같은 해 4월 삼도수군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로 승진하였고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 중이던 8월에 통제영의 전선 1척이 개조한지 68삭(朔)이 되어 짐을 내리던 중 손상되었으므로 퇴출시킬 것을 청하자 법정 기한을 채운 후에 거행하도록 하였다. 연말에는 연해 고을이 텅 비어 재정이 부족한 실상을 말하고 물자를 서로 교역하기 위해 호남의 운반로를 열 것을 건의하였다.

이듬해인 1788년(정조 12) 5월 좌포도대장이 되었으나 6월 순청(巡廳)에서 야간 순찰 때 궁성 밖 각처 군보(軍堡)에 배치된 군사들이 대답한 군호(軍號)가 한결같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고 파직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총융사(摠戎使)로 복직되고 1789년 4월에 좌포도대장으로 다시 임명되었다. 그해 7월 금성위(錦城尉) 박명원의 상소로 영우원의 수원 이장이 결정되었을 때 수원 부사로 임명되었다. 이 때 수원이 매우 중시되어 현릉원(顯隆園)을 수원으로 옮겨오는 일, 새로운 고을에 점포를 설치하여 도시 규모를 확대하는 일 등 여러 어려운 일이 많았으나 이를 모두 차질없이 처리하여 큰 공적을 남겼다. 이 공로로 1791년 정월에 좌승지로서 훈련대장에 제수되었다.

이듬해 3월 야간통행금지가 해이해졌으므로 궁궐에서 야간 통행증을 발급하여 적발하도록 하였는데, 훈련도감의 야근상태가 극히 해이하여 잘 단속하지 못하였다는 과실로 인하여 책임을 지고 경기도 죽산(竹山)에 유배되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은 8월 총융사로 다시 복귀하여 이후 금위대장, 어영대장 등 주요 군영의 책임자를 두루 역임하였다. 1794년에는 유수부로 승격된 수원 유수(水原留守)로 임명되어 수원 화성의 축성, 화성의 봉수대(烽燧臺) 설치 등의 방어시설 건설은 물론 호수를

중심으로 소나무 숲인 송림(松林) 보호, 환자(還上)의 연기와 탕감 등 수원부의 여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심태의 공헌은 적지 않았다.

1796년 8월 화성의 체성(體城) 공사를 마치자 그 공으로 장헌대부로 승급되었고, 11월에는 정조의 명에 따라 화성 성역(城役)의 전말을 기록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의 편찬을 마무리지었다. 수원유수로 화성 건설의 책임을 맡아 공을 세운 조심태는 정조로부터 업적을 인정받아 1797년 정월의 논공행상에서 우의정 채제공(蔡濟恭)과 함께 가장 뚜렷한 공신으로 전민(田民)을 상으로 받았다.

1797년 7월 어영대장, 9월 총융사, 10월 우변포도대장, 11월 형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2월에는 장용대장(壯勇大將)에 임명되었다. 9월에는 화성부(華城府)를 장용 외영(外營)으로 승격시켰지만 군제(軍制)가 아직 정돈되지 않았으므로 과천(果川) 시흥(始興) 용인(龍仁) 안산(安山) 진위(振威) 등 다섯 고을을 장용 외영에 소속시키도록 할 것을 건의하여 허락을 받았다. 장용영의 이른바 협수군(協守軍) 체제가 마련된 것이다. 1799년 9월 27일 졸하자 정조는 부의(賻儀)를 넉넉히 내려주었으며 품계를 올려주고 의정부 좌찬성으로 증직하였다. 조심태는 무관으로서는 보기 드문 명필이었으며, 특히 대자(大字)에 뛰어났다. 시호는 무의(武毅)이다.

15 강유(姜游, 1722~1798)

본관은 진주(晋州) 자는 우하(友夏), 호(號)는 남곡(南谷), 시호는 효헌(孝憲). 강복일(姜福一)의 아들.

1740년(영조 16)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1763년(영조 39)에는 증광시(增廣試) 문과에 급제하였다. 1769년(영조 45) 2월에 정언(正言). 1771년(영조 47) 9월에 지평, 이듬해 11월 승지가 되었다. 이후 지방관인 종성 부사(鍾城府使)로 나갔다가 1773년 11월 신병이 있어 공무를 전폐하였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이후 복직되어 1775년(영조 51) 부사직(副司直)이 되었다.

1778년(정조 2) 9월 강유는 도성의 방어, 군향미 저축 등 국방에 대해 상소를 올렸다. 이후 1782년(정조 6) 남양부사. 1787년(정조 11) 사직이 되었다. 1787년 11월 상소를 올려 경기 연해에 후망군(候望軍)을 파견하고 남양에 성을 쌓아 해안 방어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듬해 3월에는 당시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인 적곡(糴穀)과 산삼의 폐단에 대한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

1790년 6월에 강유는 상소를 올려 수원은 총융청(摠戎廳)의 외영으로서 국가의 중진(重鎭)이며 현릉원(顯隆園)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므로 성곽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수원의 새로 건설하는 신읍(新邑)은 들판 가운데 있으므로 성곽을 축조하고 해자를 둘러싸도록 하여 이 성곽과 수원 남쪽의 독산성이 서로 협공하는 형세를 이루어 불의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축성 방법으로 그는 수원의 새로운 성곽을 석성(石城)으로 쌓되 비용이 많이 든다면 토성(土城)으로 축조하고 토성에다가 성가퀴를 설치하고 군데군데 치성(稚城)을 설치하면 방어하는 방도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각 군문으로 하여금 수원의 새 고을 부근에 둔전을 설치하여 군병들이 농사를 짓게 하고 군문에서 그 세를 징수하도록 하면 새 고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강유의 이 상소는 수원 화성 축조와 새로운 고을의 건설, 아울러 독산성을 화성 방어의 핵심적인 거점으로 언급한 주장으로 이후 정조대 화성 축조 논의 및 건설과 관련하여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듬해인 1791년(정조 15) 공조참의에 임명되고 이후 한성판윤,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등으로 승진하였다. 1798년 정월에는 70세가 넘었으므로 자헌대부로 한 품계를 올려주고 기로사(耆老社)에 들어갔다가 얼마되지 않아 서거하였다. 1871년(고종 8) 3월 효헌으로 시호를 추증하였다(慈惠愛親曰孝行善可紀曰憲). 저서로는 『남곡유고(南谷遺稿)』가 있다.



독산성 관리 인물

1 황경원(黃景源, 1709~1787)

본관은 장수(長水). 자는 대경(大卿), 호는 강한유로(江漢遺老). 황휘(黃暉)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호조정랑 황처신(黃處信)이고, 아버지는 통덕랑(通德郎) 황기(黃璣)이며, 어머니는 권취(權取)의 딸이다. 이재(李穡)의 문인이다.

1727년(영조 3) 19세에 정미(丁未) 증광 생원시에 2등(二等) 25위로 합격하였다. 그 뒤 의금부 도사를 지내다가 1740년(영조 16) 경신 증광시 문과에 병과 29위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들어 갔다. 이어 예문관 검열, 병조 좌랑을 거쳐, 홍문관 응교로 있을 때에는 명나라 의종(毅宗)의 추사(追祀)를 건의하여 실시하게 하였다.

이어서 대사성, 대사간, 대사헌 겸 양관제학(兩館提學) 등의 대표적인 청화직(淸華職)을 거쳐, 1761년 이조참판에 이르렀으나, 고서(姑壻) 이정(李迥)의 상언사건(上言事件)에 연좌되어 거제도로 유배되



황경원 초상화

었다. 이듬해 합천으로 이배되었다가 고향으로 방환(放還)되고, 이듬해에는 풍천 부사로 복직되었다. 이후 영조대까지 호조참판, 홍문관 제학, 이조 참판 겸 대제학, 그리고 형조 예조 공조의 판서 등으로 활약하였다.

서예에도 뛰어났으며, 예학(禮學)에 정통하고 고문(古文)에도 밝아, 오원(吳瑗) 이천보(李天輔) 남유용(南有容) 등이 그를 따르지 못했다고 한다. 항상 춘추대의(春秋大義)로 자임하여 1418년(태종 18)부터 1645년(인조 23)까지의 명의 역사를 담은 『남명서(南明書)』를 편찬하였다. 또 명나라 의종 이래로 명나라에 대한 절의를 지킨 조선 사람들의 전기(傳記)인 『명조배신전(明朝陪臣傳)』을 저술하였다. 문집으로 『강한집』 32권 15책이 있다.

2 조발(趙撥, ?~?)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양주(楊州). 부는 조인수(趙仁秀)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인 1591년(선조 24) 신묘(辛卯) 별시(別試) 병과(丙科)에 급제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후 우후(虞候), 함평 현감 등을 거쳐 수원 판관으로 임명되고 아울러 독성의 방어를 담당하는 독성장으로 임명되었다. 1595년(선조 28) 정월 하순 함평군수로 있을 당시 그의 사람됨이 조망(躁妄)하여 자목(字牧)의 일은 보살피지 않고 날마다 침탈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사간원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선조실록』 선조 28년 을미 1월 己亥). 그러나 이듬해인 1596년 4월 경기도의 좌우 방어사 후보로서 독성장인 조발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영장(營將)으로서 독성의 방어를 담당하는 독성장(禿城將)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순신의 『난중일기』에 따르면 조발과 이순신은 여러 차례 만나는 기록이 나오는데, 1595년 중순 함평현감에서 파직되어 복귀하는 조발을 이순신이 만나 위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이순신이 1597년(선조 30) 정유년 4월 4일 백의종군을 위해 전라도에 있던 도원수 권율의 막하로 가기 위해 내려가다가 수원 남쪽의 독성(禿城) 아래에 이르니 독성 판관(禿城判官) 조발이 술을 갖추어 막을 치고서 그를 위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독성장은 독성판관으로 불리웠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해 7월 초 사간원에서 조발이 수원 판관으로 애초 독성(禿城)의 수장(守將)으로 수원 판관을 겸직토록 하였으나 도입한 후에 혼미하여 직무를 살피지 못하고 하리(下吏)에게 위임함에 따라 백성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파직을 건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선조실록』 권90, 선조 30년 7월 戊戌), 조발은 당시 독성의 방어책임자인 독성장으로서 수원 판관을 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유재란의 발발로 일본군이 크게 세력을 떨치며 1597년(선조 30) 8월 중순의 남원성 전투에서 양호(楊鎬)의 명군이 패배하자 류성룡은 경기 우방어사 유림에게 무한산성을, 별장(別將) 조발에게 독성을, 그리고 좌방어사 변응성에게는 여주의 파사성(婆娑城)을 지키도록 하였다.(『서애집』 연보 제2권, 연보, 만력 25년 정유 8월) 이처럼 독성은 파사성 등과 함께 경기 남부 방어와 도성 외곽 방어의 가장 중요한 요충으로 도성 및 경기 일대를 안정시키고 일본군의 북상을 저지하였다는 점에서 독성 방어를 책임진 조발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9월 초 북상하던 일본군 선발대가 직산에서 명군의 공격으로 패배하고 철수한 직후 조발은 수원 부사에 임명되어 부임(赴任)하여 그해 12월에 교체되었다.(『수원부사선생안(水原府使先生案)』(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57-가456]))

수원 부사에서 체차되었지만 독성(禿城)을 처음 조처할 때부터 그 일을 전적으로

관장하였고, 전에 수원 판관이 체차된 뒤에도 그대로 수성장(守城將)으로서 조방장(助防將)의 직임을 겸대하여 그 전말을 자세히 알고 있으므로 그전처럼 수성장을 삼고 조방장의 직임을 겸대시켜 독성의 방어와 관리를 맡기도록 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 건주여진이 두만강 이북의 여진족을 공격하는 등 그 동향이 매우 심각해지자 1603년(선조 36) 8월 말 조발은 함경도 갑산 부사로 임명되었으나 그해 연말 사헌부의 탄핵으로 갑산부사에서 파직되었다.

갑산부사에서 파직된 이후 특별한 관직을 맡지는 않았으나 1618년(광해군 10) 정월 인목대비(仁穆大妃, 1584~1632)의 폐비(廢妃)와 관련한 정청(庭請)에 참여한 780여 명의 인물 중 한 명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이후 행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서거하거나 관인 등의 활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최두명(崔斗明, ?~?)

조선후기의 무신.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여경(汝慶).

무과 급제 이후 1686년(숙종 12) 5월 무겸선전관(武兼宣傳官)에 제수된 이후 1687년 독성별장, 1693년 문경 현감, 1698년 부사과(副司果), 1702년 부사맹(副司猛), 1704년 고군산참사(古群山僉使)을 거쳐 1710년 가선대부로 승급되었다. 1710년 미조항 첨사(彌助項僉使), 1729년 전라좌수영(全羅左水營)의 우후(虞候) 등 내외의 주요 무관직을 거쳤다.

4 김후(金煥, 1751~1805)

조선후기의 무관. 본관은 해풍(海豐), 자는 광중(光仲). 증 호조참판 김상걸(金相傑)의 아들

1771년(영조47) 종시 무과에 급제하여 이듬해 부사정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1773년 비변사 무낭청(武郎廳)으로 재직 중 영조의 인정을 받아 6품으로 특별 승급되었고 이듬해에는 오위도총부 도사(都事)가 되었다. 이후 선전관, 훈련원 판관, 훈련도감 파총, 진주 영장, 오위장, 다대포 첨사 등 내외의 무관직을 두루 지냈다.

1790년 강화 중군을 시작으로 수원 중군, 1791년에는 독산산성의 중군 등 경기도의 여러 무관직을 거쳐 1793년에는 경기 중군이 되었다. 김후는 경기 중군 당시 정조대 수원 화성을 축성하는 초기부터 적극 참여하였다. 김후는 화성 축조에 별감동(別監董)으로 참여하여 886일을 근무하면서 준천(濬川) 공사를 비롯하여 화홍문, 방화수류정, 동북성, 동장대 등의 건설을 맡았다. 1794년(정조18)에는 독성 중군(禿城中軍)에 임명되었고, 이듬해인 1795년 2월에는 화성 축조에서 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라도 병마절도사로 승진되었다. 1798년에는 황해도 병마절도사로 임명되었다. 정조대 이후 내금위장을 지냈다가 1805년 55세로 죽었다.



김후 반신상 영정

위의 그림은 오사모(烏紗帽)에 남색 단령(團領)을 입은 김후의 반신상 영정이다. 이 영정은 화성 성역을 모두 마친 뒤인 1796년(정조20)에 정조가 김후에게 상으로 숙마(熟馬) 1필을 하사하였는데, 아마 이때를 기념하여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5 이문철(李文喆, 1736~?)

조선 후기의 무신.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거주지는 한양이다. 부친은 이석희(李錫禧).

1784년(정조 8) 정시 무과에서 병과 320위로 급제하였고, 관직은 김해부사(金海府使)·경상우도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 수원 중군(水原中軍), 어영대장(御營大將) 등을 역임하였다. 1794년(정조 18) 김해부사 재임 시절에 김해 고을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한 국가의 돈과 곡식 등을 고을 백성에게 대여해주어 이자를 받았고, 고을 백성의 진흥을 위해 내려준 돈과 부역 가운데 쓰고 남은 3,940냥을 제 멋대로 처분하여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등의 행실이 조정에 알려져 평안도 선천부(宣川府)로 유배되었다. 이후 1802년(순조 2) 유배에서 풀려나 7월 15일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에 제수되었다. 1804년 4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에서 과체(瓜遞: 임기를 채우고 교체)되었다

1807년(순조 7) 수원 중군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독산성이 성루와 담장 등이 허술해져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녹봉을 내어 우선 성첩(城堞)을 수리하고 망가진 군기(軍器)를 수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행실이 눈에 거슬렸던 어영대장(御營大將) 이득제(李得濟)는 이문철(李文喆)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일을 두고 장령(掌令) 이약수(李若洙)는 이문철을 수원중군으로 추천한 것은 병조판서(兵曹判書) 한만유(韓晩裕)인데 지금 이득제가 이문철을 차임할 것을 청하는 것은 바로 병조판서 한만유를 비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무관이 병조판서를 논척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삭직시켜줄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이조판서 이시원(李時源)의 체직도 함께 요청한 상소의 내용이 임금의 노여움을 사 이약수는 체직되었고, 병조판서 한만유를 비판하였던 이득제는 삭직되었다.

6 박기수(朴綺壽, 1774~1845)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봉래(鳳來), 호는 이탄재(履坦齋). 할아버지는 형조판서 박준원(朴準源), 아버지는 호조판서 박종보(朴宗輔)이며, 어머니는 군수 이술모(李述模)의 딸이다. 이조판서 박종경(朴宗慶)에게 입양되었다.

1795(정조 19) 을묘(乙卯) 식년 진사시에 3등으로 급제하고, 1806년(순조 6) 병인(丙寅) 별시 문과의 을과(乙科) 1위로 급제하였다. 이후 홍문관 부교리, 수찬, 동래부사 등을 지내고 성균관대사성으로 초배되고 부제학을 거쳐 전라도관찰사, 첨지중추부사, 사간원대사간을 하는데, 대사간으로 있다가 이조참판, 사헌부대사헌에 이어 대사헌, 형조판서, 한성부판윤, 공조판서를 거쳐 우부빈객에 의정부 우참찬을 역임하였다. 이후 사헌부 대사헌을 거쳐 광주유수 등을 거쳐 판돈녕부사에 이르렀다. 판의금부사로 있을 때 간신 김필(金弼)의 배소를 가까운 곳에 정할 것을 건의하였다가 파직되었다. 말년인 1847년에 병조판서로 다시 기용되었다.

1830년(순조 30) 익종(翼宗)의 빈궁(殯宮)에 불이 났을 때 단신으로 불 속에 뛰어 들어 진화하였으므로 충성심을 인정받았고 이듬해 수원 유수로 제수되었다. 1831년에 수원 중군(中軍) 김상순(金相順)으로 하여금 독산성의 무너진 곳을 수리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유수 재직 중 『화성지華城誌』를 편찬하여 독산성의 현황 및 유래 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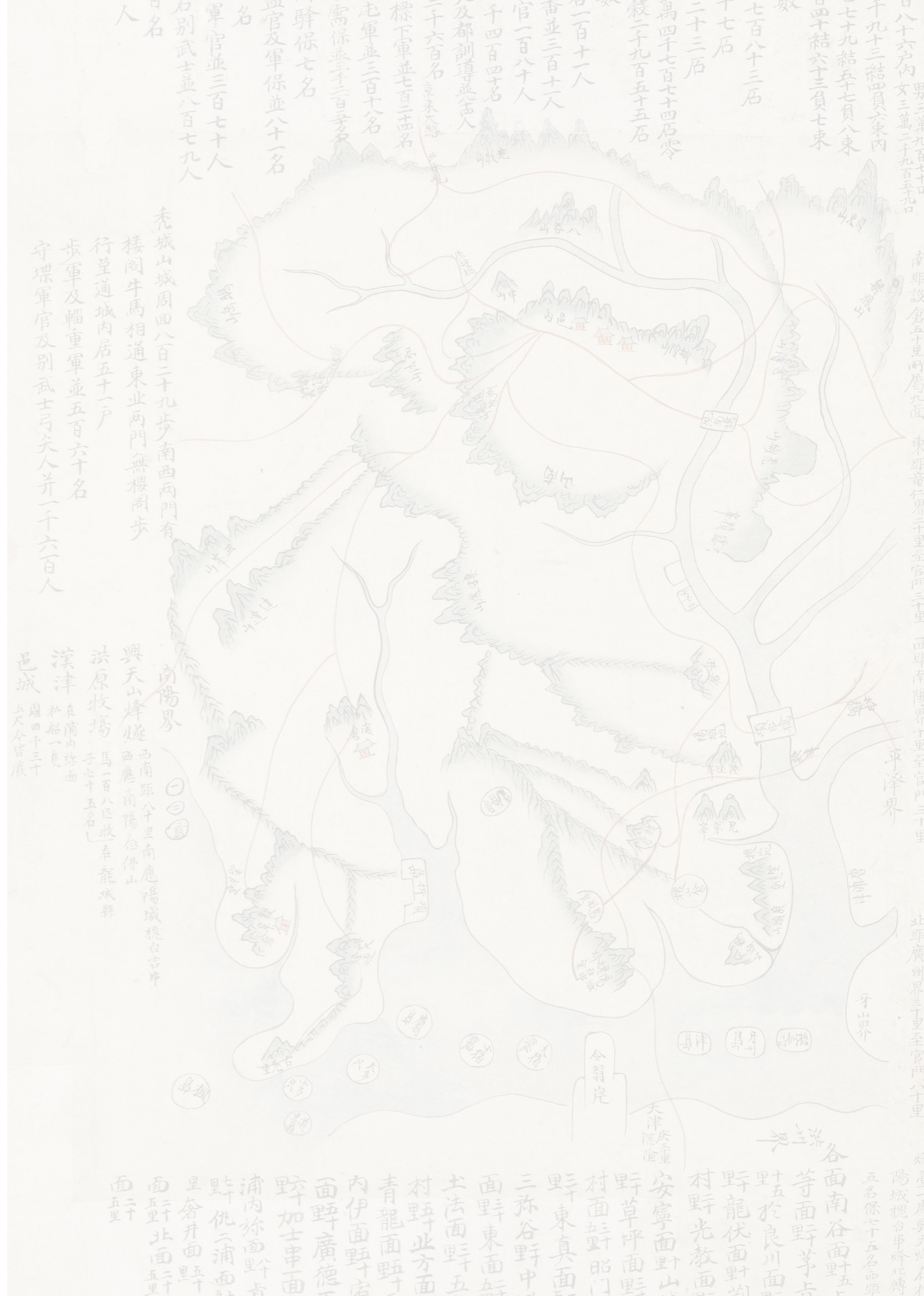
7 이여염(李汝恬, 1561~?)

조선중기의 무관. 본관은 인천, 자(字)는 언정(彦靖). 아버지는 마량첨절제사 등을 지낸 이대(李岱)이다.

24세 때인 1584(선조 17) 갑신(甲申) 별시(別試) 무과 을과(乙科) 6위로 급제하였다. 무과 급제 이후 여러 무관직을 거쳐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1592년 초 경상우수사 휘하의 사랑포 만호로서 이순신 함대와와의 각종 해전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난중일기』에도 이여염이 여러 차례 이순신과 만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여념은 이후 독성(禿城)의 수성장(守城將)으로 임명되었으나 1599년 윤4월 아병(牙兵)을 찾는다는 핑계로 민간에 폐를 끼쳤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1602년 가덕 첨사(加德僉使)로 임명되었다. 인조반정 직후의 역모사건과 관련하여 1623년 10월 하순 잡혀 와서 고초를 겪었다.

임진왜란 이후 선무원종공신 1등으로 녹훈되었다.



2

李昰祚의 수원 화성 운영론과 둔전 경영

1. 머리말 · 63

2. 이석조의 저술과 『반계수록』 · 69

1. 이석조의 생애와 가문
2. 『집설(輯說)』의 구성과 『반계수록』의 영향

3. 화성 둔전의 정비와 병농일치론 · 89

1. 화성의 조성과 경제적 기반 구축
2. 수리시설과 둔전의 정비

4. 맺음말 · 103

이왕무 | 경기대학교 교수

머리말

수원 화성은 조선 왕조의 역사적 용어이다. 수원은 행정적, 화성은 군사적 성격을 내포하는 용어로 정리되고 있다. 조선 후기 탕평시대의 국왕 정조가 기획하고 채제공(蔡濟恭)이 총괄하였으며 조심태(趙心泰)가 실무를 담당한 수원 화성의 조성은 왕조의 중흥기를 보여주었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기억된다.¹⁾ 대한민국에서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는 역사적 상징물이 된 것은 당대부터 예견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왕조 국가가 한양 도성 인근에 왕실의 능원(陵園)을 새롭게 조성하고 그 관리를 위한 행궁(行宮)과 성곽을 영건(營建)하면서, 행정 소재지의 재구성은 물론 거주민의 모집과 주거까지 새로 진행한 수원 신도시의 탄생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왕조시대는 물론 오늘날에도 예사롭지 않는 신도시의 건설인 것이다.

무엇보다 수원 화성은 서사적인 문학이 시설과 공간마다 잠재되어 있다. 정조의 부친인 사도세자, 즉 장조의 용릉[현릉원]에서부터 을묘년 회합연이 거행되었던 화성 행궁의 봉수당에 이르기까지 왕실 가족사가 장엄하게 전개된다. 국왕의 ‘효(孝)’를 상징하는 도시, 부모의 한을 설원한 자식의 효심이 발현된 건축물, 왕조 최고의 군사 기술이 접목된 성곽 등이 일체되어 수원 화성의 이미지를 역사화 시키고 있다. 공심돈(空心墩)을 보면 돈대(墩臺)라기보다는 타워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이국적인 모습을 보인다. 화성 성곽은 동서양의 성곽 축조 기술이 집적되어 있는 군사 시설로, 삼남에서 도성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우뚝 솟아있는 기념비적인 아우라를 연출한다. 화성의 주변에는 국왕이 직접 기획한 거주민과 주둔군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둔전과 저수지, 도성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 등이 구비되어 있다.

수원 지역의 화성과 현릉원 등의 인근에는 정조의 심증이 가미된 시설들이 배치되어 정조문화권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실제로 ‘정조문화권’은 현릉원 조성 및 수원 화성의 영건에서부터 유래된다. 1789년(정조 13) 정조가 생부인 사도세자의 영우원(永祐園)을 수원의 행정소재지로 천봉(遷奉)하였고, 1793년(정조 17) 화성유수부로 승격시키면서 장용영 외영(壯勇營 外營)을 설치하였으며, 1796년 새로운 행정소재지에 화성을 영건하게 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구역이다. 정조문화권은 한양 도성에 필적하는 위상을 지닌 신도시였다. 정조가 순조에게 보위를 전위한 뒤 상왕(上王)으로써 화성에 주재하며 양경(兩京) 체제를 기도한 것이라는 분석에서도 주목되었다. 수원 읍치의 이전에서부터 화성 조성이라는 지역적 변화에서도 주목된 부분이다.²⁾

1) 『화성성역의궤』 권수(卷首), 좌목(座目).

2) 유봉학, 「正祖代 政局 동향과 華城城役의 추이」, 『규장각』 19, 1996; 정해득, 「正祖代 水原移邑과 以後의 변화 양상 : 수원지역 '邑誌'를 중심으로」, 『경기사학』 3, 1999; 유봉학, 『정조시대 화성 신도시의 건설』 백산서당, 2001.

이처럼 조선 후기 성곽의 백미라고도 할 화성 조성에는 문무 관료가 대거 참여한 국가적 프로젝트였다. 화성 성역의 최고책임자는 문신인 채제공, 실무책임자인 감동당상(監董堂上) 조신태와 도청(都廳) 이유경(李儒敬)은 무신이었다.³⁾ 당대 최고의 문무 관료들이 집결하여 국왕의 지휘 하에 진행한 것이다. 왕실의 능원 및 행궁, 수도권의 관방 시설이 문무 관료의 합심으로 조성된 것이다. 이로 인해 수원 화성은 정조가 개혁을 유지하려고 한 기획 도시이면서 금성탕지(金城湯池)의 최고(最高) 관방인 군사도시로 말해지기도 한다.⁴⁾

그런데 수원 화성의 조성에 관여한 인물들의 연구는 일찍부터 조명되어 상당한 실적을 축적했음에도 여전히 미진한 분야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수원 지역 인물에 대한 연구 범위가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그 이외의 시기와 주제는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진행되었다. 다만 ‘정조문화권’에 관련된 인물들은 상당한 연구 진척을 보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채제공과 조신태이다. 정조대의 대표적인 문무 관료이면서 수원 화성의 조성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주목된 결과이다.⁵⁾ 그 외의 인물들은 다소 미진하다. 예컨대, 성역 의궤와 원행 의궤 등에 기재된 인물들의 연구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해당 인물의 직접적 자료가 현전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점이다.

이런 배경에서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인물이 흙안당(欽安堂) 이석조(李奭祚)이다. 그는 수원 화성의 조성이 진행되던 시기에 지역에 거주한 것은 물론 수원의 세거 집안 출신의 사대부였다. 그가 정조에게 올린 서책으로 인해 관련 연구가 상당히 진척된 인물이다.⁶⁾ 다만 그에 대한 연구가 기존 학계의 실학이라는 연구 경향과 노론계 학자라는 범주에서 진행되어 조선 후기 사회를 관통하던 유교적 이상사회의 구현이라는 사상적 맥락에서 분석하지 못한 것이 미진한 부분이다. 탕평 정국에서의 국왕과 신료의 활동, 실학자들의 개혁안에 연계된 지역 개편안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런데 이석조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반계 유형원은 공적 원리를 바탕으로 균산

적(均産的) 재분배와 사회의 도덕적 통합을 위한 가장 상위의 주체로 국가를 상정했다.⁷⁾ 유형원이 정전제(井田制)의 취지를 현실에 적용시켜 창안한 공전제를 바탕으로 개혁의 토대를 삼고자 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인간이 정주하는 것이 일정하지 않은 반면 토지는 일정한 곳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창안하여, 토지의 안정적인 운영 여하가 개혁의 핵심으로 생각했다. 특히 주자의 주정론(主靜論)이 유형원 전제 구상의 주요 원칙인 것이 중요하다. 토지라고 보는 정(靜)으로 인간인 동(動)을 제어한다는 개념이다.⁸⁾

필자가 이석조의 논설에 주목하게 된 것은 ‘정조문화권’ 조성에 관련된 인물의 연구라는 점과 함께, 정조의 화성 조성이 ‘실학’의 한 단면이라고 주장되면서 사회발전 단계론의 한 사례로 언급되는 견해를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정조의 치세가 영조의 탕평을 계승하며 민생의 안정을 위해 신해통공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개혁적’인 면모로 해석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정조가 지향한 국정의 과제가 부국강병 내지는 ‘계몽’ 정치라는 형태로 해석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선의 국왕들이 왕조를 계승하면서 종묘의 제사와 왕실의 안녕을 제일 과제로 하는 것과 동시에 유교적 이상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기본 과제였다. 조선 왕조가 유교를 국시로 삼으면서 농업을 경제의 기본 구조로 운용하던 국가였으므로, 그것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지향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다소 확대된 해석일 수도 있겠으나, 토지 소유 및 운용에 대한 제도 논의, 군역 부담의 편중 완화 및 조세화, 대동법 시행을 위한 100여년 이상의 논란 등은 국가 재정의 안정화라는 현실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임에는 분명하지만, 보다 큰 그림은 왕조가 지향할 사회에 대한 국왕 및 사대부 관료들의 고심이라고 해석할 부분이다. 이석조가 정전제를 왕도 실행의 으뜸으로 삼은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다.⁹⁾

특히 당시의 정국 운영 주체들인 당색을 놓고, 이석조가 유형원의 영향을 받았다고 표현하면서 남인의 연구를 노론 계통이 활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다. 당색(黨色)이 격렬하게 충돌하던 시기에 송시열계의 문인이 남인의 대표적 지식인의 견식을 용인한다는 구도가 어색하다. 또한 『반계수록』의 간행이 1770년(영조 46)이므로 두 사람의 생존 시대를 비교하여 학식의 연계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이다. 오히려 정조재위 전후에 걸쳐 유형원의 견식이 수원 지역 사대부들에게 일반화되었

3) 화성시사편찬위원회, 『화성시사-지방세력의 형성과 지방사회』 2020, 72~73쪽.

4) 김준혁, 「정조시대 장용영외영의 병농일치 군제개혁 구상과 둔전경영」, 『한국사연구』 168, 2015, 101~102쪽.

5) 조성산, 「樊巖 蔡濟恭(1720 1799)의 先代家系와 學問淵源」, 『한국인물사연구』 6, 2006; 김선희, 「華城留守 趙心泰 연구-수원 이음과 화성 건설에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50, 2009; 수원화성박물관, 『번암 채제공의 생애와 활동』 2013; 김준혁, 「번암 채제공의 화성신도시기반조성과 화성 축성」, 『중앙사론』 38, 2013; 김문식, 『정조시대 명재상 번암 채제공』 수원화성박물관, 2016; 최성환, 「영·정조대 채제공의 정치 생애와 정치 의리」, 『한국실학연구』 33, 2017.

6) 황미숙, 「18세기 말 수원 사대부 李奭祚의 華城 진흥책」, 『역사민속학』 49, 2015; 황미숙, 「수원 사대부 李奭祚 『집설』의 均田論」, 『역사민속학』 50, 2016; 황미숙, 『18세기 수원 사대부 이석조의 시무론 연구 : 『집설』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황미숙, 「18세기말 수원지역 老論系 李奭祚의 經世論 고찰」, 『중앙사론』 51, 2020.

7)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국가재정 개혁구상과 녹봉제 실시론」, 『한국실학연구』 36, 2018, 489쪽.

8) 『반계수록』 권6, 전제고설하(田制攷說下), 후위북제수당전제(後魏北齊隋唐田制);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지방제도 개혁론」, 『한국실학연구』 27, 2014, 17~18쪽.

9)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輯說)』 1, 2013, 63쪽.

다고 보는 것이 순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17세기 이래로 국가 개조에 준하는 개혁안은 당색보다 그 개념 및 구조의 연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수용의 여부를 결정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백겸(韓百謙)이 기자정전설(箕子井田說)을 서술한 것을 기점으로 정전제의 순기능을 관료는 물론 재야의 지식인들도 논했으며, 19세기에 이르러서도 주장했다.¹⁰⁾ 이석조도 정전제의 이용이 국가 통치의 근본이라고 주장했다.¹¹⁾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수원 화성의 조성은 정조의 ‘왕권강화’라는 표면적 차원의 해설보다는 왕조가 지향하던 이상사회의 실현이라는 내면적 차원이라는 이중의 동심원적 해석이 필요하다. 영조대 유형원이 『반계수록』에서 주장한 정전제 개념이 관료 및 사대부들의 논의만이 아닌 정조에 의해 수원 화성에 실현되었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석조와 같은 수원의 문신들이 유형원의 정전제 개념을 이해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조가 제왕의 통치 철학을 재현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의중을 간파해 토목 공사를 대대적으로 진행시킨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정조도 유형원이 『반계수록』에서 수원 지역의 개혁안을 제시한 것을 주목하였다. “유형원의 『반계수록보유(礮溪隨錄補遺)』에 수원의 읍치(邑治)를 북평(北坪)으로 옮기고 성지(城池)를 건축해야 한다는 논설이 있다. 100년 전에 마치 오늘의 이 역사를 본 것처럼 미리 이런 논설을 한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라고 하였으며, “대체로 그는 유용한 학문으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저작을 남겼다. 기이하다. 그가 수원의 형편을 논함에 있어서 읍치를 옮기는 계획과 축성하는 방략은 100년 전에 살았으면서도 오늘날의 일을 환히 알았던 것이고, 면(面)을 합치고 정번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부절(符節)처럼 착착 들어맞는다.”라며 화성 축성과 신읍치 조성이 국왕의 사적인 결정이 아님을 주장하였다.¹²⁾

이석조와 유형원의 생애 사이에는 1세기 이상의 시간차가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정전제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의 정비를 강조하였다. 인민의 거주와 조세의 부과를 위한 행정제도의 구비를 정전제의 정비에서 시작하자고 했다. 정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사민들이 각자의 거주지에 배치되고, 정부에서는 정전제로 구획된 토지와 인호들을 대비하여 체계를 정비하자고 했다. 특히 지역마다 사직과 학교를 두면서 매달 「백록동규(白鹿洞規)」를 강독하게 해서 경전 공부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주자가 백

10) 『경세유표』 권6 지관수제(地官修制), 전제고(田制考) 6, 방전의(邦田議).

11)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 1, 2013, 39쪽.

12) 『정조실록』 권38, 정조 17년(1793), 12월 8일(정묘); 『일성록』 정조 17년, 12월 10일(기사).

록동서원을 복구한 취지 및 학생들을 교육하던 규약을 강조한 것이다.¹³⁾

이런 배경에서 이석조 연구는 인물사와 지역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조대 수원 화성이 등장하게 되는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종래 실학 정신의 구현 내지는 상업 진흥책의 하나로 평가하던 국면에서 다소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소 인물 연구의 초점에서 확대되는 양상도 서술하였지만, 그것은 수원 화성이 지니는 역사성을 찾기 위한 방편이라고 제시하고자한다.

13)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 1, 2013, 163~168쪽.

이석조의 저술과 『반계수록』

1 이석조의 생애와 가문

1795년(정조 19) 공조 참판 이석조가 정조를 알현한 자리에서, 고향이면서 세거지인 수원 화성(華城)에 대해 설명하였다. 수원은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곳으로 익숙하다면서 지리적 형세와 성격, 대책을 제언하였다. 수원이 삼남의 길목에 자리 잡고 경도(京都)를 방어하는 곳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도호부로 삼던 요지인데, 현릉원을 조성해서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고 했다. 또한 성지(城池)를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민호를 모집하였고 급복(給復)하고 관둔(官屯)을 두었으니, 상업을 활성화 할 단계라고 보았다. 화성부에서 통하는 길인 호남과 호서의 우도(右道)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화물(貨物)이 유통되지 않아서 상업이 병들었으므로 대추현(大鼓峴) 길을 폐쇄하여 그곳으로 다니지 못하게 하고 소추현(小鼓峴) 길을 넓히고 개통시켜서 곧바로 화성을 통하여 한양에 도달하게 한다면 우회하는 것은 20리에 불과하지만 삼남의 토산물이 이를 통해 오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¹⁴⁾ 당시 화성이 축조되는 과정에 지역 활성화의 상황과 대책을 현장에서 평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정조의 화성 영건(營建)에서 이석조와 같이 수원 지역의 변모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석조는 수원의 세거 인물로 본관이 여주이며, 정조대 등과한 문신이다. 그의 자는 성여(聖汝)이며 호는 소와(笑窩) 혹은 흠안당(欽安堂)이다. 증조부는 사우당(四友堂) 이동형(李東亨), 조부는 벽담(碧潭) 이응(李膺), 부친은 광산(光山) 이수룡(李壽龍)이며 모친은 진주 강씨 강제부(姜濟溥)의 딸이다. 그는 1713년(숙종 39)에 출생했으며, 묘소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소재한다. 이석조의 선계가 수원에 정착한 것은 고려 말기 두문동 72현의 한명인 이고(李臯)¹⁵⁾가 세거한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고는 1374년(공민왕 23)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학사 집현전직제학을 지냈다. 이고는 사직하고 수원의 광고 남탑산(光敎 南塔山)에 거주하였다. 1392년 조선 건국 후 등용하고자 하였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 태조가 화공에게 이고가 거처하는 곳을 그리게 하고 그곳을 팔달산(八達山)이라고 하였다. 세종 때에 석비를 그 마을 입구에 세워 ‘고려효자 한림학사 이고(高麗孝子翰林學士李臯)의 비’라고 하였다.¹⁶⁾

14) 『일성록』 정조 19년, 6월 1일(경진).

1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603, 『청선고(淸選考)』.

16)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고(李臯).

<가계도>

<행력>

순번	왕력		서기	간지	연령	기사
1	숙종	39	1713		1	수원 세거지에서 출생
2	숙종	43	1717		5	증조부 이동형 사망
3	영조	9	1733		21	외조부 강제부 사망
4	영조	16	1740		28	아들 이운섭 출생
5	영조	17	1741		29	장인 채지홍 사망
6	영조	18	1742		30	조부 이응 사망
7	영조	21	1745		33	부인 채씨 사망
8	영조	26	1750		38	부친 이수룡 사망
9	영조	40	1764		52	손자 이조신 출생
10	정조	16	1792		80	별시 응제 장원
11	정조	17	1793		81	아들 이운섭 사망, 증손 이용규 출생
12	정조	18	1794		82	사간원 정언, 공조 참의
13	정조	19	1795		83	집설 진어, 지중추부사, 공조참판, 오위도총관
14	정조	20	1796		84	수원 세거지에서 사망
15	고종	13	1876			시호 경헌

증조부 이동형은 송시열의 문하로 숙종대 한국에서 노론의 편을 들었으며, 수원 광고에 입거하였다. 조부 이응은 수원 출신이며 박세채, 권상하, 김창협 등과 관계하였다. 부친 이수룡은 수원에서 태어나 3남 5녀를 두었다. 저서로는 『집설(輯說)』 4책, 『가범(家範)』, 『소와문집(笑窩文集)』, 『무극옹전(無極翁傳)』, 『흠안당유고(欽安堂遺稿)』 등이 있다.¹⁷⁾ 이석조는 1876년에 증시(贈諡)되었다.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의 지위로 경헌(景憲)이라는 시호를 받았다.¹⁸⁾ 이석조의 스승은 삼환재(三患齋) 채지홍(蔡之洪, 1683~1741)이다. 채지홍은 그의 처부(妻父)로서 권상하(權尙夏)를 사사(師事)한 호서의 산림(山林)이었다. 영조대 산림의 예로 천거(薦擧)되어 경연관(經筵官), 부여현감(扶餘縣監)에 제수되었다. 채지홍은 부여현감에 제수되어 영조를 숙배할 때 “학문의 요체와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의 길은 ‘성의 정심(誠意

17)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 2, 2015, 12~13쪽.

18) 『비변사등록』 257책, 고종 13년(1876) 11월 26일. 경헌은 의리를 베풀고 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경(景)’이라 하고, 선행에 상을 주고 악행에 벌을 주는 것을 ‘헌(憲)’이라 한다. 효목(孝穆) 자애롭고 은혜로우며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을 ‘효(孝)’라 하고, 덕행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것을 ‘목(穆)’이라 한다. 장헌(章憲) 공경하고 신중하며 고명(高明)한 것을 ‘장(章)’이라 하고, 선행에 상주고 악행에 벌을 주는 것을 ‘헌(憲)’이라 한다.

正心)’ 네 글자에서 벗어나지”않는다는 간언과 1721년(영조1)경의 신임사화(辛壬士禍)로 실각한 권상하 등을 특별히 복관(復官) 증시(贈諡)한 것을 흠앙(欽仰)하였다. 또한 숙종대 한국 상황의 송시열을 옹호하면서 윤증 및 윤휴, 윤선거 등을 공박하는 노론 위주의 당색을 보인 인물이다.¹⁹⁾

이석조는 노론의 영수였던 도암(陶菴) 이재(李紱) 및 여호(黎浩) 박필주(朴弼周) 등과 교류했다. 박필주는 이석조의 고모부 박필균(朴弼均)의 아들 박사근(朴師近)을 양자로 삼았다. 박필균의 친형 박필린의 아들 박사의(朴師義)는 이석조와 동서지간이다. 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가 이석조의 시장(諡狀)을 찬한 것은 이러한 인척 관계 때문이다.²⁰⁾

이석조는 80세의 나이로 유생응제(儒生應製)를 통해 과거에 급제하였다. 유생응제는 詩 賦 表 頌 銘 등이 출제되며, 시제는 국왕이 정하거나 대제학이 윤험을 받아 게시했다. 응제에 입격한 유생 중 장원에게는 직부전시의 자격을 주었다. 수원은 고종대까지 91명의 문과 과거급제자를 배출하여, 이석조의 급제는 그의 학문 수준을 말해준다.²¹⁾ 응제는 국왕이 관료와 유생들의 학업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글제를 내려 문장을 짓게 하는 것이다. 과거와는 별도로 시행하던 행사였다. 수원에서는 1790년(정조14)부터 1795년까지 지속적으로 응제를 시행하였다. 이석조는 1792년(정조 16) 정조가 직접 수원 유생들의 응제 시권(應製詩券)에 점수를 매기면서 삼상(三上)의 등급으로 장원에 선정되었다. 당시 정조는 이석조의 시권을 장원으로 선정하며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전략)오늘 시권에 점수를 매기고서 이름을 뜯어 보았더니 바로 나이 80의 늙은 유학 이석조였다. 그래서 그를 장원으로 선발하였으니 내년 봄 행행(幸行) 때에는 전시(殿試)에 입격한 규례에 따라 대(臺) 위에 따로 앉아서 지어 올리게 하고 맨 먼저 회시(會試)에 바로 응시하게 하라.(후략)²²⁾

정조는 수원의 유생 시취에서 삼상을 맞은 유학 이석조에게 회시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준 것이다. 1793년에 정조가 현릉원에 원행시 화성에서 거행한 응제 유생 시

19) 『영조실록』 권54, 영조 17년(1741) 10월 30일(신유); 『승정원일기』 613책, 영조 2년(1726) 3월 16일(무신); 『승정원일기』 639책, 영조 3년 5월 20일(을해); 『미호집』 권19, 행장(行狀), 삼환재 채공행장(三患齋蔡公行狀).

20) 황미숙, 「18세기 말 수원 사대부 李奭祚의 華城 진흥책」, 『역사민속학』 49, 2015, 241쪽.

2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이석조.

22) 『정조실록』 권36, 정조 16년(1792) 12월 13일(정축); 『일성록』 정조 16년 12월 13일(정축).

험에도 입격하여 직부전시(直赴殿試)되었다.²³⁾ 1794년(정조 18)에 전례에 따라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에 가자되었고, 문장과 식견이 높다는 이유로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에 제수되었다. 정조가 이석조를 특별히 선발한 내용은 수원 향교에서 알성시에도 고하게 하였다. 1795년 공조참판으로 재직하면서 『집설(輯說)』 내·외편 4책을 정조에게 올렸다.²⁴⁾ 당시 정조가 이석조의 『집설』을 보고난 후 지중추부사에 제수하면서 다음과 같이 비답하였다.

(전략)경이 올린 『집설』 내 외편 4책을 보건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뜻이 바로 성(誠)이라는 하나의 글자에 있었다. 내편의 수기(修己) 치인(治人) 질경(質經) 감사(鑑史)와 외편의 인재(人才) 궁방(宮方) 민산(民產) 군정(軍政) 향제(鄉制) 시조(時措) 풍교(風教) 법도(法度) 모두가 학문과 정치의 요결(要訣)인 동시에 실용적인 내용들이었으니, 그 말을 받아들여 가슴 속에 간직하고 그 실마리를 더 세밀히 뽑아내어 노신(老臣)의 성의에 보답하려 한다. 그런데 인심을 유지시키고 세도를 일으켜 세우는 방도로는 풍속을 돈후하게 하고 윤기(倫紀)를 중하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리고 오상(五常)을 밝히려면 먼저 오품(五品)이 순조롭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오전(五典)을 바르게 하시어 그 오전을 돈독히 하소서.’라고 말했던 것이었다. 이에 내가 초봄에 특별히 한 번 유시하여 향약(鄉約)에 담긴 뜻을 다시 복구하고 선왕의 옛 법도를 밝히려고 하였는데 계속 미루어오다가 오늘에 이르렀다.

내가 속으로 은근히 탄식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온갖 흐름을 막고 거꾸로 흐르는 물을 되돌리려고 아무리 고심해도 정치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10명 중에 8~9명은 그저 말하기를 ‘자신을 반성하여 교화의 근원을 맑게 해서 구하는 것이 제일이다.’고만 할 뿐, 복채를 잡고 복을 치면 곧장 반응이 나오는 것과 같은 말은 하지 않고 있다. 바로 이런 즈음에 경이 상소를 올렸는데 깜짝 놀랄 의견을 보고 깊이 감동되었다.”하고, 특별히 발탁하여 지중추부사를 삼았다.²⁵⁾

정조가 이석조의 저술을 평가하면서 부국강병 혹은 이용후생과 같은 국가의 실무에 대한 방향보다는 왕조 국가의 이상과 지향이라는 유교적 차원의 재단을 내리고 있다. 사회의 개편이거나 개혁이라기보다는 성심(誠心)으로 오상(五常)과 윤기(倫

紀)를 바로 세워 고대의 이상사회를 복구하는 것이 주요 안건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석조의 『집설』이 정조의 의중을 정확하게 조명해주는 것인지는 알 수 없어도, 정조가 수원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집설』에서 대비해 제시하고 있다. 국왕이 수신(修身)에만 치중하길 바라는 세력에 대해 반하는 실천적 행위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이석조의 저술을 통해 확인시키는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조선 왕조의 관료 사회에서 80세의 이석조를 등용하여 친위 세력으로 삼는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원 지역 세거 출신의 저술을 통해 국왕의의지가 ‘사(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왕도사회 구현이라는 ‘공(公)’에서 유래했음을 보여주려고 한 사례라고 해석될 수 있다.

23) 『승정원일기』 1713책, 정조 17년(1793) 1월 13일(정미).

24) 『정조실록』 권39, 정조 18년 1월 6일(갑오); 정조 18년 3월 10일(정유); 『승정원일기』 1727책, 정조 18년 3월 10일(정유);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 1, 18~20쪽.

25) 『정조실록』 권42, 정조 19년 6월 2일(신사).

2 『집설』의 구성과 『반계수록』의 영향

조선왕조의 국가는 토지와 인간에 대한 지배를 바탕으로 막대한 양의 재화를 장악하고 이를 분배하는 강력한 실체로 재정의 편성과 운영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재분배의 구체적인 과정이었다. 유형원은 양란 이후 수조지 분급제의 소멸과 사적 토지소유의 광범위한 전개라는 현실에 즉하여 공전제 실시를 통해 대대적인 재정의 확충과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자 했다.²⁶⁾ 이석조는 『집설』의 편찬 배경에서 유형원(1622~1673)의 『반계수록』을 언급하였다. 『집설』의 시작 부분인 범례의 서두에서 천하를 경영할 만한 내용이면서 취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하였다.²⁷⁾

『집설』과 『반계수록』에서 주장한 정책의 공통점은 정형화된 시스템에서 이윤 추구를 억제하며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세금을 수취하는 방식이다. 국가가 경제 주체가 되고 운영의 중심이 되는 체제이다. 당대의 인식으로 본다면 국가를 공(公)의 개념으로 인식한 것이다. 유형원이 구상한 국가의 중심 이념도 공(公)이었다.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통치 이념과 운영 원리를 가진 국가를 상정했으며, 공의 이념으로 표상되었다. 그에게 공의 이념을 손상시키는 제일의 토지 소유 문제였다. 지주들의 대토지 겸병과 농민의 몰락은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 적 공이 시스템을 부정하는 현상이었다. 사적 토지 소유의 강화를 바탕으로 한 병작 지주제의 전개는 농민의 몰락만이 아니라 국가 재정의 피폐도 야기했다고 보았다.²⁸⁾

유형원은 지주들의 토지 겸병과 농민의 몰락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토지사유의 일반화가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근원이라고 보았다. 이석조도 호민(豪民)들이 토지를 마음대로 취득하는 현실을 비난하였다.²⁹⁾ 유형원은 농민이 지주의 경지를 경작하므로 노동 의욕이 상실되고 생산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하였다. 국왕이 모든 백성을 차별 없이 대해야하는 왕정(王政)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현실이라면서 토지의 사적 소유 확대와 병작제를 부정적 입장으로 보았다. 그가 정의한 정전제는 다음과 같다.³⁰⁾

26)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국가재정 개혁구상과 녹봉제 실시론」, 『한국실학연구』 36, 2018, 450쪽.

27)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 1, 2013, 7쪽.
輯說凡例, 一嘗觀柳馨遠隨錄, 可謂博學通儒有意經綸者, 多有可取之語, 而惜其徒務廣引而殊失會領之要, 雖立綱條而亦欠結實之, 語詳於設弊而畧於掇弊, 志於務本而忽於立本, 識者病之, 茲取平日所講究者, 彙分類附作爲一書, 自以爲有本有末, 脈絡貫通, 無大無小, 條理精詳而亦安知異日不爲識者之病也(후략).

28)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공 이념과 이상국가론」, 『조선시대사학보』 64, 2013, 51~54쪽.

29)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 2, 2015, 39쪽.

30) 『반계수록』 권3, 전제상(田制上), 「분전정세절목(分田定稅節目)」;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公田制論과 그 이념적 지향」, 『민족문화연구』 58, 2013, 451~452쪽.

토지의 경계가 한번 바로 잡히면 만사가 모두 바로 서서 백성은 항구한 생업을 튼튼하게 가지게 된다. 병사를 수괄(搜括)하는 폐단이 없으며, 상하 귀천이 모두 자신의 직분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이 때문에 인심이 안정되고 풍속이 도타워진다.³¹⁾

유형원의 공 인식은 16세기 성리학 경제론의 발전 양상으로도 해석된다. 보편적 원리인 리(理)를 공(公)으로 인식하는 바탕에서 향촌의 재지세력을 국가와 대등하게 보려는 정치 운영론은 17세기 산림의 도학정치관 강조 및 공의(公義) 논쟁을 발생시켰다. 국왕과 관료, 사대부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공의 해석에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공이라는 합의된 인식이 도출되는 과정이었다. 유형원은 17세기에 정리되던 공 개념의 내용적 변화를 체계적 형태로 보여준 것이다. 그는 국가운영이 공을 실현하는 지름길로 보았고, 현실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³²⁾

유형원의 공 인식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시대적 조류로서, 정약용에게도 나타난다. 정약용은 토지제도의 경법(經法)인 정전제가 전토를 일정한 모양으로 구획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정전이란 균(均)을 세우고 도(度)를 내어 여러 토지를 통솔한다고 하면서, 기름진 평지만 정전으로 만들고 그 외는 실제 면적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에서 구획한 정전을 기준으로 그 이외의 토지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였다. 관료였다가 군현에 거주하는 사람이 정전의 관리자로 임명하게 하여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다.³³⁾ 국가에서 토지를 공적 존재로 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또한 유형원은 토지의 소유와 분배가 안정되는 것이 민생의 보장이면서 국가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공전제(公田制)를 제시하였다. 공전제는 토지 사유제를 부정하고 전국의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킨 뒤 공전의 형태로 재분배하여 운영하는 방안으로 정전제의 개념과 유사하다. 유형원은 안정적인 토지 제도의 운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가 재정의 확충, 군사력의 강화, 민생의 안정이라는 효과를 유발한다고 보았다.³⁴⁾

유형원이 정리한 정전제의 개념에서 제안된 공전제 아래에서의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왕조 국가에서 사회적 자원 창출의 기본 수단인 토지의 공공재적 성격을 기도한 것이다. 토지의 소유와 지배방식을 국가의 공적인 통치구조에서 운영한

31) 『반계수록』 권3, 전제상(田制上), 「분전정세절목(分田定稅節目)」.

32)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공 이념과 이상국가론」, 『조선시대사학보』 64, 2013, 55~59쪽.

33) 김문식, 『정약용의 경학과 경제학』 단국대학교출판부, 2021, 424~427쪽.

34)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공 이념과 이상국가론」, 『조선시대사학보』 64, 2013, 67~68쪽.

다는 발상이면서 도덕적 가치로 개혁을 진행한다는 개념이기도 하다.³⁵⁾ 유형원의 시대 이후인 영조대에도 정전제가 무너진 이후로 조세가 문란해지고 잡세가 증가했다고 인식할 정도로 왕조 국가에서의 주요 관심사였다.³⁶⁾

사실 유형원이 염두에 둔 정전제의 모델은 주나라의 철법(徹法)이었다. 은나라의 전자형(田字形) 토지 제도에서 진전된 것이 주나라의 정전제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가 주장한 정전제의 취지는 첫째, 토지를 중심으로 인간을 긴박시켜 병농일치의 이념을 구현하면서 안정적인 국역체제를 운영한다. 둘째, 국가재정의 건실함과 민의 담세 능력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꾀한 1/10세의 실현이다. 셋째,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결부제(結負制)를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묘법(頃畝法)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다.³⁷⁾

이석조도 전제 개혁론으로 왕토사상에 기반 한 정전제의 시행을 주장하였다. 이석조는 정전의 필요성과 시행을 주장하면서 사전(私田)에 한하여 한전(限田)의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특히 그가 거주하던 일용면은 세거지이면서 부세운영을 놓고 지역 공동체 간에 갈등이 있던 곳이다. 이석조의 정전제 개념은 지역 문제를 반영한 현실적 대안이었다.³⁸⁾ 물론 정전이 어려우면 민인들의 상업(常業)을 대대로 안정시키기 위해 한전을 시행하길 원했다.³⁹⁾

유형원의 주장에서 수원 지역과 직결되는 것이 지리적 환경 및 군현제 운영에 따른 축성과 둔전에 대한 논의였다. 그의 대표적 지리서인 『동국여지지』는 30대에 전국을 여행하고 답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편찬한 전국 지리지이다. 『동국여지지』는 9권 10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권2의 경기에 수원도호부가 정리되어 있다.⁴⁰⁾ 동국여지지에서 파악한 현실이 『반계수록』의 개혁안 작성에 이용되었다. 지리지에서 지방의 전세와 수운을 위한 창고(倉庫)의 현실을 파악하고서 창고 증설과 재배치 개혁안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토산이 아닌 것이 공물안에 있어서 지역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파악하고 대동법 실시안으로 제시하였다. 그가 답사한 각 지역의 제언과 읍성들의 형태와 크기를 설명하며 그 개선을 주장하였다.⁴¹⁾

특히 군현 단위로 성곽을 배치하자는 축성론(築城論)을 주장하였다. 지방관이 읍

성 혹은 산성을 중심으로 방어하는 체제를 강조했으며, 성이 없거나 적합한 장소가 없으면 행정 소재지의 이설까지 주장하였다. 읍성과 산성이 결합되는 형태의 표준적인 성곽을 축조하자고 했다.⁴²⁾ 정조가 수원 읍치를 이설하고 화성을 축성한 배경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각 읍에 연무청(鍊武廳)을 두어 무예 연마를 주장한 것도 화성의 연무대를 연상시킨다. 유형원은 『동국여지지』의 총목에서 성곽을 조사하는 경우, 축조한 시기, 돌로 쌓았는지 혹은 벽돌로 쌓았는지, 흙으로 쌓았는지와 둘레가 몇 리(里) 몇 보(步)인지, 높이는 몇 장 몇 자인지, 설립한 성문은 몇 개이며, 성내에 샘이나 우물이 몇 개나 있는지 등을 조사해서 기술한다고 하여 그가 주장한 내용이 당대의 현실을 반영한 것임을 보여준다.⁴³⁾

사실 유형원이 반영한 당대의 행정 체제는 군현제이다. 군현제는 관료제에 입각하여 지역을 구획 통치하는 행정 조직이면서 유교적 이념과 가치관을 투영하여 인간을 편제하고자 한 유기적 인격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국가의 국시인 유교적 사고 방식이 국가 운영의 제도를 근간에서 유지시키는 작용을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유형원의 군현제는 농민의 유리 유망이 군현 편제의 불균으로 발생한다고 하여 제시된 개혁안이다. 왕조의 국토 면적에 비해 행정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되어 군현이 유명무실한 것과 동시에 지역간 경계가 혼탁되어 행정 및 조세 운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했다.⁴⁴⁾

이와 같은 유형원의 전국 파악 방식과 개선안은 정조에게도 유사하게 보인다. 정조가 수원 화성을 조성하면서 『군국총목(軍國摠目)』과 『부역실총(賦役實摠)』 등을 편찬하게 한 것은 국가적 차원의 재정 운영을 정비하고자 한 것이다. 전국적 토지 상황, 조세의 부과 등을 통해 국정(國政)의 개편을 기획한 것이다. 따라서 수원 화성의 조성은 전국적 상황을 인지하면서 국가적 사업 규모로 추진할 수 있었다. 정조의 군제 개편과 강화에 대한 의지로 장용영을 설립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군사 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군사 통수의 정상화를 위해 주나라의 병농일치적 양병(養兵)을 기획하였다. 장용영 외영의 재원으로 화성 외부에 대유둔전(大有屯田)을 설치한 것이 그 실천 방안이었다. 병농상우(兵農相寓)를 통한 군수와 재정의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정책이었다.⁴⁵⁾

35)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公田制論과 그 이념적 지향」, 『민족문화연구』 58, 2013, 446~448쪽.

36) 『승정원일기』 773책, 영조 10년(1734) 2월 2일(무신).

37)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公田制論과 그 이념적 지향」, 『민족문화연구』 58, 2013, 454~457쪽.

38) 황미숙, 「수원 사대부 李奭祚 『輯說』의 均田論」, 『역사민속학』 50, 2016, 254~258쪽.

39)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 2, 2015, 61~62쪽.

40) 정대영, 『유형원의 수원부 읍치 이전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08.

41) 박인호, 「유형원의 동국여지지 편찬을 위한 고투와 실학적 지리학」, 『조선사연구』 26, 2017, 39~44쪽.

42)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지방제도 개혁론」, 『한국실학연구』 27, 2014, 23~24쪽.

43) 『동국여지지』 권수, 동국여지지사요총목(東國輿地志事要總目).

44)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지방제도 개혁론」, 『한국실학연구』 27, 2014, 13~17쪽.

45) 송양섭, 「正祖代 『軍國摠目』의 체제와 군비 군사재정의 파악」, 『사림』 38, 2010, 93~95쪽.

또한 정조는 병농일치를 위한 둔전 운영에 정전법을 반영하고자 하였다.⁴⁶⁾ 정조가 화성의 대유둔(大有屯)에서 정전을 시행하고자 한 것은 신읍치 수원의 육성을 위한 것만이 아닌 둔전 경영의 전범을 정착하려는 의도였다. 대유둔에서 정전을 시행하여 전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대유둔의 안정적 운영에 따라 화성 인근에 축만제(祝萬堤)와 만년제(萬年堤)를 축조하고 서둔(西屯)을 개발한 것에서 그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⁴⁷⁾

이와 같은 수원 화성의 조성과 관련된 정조 및 유형원의 간극에 존재하던 인물이 이석조인 것이다. 이석조가 수원 화성의 조성 및 그 핵심 운영론인 정전제를 바탕으로 기술한 것이 『집설(輯說)』이다. 『집설』은 그의 개인 저술이면서 당시 수원 지역 사대부들이 공감하고 있던 『반계수록』의 개혁론도 계승하고 있었다. 정조가 이석조에게 저술을 편찬하여 올리게 한 것도 수원 사대부 1인의 견식을 보고자 했다고 보거나, 이석조의 저술을 통해 정조가 기도하던 개혁 도시의 정당화를 위한 저서로 활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석조의 손자 이조신(李肇新)의 지문(誌文)에 의하면, 『집설』의 최초 이름은 십이성(十二聲)이었다. 주변에서 개명을 권해 집요(輯要)로 수정하여 정조에게 올렸으나, 『성학집요聖學輯要』로 혐의를 받아 『집설』이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석조는 원서(原序)에서 책의 저술 경위를 밝히고 있다. 그는 고금의 역사와 성현들의 훈계 등에 대한 연원을 정리 분류하고 자신의 견해로 모아 완성했다고 하였다.⁴⁸⁾ 이석조가 10여 년간 정리한 경세제국(經世濟國)에 관련된 내용은 내외편(內外篇) 2책으로 정리하였는데, 정조의 명을 받아 원형이정(元亨利貞)의 4책으로 재차 편찬하였다. 당시 80이 넘는 나이에 직접 편찬 작업을 할 수는 없었으므로 손자인 이조신의 도움을 받으면서 완성하였다. 이석조는 1795년 『집설』을 편찬하고 올리는 상소에서, 정조의 하교에 따라 한 질의 책자를 완성했다면서 책의 구성 및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전략)“책은 모두 4권인데 성(誠)을 돈독히 하는 것으로 「내편」을 시작한 것은 성이 만화(萬化)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고, 어질고 재주 있는 사람을 기르는 것으로 「외편」을 시작한 것은 이것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고, 성을 이루는 것으로 글을 맺은 것은 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큰 근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해서입니다. 성은 본래 방위도 없고 잡을 수도 없지만 곧 본래 그러한 하늘의 이치이며 또한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인사(人事)의 도리입니다. 만일 이치를 따라서 그 도를 행한다면 성은 그 가운데에 있을 것이니, 근면하고 부지런히 하는 것만을 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건대 오늘날 걸만 그럴듯하게 거짓을 꾸미는 풍습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을 방도는 성에 있을 뿐인데, 이는 또한 성의가 없는 것은 질박한 것으로 바로잡고 존스러운 것은 문제가 나는 것으로 바로잡아야 하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만일 근본을 바르게 하는 입장에서 성심으로 인도한다면 어찌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을 걱정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전교하기를, “공조 참판 이석조를 지중추부사에 특별히 발탁하라는 명을 내렸으니, 만일 현재 비어 있는 자리가 없으면 가설(加設)하여 제하 받도록 하라. 그리고 화성으로 도로 내려갈 때에 교마(轎馬)를 지급하는 것은 한결같이 전에 내린 문적(文跡)에 따라 시행하고 올린 상소와 비답과 책자는 내각으로 하여금 1본(本)을 베껴 내려 보내 본부의 영수각(靈壽閣)에 보관하게 하고, 숙배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도록 분부하라.”하였다.⁴⁹⁾

이석조는 정치적 변화나 사회의 개혁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저술한 것이 아니라 ‘성(誠)’이라는 천도(天道)를 실현하기 위한 수양을 기준으로 논하고 있다. 정조도 그의 책을 조정에서 필사하여 기로소의 영수각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영수각은 기로소에 출입하던 고관들의 화상을 비롯하여 국왕들의 어제 및 기록을 보관하던 장소이다. 이석조의 저술을 보관하는 것은 그 가치의 무게감을 대외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처사였다.

이석조의 현손인 이종윤의 기록에 의하면 『집설』은 3개의 저본이 있었다. 초본은 경술본(庚戌本, 정조 14년, 1790)이며, 을묘본(乙卯本, 정조 19년, 1795)은 정조의 명으로 이석조와 손자 이조신이 정리한 것이고, 갑술본(甲戌本, 순조 14년, 1814)은 이조신이 재편하고 현손 이종윤이 고증한 것이다. 초본에서 내편 돈성(敦誠)의 수제는 한 무제 때 80세의 신공이 힘써 거행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대답한 것에서 유래하였고, 갑술본은 이조신이 정본으로 만든 것이며 수제를 천인지도(天人之道)로 하였는데 이석조의 뜻이라고 하였다. 또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46) 『홍재전서』 권12, 서인(序引)5, 익정공주고재무류서(翼靖公奏藥財務類叙), 전정인(田政引). (전략)寓兵於農, 卽予苦心, 特以井田一區之意, 行之於畿甸關東若而邑, 而此亦未必兵者爲農, 農者爲兵, 西南諸道各營屯田, 未免民耕而軍食, 歉歲災實視同民結, 應稅操縱, 一付營邑之令, 足可禁猾校之橫斂, 疲氓之白微, 而比之古人屯田本意, 不啻燕越, 予甚愧之(후략).

47) 황미숙, 「수원 사대부 李奭祚 『집설』의 均田論」, 『역사민속학』 50, 2016, 265쪽.

48)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 2, 2015, 193~196쪽.

49) 『일성록』 정조 19년 6월 1일(경진); 『집설』 輯說撰進疏批. 進輯說內外篇四冊, 批曰, 以卿所進輯說, 內外篇四冊, 首尾拳拳者, 卽一誠字, 而內篇之, 修己治人質經鑑史, 外篇之, 人才宮方民產軍政鄉制時措風教法度, 無非爲學做治之要道實用, 受言藏之, 細加紬繹, 欲答老臣之誠意, 至於維持人心, 扶植世道之方, 莫過於敦俗重倫欲明五常, 先遜五品, 故曰, 勅我五典 五惇哉, 擬於春初另下一諭, 申複鄉約遺意, 修明先王舊章, 而往苒至今, 鄭重咨且者, 苦心雖在於障百川而回倒瀾, 治不從欲, 十爲八九徒言, 莫如反諸身, 清化源以求, 夫不言喻之桴響捷應, 卿疏際及於此時, 深感意見之掣然, 特擢爲知中樞府事.

뜻을 지니면서 고금의 사실을 편명으로 삼아 군주의 자강불식(自強不息)하는 성경(誠敬)을 권하려는 의도였다고 하였다. 책의 요체는 공자의 문하에서 전수되는 내용이라고 했다.⁵⁰⁾

현재 『집설』은 필사본이 전해지고 있으며, 수원박물관과 경도대학(京都大學) 가 와이문고 소장본이 대표적이다. 경도대학본은 2책인 형이 누락되어 있다. 경도대학본은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센터를 통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 수원박물관 소장본이 완질이며, 경도대학본에는 누락된 각주와 첨언들이 있는 것이 큰 차이이다. 두 책의 필사 양식도 상이하며, 장황은 수원박물관 소장본이 양호하다. 수원박물관과 경도대학에서 작성한 『집설』의 주요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원박물관 소장본>

- 표제: 輯說
- 권수제: 輯說撰進疏批謄本
- 판심제: 輯說 璆琅館藏
- 간종: 필사본
- 발간: 1814년(순조 14) 甲戌本
- 권책: 12권 4책[元·亨·利·貞]
- 행자: 10행 20자
- 규격: 19×18cm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소장본-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센터 수집본>

- 판종: 필사본
- 발행사항[발행지불명]: [발행처불명], 순조14(1814)
- 형태사항: 3冊(零本), 四周單邊 半郭 25.2×17.2cm, 有界, 10行22字, 上下向2葉
花紋魚尾; 35.9×22.7cm
- 表題: 輯說 元, 利, 貞
- 書根題: 輯說

50) 『집설』 卷之元上, 「敦誠」 元之寅. 鍾崙曰, 是書有家藏三本, 正廟庚戌年間本及最初本, 以漢武時八十申公願力行如何之對爲內篇敦誠之首題 純廟甲戌本, 公之孫參奉府君經年瘦繹始爲政本, 而改首題以天人之道 盖昔正宗乙卯, 有上教疏進時有公命校正者, 則此亦公意也, 大抵躬逢聖際有意經濟, 故以古今事實爲諸篇之, 首勸起千古人辟自強不息之誠敬, ■■■■■■■■■■, 則并諸篇以孔門傳授之要, ■■■■■, 喚惺千古賢愚 自暴自棄之情怠, 文雖異而意則一也, 茲記顯末, 以識前後本之首題有異也.

- 輯說撰進疏: 嘉善大夫工曹參判臣李奭祚(1713-1796)
- 原序: 余遂感吟一絶
- 跋: 歲在甲戌(1814)五月日孫男肇新(1764-?)謹識
- 청구기호: シ-22 199493

『집설』은 원(元)·형(亨)·이(利)·정(貞)의 4책 12권으로 편찬되었다. 내용은 내외편으로 분류되었다. 「내편」의 1책은 원, 「외편」 3책은 형·리·정이다. 내외편은 12권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내편은 수기(修己), 치인(治人), 질경(質經), 감사(鑑史) 등이며, 외편은 인재(人才), 궁방(宮方), 민산(民產), 군정(軍政), 향제(鄉制), 시조(時措), 풍교(風教), 법도(法度) 등이다. 12개 항목은 12강목(綱目)으로 분류되어 156개로 나뉘며 부론(附論)까지 합해 200여개이다. 12개 항목으로 구분한 것은 1년의 12개월과 1일의 12시간으로 나뉘는 것을 도입한 것이다. 시간과 날이 쌓여 달과 해를 이루듯 만물이 갖추어진다는 의미에 따른 순서였다.⁵¹⁾

범례에는 이석조의 편찬 방향과 과정을 설명하였다. 유형원을 비롯한 선유들의 논설을 수합하면서 주관적 주장은 회피했으며, 주례(周禮)를 기준으로 삼고 고금을 비교해 서술했다고 했다. 책편을 원형이정(元亨利貞)으로 하고, 본문 체제를 강목(綱目)으로 한 것은 12개월과 12시를 형상화 했다. 시기별로 거행할 사안들을 구조화한 것이다. 예컨대 성(誠)의 의미를 도입하여 만물의 시작을 돈성(敦誠), 종결을 추성(推誠)으로 하였다.⁵²⁾ 권별 항목 구성과 내용은 다음의 <도1>과 같다.

<도1>『집설』의 권별 항목 구성과 주요 내용⁵³⁾

元(내편)

卷之元上: 敦誠(元之寅), 博學·審問·慎思·明辨·省察·格致·主一·執中·盡性 篤行·成己·成物

51)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 1, 2013, 16~17쪽. 輯說凡例, 綱十二以象一年十二月, 目各十二以象一日十二時, 盖以積時而日積月而歲歲功迺成(후략).

52)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 1, 2013, 7쪽. 輯說凡例, 一嘗觀柳馨遠隨錄, 可謂博學通儒有意經綸者, 多有可取之語, 而惜其徒務廣引而殊失會領之要, 雖立綱條而亦欠結實之, 語詳於設弊而畧於揅弊, 志於務本而忽於立本, 識者病之, 茲取平日所講究者, 彙分類附作爲一書, 自以爲有本有末, 脈絡貫通, 無大無小, 條理精詳而亦安知異日不爲識者之病也(후략).

53)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 1, 2013, 36~37쪽.

卷之元中: 質經(元之卯), 周易·書傳·詩傳·禮記·周禮·春秋·論語·大學·中庸·孟子·小學·西銘附·經傳附註

卷之元下: 鑑史(元之辰), 夏史(夏史大禹·履癸[桀])·殷史(殷史成湯·太甲·高宗 受[紂])·周史(周史武王·召公·成王·穆王·幽王·平王·威烈王·赧王) 戰國(吳夫差·越句賤·齊桓公·景公·宣王·魯定公·繆公·燕昭王·晉文公·趙文子·烈侯·武靈王·魏文侯·韓昭侯·楚莊王·宋襄公·衛武公·文公·靈公·秦孝公·始皇·二世)·漢史(西漢高祖·文帝·景帝·武帝·宣帝·元帝·東漢光武帝·章帝·和帝·安帝·桓帝·靈帝·獻帝·蜀漢昭烈·後主)·晉史(武帝·惠帝·懷帝·元帝·成帝)·五代(宋高祖·齊高帝·晉武帝·梁武帝·元帝·陳高祖·後主·隋文帝·煬帝)·唐史(高祖·太宗·高宗·中宗·肅宗·代宗·德宗·憲宗·文宗·宣宗·昭宗)·五季(後梁朱三·後唐莊宗·明宗·後晉石敬瑭·後漢高祖·後周世宗·元稹)·宋史(高祖·太宗·仁宗·神宗·哲宗·徽宗·欽宗·高宗·孝宗·寧宗·理宗·度宗)·明史(高帝·成祖·仁宗·宣宗·孝宗·武宗·明神宗·毅宗)·元史附(太祖·太宗·憲宗·世祖·仁宗·英宗·順帝)

亨(외편)

卷之亨上: 養賢才(亨之巳), 教里熟·訓坊庠·簡序學·儲太學·擇賢師·詳條例·參貢舉·明選法·勸武學·鍊衆藝·定試法·破朋黨

卷之亨中: 整官方(亨之午), 分職任·汰冗官·審銓選·抑躁競·明考課·信賞罰·厚祿俸·簡簿書·擇吏胥·省宦寺·隨才任官·久任責成

卷之亨下: 定鄉制(亨之未), 分坊里·擇坊長·明鄉約·立坊社·建坊庠·置州丞·審戶口·奠民居·正名分·旌淑慝·勸調救·設社倉

利(외편)

卷之利上: 制民產(利之申), 均田制·蠲雜賦·審災傷·禁立案·開水利·省方物·罷宮稅·勸農桑·定常業·祛游民·擇倉官·簡民牧

卷之利中: 詰軍政(利之酉), 定兵制·務精抄·省冗雜·一統領·鍊戰陣·革放番禁收斂·繕兵械·減鎮堡·罷均役·重郵牧·簡將任

卷之利下: 濟民用(利之戌), 祛奢靡·革錢幣·罷還上·省舖店·嚴三禁·禁煙茶·賦巫覡·汰棚戲·簡支供·審荒政·節財用·定經費

貞(외편)

卷之貞上: 敦風化(貞之亥), 明五性·遜五品·尙忠信·闢異端·斥功利·振文體·禁賭戲·革優倡·立紀綱·親上下·審閹率·乂三德

卷之貞中: 合時措(貞之子), 明天時·察地利·省民俗·順人情·審損益·節弭張·量時勢·慎經權·酌古今·防幾微·參氣數·致中和

卷之貞下: 一制度(貞之丑), 本數·諧聲·審度·嘉量·平衡·明曆·正禮·宣樂·酌刑·立政·信法·推誠

각 권의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 앞에는 황려후인(黃驪後人) 흠안당 이석조 저술, 소자 공릉참봉 이조신(李肇新) 찬수(撰修), 현손 진사 이종윤(李鍾崙) 고증이라고 서술하였다. 본문에서 췌주로 종윤알이라고 기재한 것이 이종윤의 고증이다. 특히 원중(元中)의 말미에 있는 경전부주(經傳附註)는 각주의 성격으로 이종윤이 작성한 내용이다.

이석조는 돈성을 강조하며, 사서의 주요 내용을 강목으로 하여 서술하였다. 본문의 서술은 경전의 요체와 성인의 언사, 중국 역대 왕조의 성쇠, 각종 제도의 배경과 운영 및 개선안 등이다. 본인의 서술체계 내지는 취지가 주자를 기준으로 한 경전의 가르침에 부합하려한 것이라고 했다. 사서삼경 등의 경전을 요약 정리하면서 그 취지를 주자의 언설로 대변하였다.⁵⁴⁾ 효종의 북벌 기획과 무예 단련, 숙종의 대보단 설치와 송시열의 만동묘 건립 등이 재조지은을 한 명나라 황제들에 대한 보답이며, 다행히 제사를 이어서 춘추의 의리에 가탁하여 보답하는 일이라고 칭송하였다.⁵⁵⁾

내외편에 유학적 견해에 따른 고금의 치난과 훈계 등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요체는 군왕의 처세에 대한 내용이다. 외편의 서두에 선왕의 전범을 바탕으로 선유의 언사를 9개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어진 인재를 기르는 양현재(養賢才), 둘째 관리의 규율을 바로하는 정관방(整官方), 셋째 향제를 정하는 정향제(定鄉制), 넷째 백성들의 생업을 보존하는 제민산(制民產), 다섯째 군사에 대한 정사를 다스리는 힐용정(詰戎政), 여섯째 백성들의 쓰임새를 고르게 하는 제민용(濟民用), 일곱째 풍화를 돈독히 하는 돈풍화(敦風化), 여덟째 때에 맞추어 조절하는 일인 합시조(合時措), 아홉째 제도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일제도(一制度) 등이다.⁵⁶⁾

이석조는 고금의 치란과 군주의 정치에 대한 고금의 사례만을 제시하지 않았다. 당대의 시무책도 제안하였다. 예컨대 중앙 정계가 영조의 탕평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인재를 선발해서 당파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당파간의 결함을 막는 금혼령을 내릴 정

54)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 1, 2013, 39~67쪽.

55)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 1, 2013, 102~103쪽.

56)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 1, 2013, 105쪽.

도로 강하게 사색당파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⁵⁷⁾ 또한 사회구성원을 능력별로 선발해서 배치하도록 주장하였다. 이석조는 종모법이 윤상을 어그러뜨리고 상도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노비를 모두 면전(免賤)시켜 서민으로 만들고, 만약 혁파할 수 없다면 공사의 노비를 하나로 합쳐서 속오군(束伍軍)으로 편성하자고 했다. 당대의 신분제 모순이 인재 양성을 어렵게 하고 선발의 폐단을 양산한다고 보았다. 양반들이 몰락하는 원인의 하나로도 인식하였다.⁵⁸⁾ 반면 적서의 구별은 엄격하게 주장하였다. 적서의 분별은 천질(天秩)에서 나온 것이며 인위의 사사로움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정명분(正名分)이라고 하면서 처첩과 적서의 구별은 물론 존귀비천, 화이의 차별도 당연한 처사하고 보았다. 명분의 문란이 기강의 훼손을 가져왔고 풍속이 악화되었다고 해석했다.⁵⁹⁾ 특히 북벌과 대보단의 설치 등 춘추 의리를 강조하며 화이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다.⁶⁰⁾

왕조 사회의 근간인 토지 제도의 문제에서도 국가 재정에 중압을 가하는 군제에 대해 과감한 정비를 주장하였다 재원을 낭비하는 군병의 수를 줄이면서 금군을 강화하고 진관 제도의 재정비를 통해 군비의 재정비를 논했다.⁶¹⁾ 그가 군비를 축소한다고 국방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그는 평소에 무학(武學)을 권장하자고 했다 그 방안으로 활쏘기를 주장하였다. 활쏘기가 육예의 하나로서 무사를 양성하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하였다.⁶²⁾ 활쏘기는 조선 초기부터 왕실에서부터 강조하던 덕목이었다.⁶³⁾ 또한 정전제의 실시가 군제의 재편과 무기의 정비를 가져온다고 하였다.⁶⁴⁾

특히 수원 화성에 직접 연관되는 토지 제도에 대한 부분은 외편의 권지리에 주로 나타난다. 첫 번째 항목인 제민산 이지중(制民產 利之中)에서 향산과 향심의 맹자를 말하면서 정전법의 기원 및 의미를 제시하였다. 균전제(均田制)에서는 역대 토지 제도의 변화와 주자의 정전제설을 설명하였다. 그는 정전의 이해가 치국의 대본이라

면서 정전법의 의미를 5개로 정리하였다. 첫째, 도로와 수로를 정비하여 지기(地氣)가 썰 틈이 없게 하는 것, 둘째, 공전을 경작하여 1가(家)의 노동력도 낭비됨이 없도록 하는 것, 셋째, 풍속을 동일하게 하는 것, 넷째, 8가의 능력을 합치도록 하는 것, 다섯째, 재화를 소통시키는 것 등이라고 하였다.⁶⁵⁾ 또한 이석조는 정전제가 시행될 수 있는 답안도 제시하였다. 대개 11개의 조목으로 정리되며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의 쇠퇴기가 있으면 회복기도 있으므로 정전제 실시 여부는 통치자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둘째, 토지 소유자들의 원망이 있겠으나, 장래의 이익을 위해 도모해야 한다.

셋째, 자연 지형의 굴곡이 상이해도 면적과 형태를 비교해서 규정하면 된다.

넷째, 무분별한 개간보다 토지의 구획을 통일시키는 것이 생산량을 높인다.

다섯째, 새로운 거처를 정해주면 토지의 비옥에 구속되는 일이 없다.

여섯째, 산골짜기와 평야의 마을에 거주하는 인민에 맞추어 전지를 구획한다.

일곱째, 동일한 토지를 제공하여 경작시키면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절용할 수 있다.

여덟째, 신분과 지위가 높다고 토지의 지급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아홉째, 결부법(結負法)을 강화하여 조세를 균등하게 한다.

열 번째, 균전제는 인정이 아닌 토지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하면 폐단이 없다.

열한번째, 한전제는 폐단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므로 정전과 균전을 실시해야 한다.⁶⁶⁾

이석조의 『집설』은 군주의 치국에서 국가 경영에 이르는 경세론(經世論)이 대부분이다. 특히 토지 제도에서 이석조의 균전론은 오늘날의 토지 공개념에 가까운 내용 이면서 조선 왕조의 사대부들이 지향한 전제(田制)인 정전제 개념의 한 형태이다. 토지의 소유 및 매매를 국가 혹은 공동체가 제어하고 조절한다는 개념이다. 그는 양반 지주에 의한 병작반수제가 인심과 풍속을 해친다고 하면서 균전을 강조하였다.⁶⁷⁾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의 논설이 정조에게 채택된 시점이다. 이석조의 논설이 당대 여론이면서 거벽과 같은 위치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주요한 점은 정조가 유형원 이후의 개혁안과 이석조를 비롯한 지역 사대부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수원 화성에 둔전을 설치한다는 명분으로 정전제 개념의 토지 제도를 시행한 배경이 된 점이다. 화성의 조성 과정에서 수원에 세거하는 사대부를 응제로 선발하고, 그의 논설을 편찬하게 하는 행위에서 정조의 의지를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정조가 유형원의 논

57)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 1, 2013, 130~131쪽.

58) 『집설』 卷之亨下, 定鄉制 亨之未, 正名分; 황미숙, 『18세기 水原 士大夫 李奭祚의 時務論 연구-輯說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9, 73~74쪽.

59)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 1, 2013, 151쪽; 171~172쪽.

60)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 1, 2013, 151쪽; 102~103쪽.

61) 『집설』 卷之利中, 肅軍政(詰軍政) 이지유(利之酉). 省冗雜諸色兵, 只存騎步砲射之正兵及禁軍各五千於京城, 罷各鎮堡 無益之兵, 而復鎮管有統之制兵, 不在多惟精爲貴耳, 且今各衙門哨官將校敎鍊官等, 名號既繁, 而額覈之濫, 幾與軍兵相參矣, 縮今若汰其冗數, 只存若干人取足二領, 其哨下敎鍊武藝而已, 則何至如今日之兵, 有虛額國受實害也(후략).

62)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 1, 2013, 117~118쪽.

63) 이왕무, 「조선전기 軍禮의 정비와 射禮의 의례화」, 『동양고전연구』 54, 2014.

64)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 2, 2015, 75쪽; 85~87쪽.

65)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 2, 2015, 34~39쪽.

66)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 2, 2015, 39~47쪽.

67)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 2, 2015, 35~47쪽; 50쪽

설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의 사위 건립에 찬성하지 않은 것에서도 의중을 알 수 있다.⁶⁸⁾ 정조가 화성에 전토를 개간하고 인민을 주거시키면서 능침과 성곽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것보다, 17세기 이래로 논의되고 귀결되던 주자 성리학의 이상사회를 수원 화성에 구현하려고 한 첫 단계로 둔전을 설치하여 병농일치의 국가를 모색하려 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왕조 국가에서 왕권을 강화하고 상공업을 활성화 하려는 정책은 어느 시기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히려 조선 왕조의 국시인 유교적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던 제왕의 모습을 찾는 것이 수원 화성의 진면목을 보는 시각일 것이다. 병농일치의 개념은 수군의 전선(戰船)을 조운(漕運)에 활용하는 대책에서도 적용될 정도로 광범위한 국가 정책에 적용되고 있었다.⁶⁹⁾

68) 『일성록』 정조 18년, 12월 29일(임오).

69) 『홍재전서』 권170, 「일득록」 권10, 정사(政事)5.



1 화성의 조성 경제적 기반 구축

1789년(정조 13) 수원부의 본래 읍치(邑治)를 팔달산 아래에 옮기고 그곳에 사도 세자의 영우원을 천장하였다. 장헌세자(莊獻世子)의 추존을 위해 현릉원을 만들었다. 1789년 7월 이후 신읍치에는 244호에 달하는 주민이 이주했다. 1794년부터 신읍치에 화성 성역(城役)을 추진하여, 1796년(정조 20) 가을에 완결했다. 신읍치인 수원 화성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은 성역의 와중에 진행되었다. 1795년에 만석거(萬石渠) 조성을 비롯하여 만년제(萬年堤), 서호인 축만제(祝萬堤) 등의 제언을 정비한 것이다. 만석거의 축조에 맞추어 대유둔(大有屯), 축만제에는 서둔(西屯)이 설치되었다.⁷⁰⁾

수원 지역은 영농이 주목되는 곳이었다. 유형원은 조선 후기의 수원이 한남(漢南)의 거진(巨鎭)으로 병졸이 많고 풍속이 사예(射藝)에 힘쓰는 영농 지역이라고 했다.⁷¹⁾ 정조는 그의 수원 경영론에 주목하였다. 유형원은 “수원에 광교산과 도양산의 남쪽에 위치한 광주(廣州)의 왕륜, 일용, 월곡, 북방, 송나곡, 송곳 등의 6개 지역을 더하고 읍치를 북평(北坪) 평야로 옮겨 하전을 끼고 지형지세를 활용하면 역관(驛館)과 참점(站店)이 설치되고 읍성(邑城)을 축성할 수 있다. 번진(藩鎭)의 기상이 있는 곳이라서 1만 호를 수용할 장소이다”라고 칭했다.⁷²⁾ 이에 정조는 “그는 유용한 학문으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저작을 남겼다. 기이하다. 그가 수원의 형편을 논함에 있어서 읍치를 옮기는 계획과 축성하는 방략은 100년 전에 살았으면서도 오늘날의 일을 환히 알았던 것이고, 면(面)을 합치고 정변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부절(符節)처럼 착착 들어맞는다. 그의 글을 보고 그의 말을 적용하더라도 오히려 대단한 감회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의 글을 보지 않아도 본 듯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도 이미 적용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생각하던 바가 진실로 풍부했던 것이다. 이 화성 한 가지 일만 보아도 나로서는 아침저녁으로 그를 만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⁷³⁾

정조가 화성을 조성하면서 역점에 둔 것은 그 운용이었다. 일시적인 군사시설이 아닌 병농일치의 토대에서 항구적으로 유지되는 형태의 둔전이었다. 둔전은 국방상의

70) 염정섭, 「18세기말 화성부 수리시설 축조와 둔전 경영」, 『농업사연구』 제9권 1호, 한국농업사학회, 2010, 57~59쪽.

71)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동국여지지』 권2, 경기도 수원.

72) 『반계수록보유(磻溪隨錄補遺)』 권1, 군현제(郡縣制), 역대제(歷代制). 水原都護府, 加廣州下道之王倫一用月谷北方松蘿谷松串六面, 卽光教道養兩山以南地也. ○果川之南面及西面半, 修理山以東地, 除廣德, 加崧二面, 入牙山. ○挿橋近處, 入陽城移治於北坪平野, 舊好驛置館兼設站店, 邑城可築, 北坪野中臨川, 因勢按今之邑居, 亦云可矣, 然方之北坪, 則不啻霄壤, 北坪山大轉地太平, 結作深奧, 規模宏遠, 設治建城, 真是大藩鎮氣象也, 地內外可容萬戶.

73) 『일성록』 정조 17년, 12월 10일(기사).

화성 둔전의 정비와 병농일치론

요지에 주둔하는 군병들이 진황지(陳荒地)나 진전(陳田) 등을 경영하여 운영비에 충당하는 목적의 토지였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정부의 아문과 왕실의 궁방(宮房)에서 개별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둔전을 확장하였다.⁷⁴⁾ 조선 후기로 갈수록 토지의 사적 소유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상황에서 국가가 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던 둔전 이외의 재원을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둔전은 17세기에 활발히 진행되었다. 17세기에 군문을 중심으로 전국에 둔전이 배치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왕실은 물론 정부 중앙 관서에서도 재원의 하나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대개 조선 후기의 둔전은 두 개의 견해로 이해되었다. 첫째, 둔전을 민전 지주제처럼 병작지주제로 이해한 경우이다. 조선 후기 내재적 발전론의 한 사례로서 둔전민이 인신의 지배예속 관계를 탈피해 가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봉건제적 지대 수취의 해체 과정으로 농민층 분해가 가속화되던 양상의 하나가 둔전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실학자들의 둔전 개혁 논의도 동일 선상에서 분석하였다. 둘째, 국가적 토지소유론의 입장에서 둔전을 중층적 소유구조로 보면서 수조권적 토지 지배가 사적 토지 송의 전반적 발전에 제약되어 일정한 사적 소유 형태로 전환된 형태로 해석하는 견해이다.⁷⁵⁾

조선 왕조 정부는 왜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임기응변의 차원에서 훈련도감을 비롯한 군영을 증설하였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영의 증설과 군사 체제의 변화는 재정의 확장을 유발하였다. 군영의 재원 확대로 추진된 것이 둔전이었다. 둔전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농지의 개간과 유이민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왕조 정부에서 둔전의 확대를 장려한 원인이었다. 또한 17세기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된 것도 소유주 없는 농지의 개간을 유도하게 하였다. 모민설둔(募民設屯)과 유민작대(流民作隊)를 통한 국방력의 강화와 동시에 수세의 확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둔전이었다.⁷⁶⁾

둔전 운영의 기본은 관리 기구의 구성이다. 둔전의 경영이 항상적으로 진행되어야 설립 취지이기도 한 지대 수취가 원활해진다. 기구의 운영비는 둔전에서 수취되었고, 관리자에게는 급료와 토지 지급의 두 가지 형태로 생활을 유지하게 했다. 조직상의 위계와 담당 업무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예컨대 수원 화성의 국영 둔전이었던 장용영 대유둔의 관리 직임은 다음의 <표1>과 같다.⁷⁷⁾

74) 송양섭, 『조선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2006.

75) 송양섭, 「18·19세기 軍 衙門 屯田의 管理和 屯民의 存在樣態」, 『사학연구』 66, 2002, 130~131쪽.

76) 송양섭, 「17세기 군영문 둔전의 확대와 경영 형태의 변화」, 『역사와 현실』 36, 2000, 283~289쪽.

77) 송양섭, 「18 19세기 軍 衙門 屯田의 管理和 屯民의 存在樣態」, 『사학연구』 66, 2002, 149~152쪽.

<표1>장용영 대유둔전의 둔전 관리 직임

직임	인원	급료	人當私耕劃給量	출신	기타
도둔감(都屯監)	1	米 10두	畝 8斗落	有班名者	
둔감관(屯監官)	1	미 8두	畝 7斗落	將校	문서 담당
상이아(上貳衙)	1	미 7두			문서 담당
둔전색리(屯田色吏)	1	미 7두			
사음(舍音)	1	租 15두(격월)	畝 5斗落	有根着民	
사령(使令)	2	租 15두(격월)	畝 5斗落	良賤無論	
권농(勸農)	1	租 15두(격월)	畝 8斗落	양천무론	
고직(庫直)				권농겸임	
감고(監考)	1	조 10두			
동감고(洞監考)	2	조 1석(추수후)	田 1石落	거주민	戶役身役免除
복감고(洑監考)	2		畝 3斗落	거주민	호역신역면제

위의 <표1>의 18세기 이후의 상황으로 17세기의 둔전 경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17세기 후반의 둔전은 신역(身役)을 통한 인신적 지배 예속 관계를 매개로 한 경영보다는 경제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병작제로 변화되었다.⁷⁸⁾ 따라서 화성의 둔전 관리 기구처럼 국가에서 지정한 직임들이 둔전을 담당하게 하고자한 것이다.

대유둔의 운용은 지역 거주 양반 출신 둔도감(屯都監) 1명과 장교 출신의 둔감관(屯監官) 1명 등의 8명 및 둔색(屯色)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정조는 당시 유명 무실하던 제언 감독관인 감고관(監考官)을 수령이 개입하라고 했다. 대유둔에서는 장용영 외영의 장교, 서리, 군졸 등이 경작자로 선발되어 경작 능력에 맞추어 둔전의 2/3를 분급 받았고, 1/3은 경작지가 없는 수원부민에게 나누어 주었다. 둔전 분급자에게는 둔소에서 종자와 농기구를 제공하며 소1마리에 2인의 농업을 하도록 했다. 생산물은 병작반수(竝作半收)의 관행에 의거해 50%가 화성의 수성고(修城庫)에 접수되어 성곽의 보수 및 유지에 소용되었다.⁷⁹⁾

화성 둔전이 병농일치라는 새로운 공동체 추구만은 아니었다. 화성 건설, 신 읍치의 조성은 수원 지역의 경제 기반을 조정하는 정도가 아닌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거행되어야 안정될 수 있었다. 왕실 시설인 행궁과 현릉원, 행정 조직인 화

78) 송양섭, 「17세기 군영문 둔전의 확대와 경영 형태의 변화」, 『역사와 현실』 36, 2000, 318쪽.

79) 김준혁, 앞의 논문, 110~112쪽.

성유수부, 군영 기구인 장용영외영, 군사 시설인 화성 등의 보수 및 유지를 위한 항구적인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였으며, 둔전이 설치된 이유 중 하나였다.

1790년(정조 14) 수원에 둔전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등장하였다. 부사직 강유(姜游)가 수원의 새로운 행정소재지에 성곽을 설치하고 둔전을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강유는 수원에 중앙 군영의 운영과 백성들의 생업을 보장하기 위해 둔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수원이 총융청(攄戎廳)의 외부 군영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진(鎭)이고 막중한 능침을 받드는 곳이니,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수원 읍치를 옮겨 설치하였으나 성지(城池)의 방어설치가 없으므로 금성탕지(金城湯池)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원의 신 읍치는 들판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므로 성을 쌓고 참호를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했다. 특히 성곽을 축조한 뒤 독산성(禿山城)과 서로 견제하는 세력을 만들고, 유사시에 협공의 형세를 이루게 한다면 무적의 군사요지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신 읍치에 집을 짓는 자의 절반이 유생(儒生)이라며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그들과 더불어 성을 지키기 어려우니 역시 군사들을 불러들여 집을 짓게 하고 복호(復戶) 500결 내에서 그 절반을 군병에게 나누어 주어 살아갈 길을 삼게 하며, 또한 각 군영에서 수원 부근에 둔전을 설치하게 하여 군병들이 농사를 짓게 하고 군문에서 그 세를 징수하게 한다면 토지 없는 군사들이 반드시 앞을 다투어 모집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⁸⁰⁾

강유의 주장은 화성, 장용영, 둔전이 별도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관방 체제의 기획이라는 국방 전략 차원에서 고안된 것임을 보여주는 건의이다. 그는 수원 신 읍치가 성곽이 없이 양남(兩南)으로 통하는 길의 요충지에 설치하지 않고 대로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은 긴급 사태시 독산산성(禿山山城)으로 대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독산산성과 신 읍치의 거리가 10리의 원거리면서 대로에서 벗어나 있어 위급한 처지라고 하였다. 특히 양남으로 통하는 대로는 소사(素沙)에서부터 하나의 길로 합쳐져서 수원에 도달하는데, 영남우도(嶺南右道)의 거의 반절은 이 길을 거쳐서 올라오며, 호남직로(湖南直路)에는 전주성(全州城)만 있고, 호서(湖西) 직로에는 공주성(公州城)과 홍주성(洪州城)만 있으며, 수원 인근에서부터 경성(京城)까지는 달리 성을 설치한 곳이 없으므로 위태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동시에 대외적으로 도성에 도달하는 교통로에 관방의 중요한 진이 설치되어 있음을 보여주어 미래에도 대처하는 방어책으로 삼자고 하였으며, 그것을 위한 선결책으로 성지(城池)

80) 김준혁, 위의 논문, 102~103쪽; 『정조실록』 권30, 정조 14년 6월 10일(기미).

와 같은 요새의 설치를 주장했다. 수원 신읍치의 지리적 환경이 성곽이 설치되어야 하는 배경이라고 했다. 평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성을 쌓고 참호를 파야한다면서 독산산성과 호응하면 적을 견제 및 협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성곽 축조는 주민이 거주하기 이전의 지역에 구획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이었다. 성내의 군병을 모집할 때는 거주처와 복호(復戶)의 혜택을 주어 대변군(待變軍)을 삼고, 읍치 인근에 중앙 군영의 둔전을 설치해서 군비로 활용하게 하면 재정적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제안이었다.⁸¹⁾

원래 강유는 정조의 집권 초기인 1778년(정조 2)에도 도성의 방어 및 국방의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서 수원 지역의 방어책을 제시하였다. 당시 그가 제시한 국방 강화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사직 강유가 상소하기를, “도성은 종묘 사직이 있는 곳이고 인민(人民)들의 재화(財貨)가 모여 있는 곳이므로,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땅인데, 의논하는 사람들은 모두 도성은 지킬 수 없다고 합니다. 옛날 임진년과 병자년 정축년의 난리를 당했을 적에도 번번이 버리고 갔으며, 이괄(李适)의 변란은 하찮은 역적이었는데도 또한 성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단 경급(警急)이 있으면 내가 먼저 동요하여 온 도성에 온통 전파되어 마침내 낭패를 당하였는데, 신은 일찍 계획을 세워 대비하지 않은 것을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선대왕께서는 나라의 대계(大計)를 깊이 유념하여 도성 사람들에게 도성은 굳게 지켜야 한다는 뜻을 효유(曉諭)하시고, 드디어 도성을 지키는 절목을 반하하셨으니, 아! 성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첩(城堞)이 공고하지 못한 것이 다시 전일과 같아서 곳곳에 붕괴될 형세가 있고, 군향(軍餉)의 저축이 없는 것이 다시 전일과 같아서 간간이 칭대(稱貸)하려는 의논이 있으니, 이와 같아서야 어떻게 도성 백성들의 마음을 결집시켜 굳게 지킬 수 있는 계책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강도(江都)는 해마다 성을 수축하면서 도성에 대해서는 태연히 마음을 쓰지 않고 있으며, 남한(南漢)은 해마다 계산하여 곡식을 저축하고 있으면서 도성에는 전혀 남는 저축이 없습니다. 신이 감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오히려 도성은 지킬 수 없고 강도나 남한은 뒷날 진양(晉陽)이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강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서 진실로 육지의 구적(寇賊)을 방어하기에는 이롭지만, 삼면에 배를 정박할 수 있어서 해구(海寇)를 방어하기에는 불리하니, 이는 긴급할 때 반드시 귀의할 수 있는 곳이 못됩니다. 남한은 산세(山勢)가 외파로 떨어져

81) 『일성록』 정조 14년, 6월 10일(기미).

있어서 군량의 운반을 계속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으며, 성 안이 비좁아서 많은 군병을 수용하기 어려운 걱정이 있으니, 이곳은 오래도록 지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신의 계획으로는 전적으로 도성에만 마음을 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며, 또 미리 성을 지키는 방책을 강구하고 군항미(軍餉米)를 많이 저축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후략)⁸²⁾

강유는 도성을 중심으로 수도권 관방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었으며,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그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12년 이후의 1790년의 상소였다. 정조 집권 초기부터 수원 화성의 군사적 필요성이 주창된 것이며,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음을 강유의 상소를 통해 볼 수 있다.

한편 왜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국정의 최대 과제는 군제의 개혁이었으며, 개혁안의 중심은 항상 오위제의 복구였다. 국왕들이 생각하는 오위제는 병농일치로서 별도의 국가 재정의 투입 없이 군사력을 유지하는 방안이었다. 조선 전기의 정병과 보인의 관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훈련도감을 위시로 하여 중앙에 군영들이 설치되면서 국가 재정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정조도 병농을 연관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개병제인 오위제의 시행이 경제의 안정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장용영 외영은 오위제로 편성하였으며, 그들의 경제 기반으로 둔전을 설치한 것이다. 군역이 폐단을 개혁하면서 군비를 절용하고자 시도한 것이 장용영과 둔전의 등장이었다. 정조는 둔전의 존재를 병농일치 혹은 병농상우(兵農相寓)라고 표현하였다.⁸³⁾

82) 『승정원일기』 1427책, 정조 2년(1778), 9월 10일(병신).

83) 김준혁, 「정조시대 장용영외영의 병농일치 군제개혁 구상과 둔전경영」, 『한국사연구』 168, 2015, 97~100쪽.

2 수리시설과 둔전의 정비

1795년 봄에 광고전 상류에서부터 준설작업과 수로(水路) 조성을 진행하였다. 화성 북성(北城)과 남성(南城) 외부의 토지를 관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형에 따라 제방을 쌓고 북문 인근의 화홍문(華虹門)으로부터 남성까지 부내(府內)를 지나 귀천(龜川)으로 연결되었다. 화성의 외부에서는 수로의 정비에 따라 북둔(北屯)인 대유둔에 용수를 보낼 수 있었다. 북수문에서 남수문으로 통하는 부내의 수로는 상하 수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다. 수리시설에서 되는 것이 만석거 등의 제언이다.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까지 제언의 개발은 최고도에 달할 정도였다. 다만 관리 문제로 대부분 폐기와 수축, 복구가 반복되는 곤란한 시설이었다. 18세기 후반은 전국적으로 논농사가 직파법에서 이앙법으로 보급 완료된 시기였다. 안정적인 벼농사를 위해서 수리시설의 확대 및 유지는 농업환경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였다.⁸⁴⁾

화성 둔전의 농업 경영에도 제언의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화성의 둔전인 대유둔과 만석거, 축만둔과 축만제가 그것이다. 화성 내외의 상하수도 관리에도 필요했다. 수원천의 계절적 범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준설과 제방공사가 시작되었다. 수원천을 기준으로 하는 관개수로는 둔전과 제언으로 연결되었다. 그 비용은 왕실에서 조달했으므로 지역 민심도 찬성이었다.⁸⁵⁾ 정조가 강조한 왕가의 재정을 정부와 동일하게 운영한다는 궁부일체론(宮府一體論)을 실행한 것이었다.⁸⁶⁾

이석조도 수원의 토지 경영에서 수리 시설의 충족을 주장하였다. 정전법을 시행하면서 수리시설을 구비해야 사적인 겸병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른바 천맥이 열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수리시설의 구비였다.⁸⁷⁾ 정조대에 수리시설의 확충은 유형원의 사례를 통해 언급되기도 하였다. 1798년(정조 22) 복태진(卜台鎭)의 상소에서 유형원의 제시한 수리시설 확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했다.

(전략)“농사에서 급선무는 수리(水利) 사업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며, 수리의 공효는 제언을 쌓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신이 일찍이 고 처사 유형원이 지은 반계수록을 읽어보니, 거기에 ‘부안(扶安)의 놀제(訥堤), 임피(臨陂)의 벽골제(碧骨堤), 만경(萬頃)의 황등제(黃藤堤)는 소위 호남 지방의 3대 제언이다. 처음에 그 제언을 쌓을 때에는 온 나라의 힘을 다 들여서 완성시켰는데 중간에 훼손되자 내버려두었다. 지금 불과 몇 고을의 힘만 동원하여 예전처럼 수선했다 놓으면

84) 염정섭, 앞의 논문, 60~62쪽.

85) 김준혁, 앞의 논문, 106~109쪽.

86) 송양섭, 「정조(正祖)의 왕실재정 개혁과 “궁부일체(宮府一體)”론(論)」, 『대동문화연구』 76, 2011; 송양섭, 『18세기 조선의 공공성과 민본이념: 손상익하의 정치학, 그 이상과 현실』 태학사, 2015.

87)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 2, 2015, 52~53쪽.

노령(蘆嶺) 이북은 영원히 흉년이 없을 것이며 호남 지방의 연해 고을이 중국의 소주(蘇州)나 항주(杭州)처럼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근세에 국가를 경륜할 만한 선비로는 유형원을 으뜸으로 꼽는데 그의 말이 이와 같으니, 제언의 이익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조정의 신하 가운데 이 분야에 능숙한 자를 잘 가려 뽑아 봄이 되기를 기다려 공사를 시작하게 하되, 굶주리는 백성을 정밀히 뽑아 그들을 부역시키고 관가에서 먹을 것을 대주어, 보리가 익을 때까지 그렇게 하소서. 그러면 이 제언이 완성되자마자 백성들의 먹을 것이 넉넉해질 것입니다.”(후략)⁸⁸⁾

조선 왕조가 농업을 중시하는 사회로서 수리시설의 확충은 전시대적인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반계수록』의 사례를 거론하며 제언의 중요성을 설파하고자 하는 것은 유형원의 경제론이 사대부들에게 일반 지식으로 통용되는 것은 물론 국왕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파하고 언급했다고 파악되는 부분이다. 이에 정조도 수리시설의 증축에 관심을 보였다. 정조는 농사의 근본이 근본과 노고에 달려 있으며, 그 요점은 또한 수리(水利) 시설을 발전시키고 토질에 마땅한 것을 살피고 농기구를 잘 관리하는 것이지만 세 가지 요점 중에서도 수리 시설의 일이 가장 으뜸이라고 했다. 특히 『주역』에서 수지(水地)는 비(比)가 되고 지수(地水)는 사(師)가 되는데, 정전법(井田法)이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면서 수리 시설의 확충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⁸⁹⁾ 특히 정조는 곡식이 백성들의 생명줄이며, 곡식은 전답이 있어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왕(帝王)이 백성을 다스리면서 근본으로 삼는 것이 전답이라고 했다. 중국 삼대에서부터 홍수를 다스리고 전답의 등급을 구분한 것이 백성들의 삶을 위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왕조의 개국시부터 정전제를 교훈으로 삼았으며 사전(私田) 제도를 없애고자 하는 정책을 이어갔고 수리시설의 확충에 노력했다고 하였다.⁹⁰⁾

화성의 수리시설은 1795년(정조 19년) 봄에 만석거(萬石渠) 축조를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1795년 3월 1일 공사가 시작되어 5월 18일 완성하였다. 당시 만석거의 크기는 둘레가 1,022보(1步), (上深) 7척(尺), 하심(下深) 11척, 제장(堤長) 725척, 하후(下厚) 52척, 상수광(上收廣) 17척 등이었다. 제방은 남쪽 토안(土岸)에서 시작하여 북측의 석애(石崖)로 연결되었다. 관개수의 유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두 가지 형태

의 수문(水門)인 수구(水口)와 수갑(水閘)이 설치되었다. 수문은 북애(北崖)를 파서 만들었고 만석거 내부의 수위(水位)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통로 기능을 하였다. 수갑은 만석거의 남측 수로(水路) 입구에 두었는데, 판목(板木)을 이용해서 개폐하는 기구로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장치였다. 만석거 인근은 화성 북문인 장안문 외부의 개척지인 대유평(大有坪)으로 고등촌(古等村) 북평(北坪) 지역이었다. 원래 대유평은 수리시설이 없어서 방치된 곳인데, 만석거의 관개시설이 등장하면서 수전(水田)이 가능해졌다. 1795년 가을 만석거에 용수를 채운 뒤 남쪽 제방에 영화정(迎華亭)을 세웠다. 이곳은 정조의 행행시 어로(御路)로 이용되어 국왕의 둔전 조성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하였다.⁹¹⁾ 정조는 만석거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논했다.

상이 이르기를, “농가(農家)의 이로움으로 수리(水利)만 한 것이 없다. 겨울과 봄의 눈이 녹을 때에 물을 모아 두었다가 봄과 여름의 싹이 마를 때에 물을 내어 보내면 그 이로움이 어찌 크지 않겠는가. 지금 화성(華城)의 만석거(萬石渠)로 보더라도 제언(堤堰)을 축조하기 전에는 황폐한 논밭으로 잡풀만 자라는 땅이었는데 제언을 축조하고 나서는 원천(源泉)이 넓고 커서 척박한 땅이 비옥하게 바뀌었다. 비록 금년 4~5월과 같은 가뭄에도 제언 아래의 수백 석(石)이 나는 큰 들판은 한결같이 풍년이 들기를 기대할 수 있으니 가뭄이 재해가 되지 않았다. 이것을 미루어 본다면 제언이 이루어지느냐 피폐해지느냐 하는 것은 풍년이 드느냐 흉년이 드느냐 하는 큰 운수(運數)와 관계되는 것이니, 나라에 있어 실제적인 정사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⁹²⁾

정조가 수리시설의 기능을 만석거에 연결해서 논한 것은 농경에서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수천년간 이어온 농경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고심하던 난제로서, 굳이 정조대가 아니더라도 논의되던 문제이다. 그럼에도 수리시설인 제언을 강조하면서, 만석거에 이어서 만년제 등의 구축을 지속한 것은 보다 큰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행간에서 살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년제는 처음부터 화성의 둔전 경영을 위해 조성한 수리시설이 아니었다. 현릉원 동구에 이른바 풍수라는 조경을 위해 조성한 인공 연못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능원(陵園) 인근에는 물을 저장하는 연못을 두고 있었다. 정조는 1797년(정조

88) 『정조실록』 권50, 정조 22년(1798), 11월 30일(기축).

89) 『일성록』 정조 22년, 11월 30일(기축).

90) 『홍재전서』 권12, 서인(序引) 5, 전정인(田政引).

91) 염정성, 앞의 논문, 65~67쪽; 『태호집(太湖集)』 권4, 문○장(文○狀), 화성둔전사의게(華城屯田事宜啓).

92) 『홍재전서』 권170, 「일득록」 권10, 정사(政事)5.

21) 초에 현릉원에 행차하여 식목을 지시하면서 만년제를 개축하여 농업 관개수로 사용하도록 했다. 만년제의 축조 비용은 왕실의 재원인 내탕이었다. 사실 정조가 만년제를 준설(浚濬)하게 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현릉원을 보위하고, 둘째는 백성들의 전토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제언을 만드는 역사는 본래 백성의 일이나 백성을 동원해도 안 될 것이 없었다. 제언의 조성에서 나무뿌리가 서로 얹히고 풀뿌리가 뒤엉켜서 거의 빈틈이 없게 되면 이를 자르고 베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또 남북으로 190여 보(步)가 되고 동서로 90여 보가 되는 곳을 분수를 정해 면적을 계산하여 10개 구역이나 10여 개 구역을 만들어 먼저 한 구역부터 시작하여 끝까지 토사(土砂)를 파내어 물길을 소통시킨 다음에야 군정(軍丁)이 몇 명 필요한지,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 견적을 낼 수 있는 난해한 과정이었다.⁹³⁾

그럼에도 정조에게 만년제의 개축이 중요했던 것은 위로는 원침을 위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원침을 수호하는 방도이면서 백성들이 생업을 이루도록 한다는 취지였다.⁹⁴⁾ 1798년에도 만년제의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때의 공사는 만년제를 개축하는 수준이었다. 2월에 만년제 소준(疏濬)을 시역(始役)하는 날에 고후토제(告后土祭)를 지내면서 공사가 시작되었다. 정조는 내탕금 6,000냥을 내려주었고 공사는 2개월에 걸쳐 진행되어 4월에 완공했다. 만년제의 규모는 185보(231.25m), 너비 15보, 높이 9척이고, 서쪽 둑이 길이 145보(181.25m), 너비 30보, 높이 8척이었다. 남쪽 둑은 길이 151보(188.75m), 너비 13보, 높이 9척이고, 북쪽 둑은 길이 102보(127.5m), 너비 10보, 높이 8척이었고 전체 둘레 길이는 583보(728m)에 달하였다. 둑에는 은구(隱溝)를 두거나, 식목을 하거나 사초(莎草)를 덮어 무너지지 않도록 하였다. 수문은 상수문(上水門)과 하수문(下水門)의 두 개를 조성하였다. 당시 동원된 인력은 총 18,960명이며 대부분 모군(募軍)으로 충원되었다. 모군은 화성에서 16,056명, 각 면(面)에서 1,106명, 광주(廣州)에서 809명, 한성부에서 585명 등이 모집되었다. 또한 현릉원에 소속된 원군(園軍) 315명, 승군(僧軍) 89명 등도 포함되었다.⁹⁵⁾

만년제의 공사와 함께 화성 북문인 장안문 외부 서쪽의 축만제 축조가 진행되었다. 축만제 공사는 조심태에 의해 주장되었다. 조심태는 팔달산(八達山) 서쪽 평야에 큰 도랑 하나를 파서 물을 저장해 두고 또 팔달문 밖 상유천(上柳川)과 하유천(下柳川) 사이에 넓게 제언(堤堰)을 열어 흐르는 물을 끌어다 저장하면, 화성의 수구

(水口)가 빗장을 걸어 놓은 듯 잠겨 있게 되어 지리(地理)로 볼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평야의 수전(水田)에 관개하는 데 가뭄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⁹⁶⁾

축만제는 1799년에 축조되었다. 축만제의 축조는 만석거의 수리 혜택 경험을 바탕으로 하였다. 축만제는 만석거에 비해 규모가 큰 제언이었다. 축만제는 길이 1,246척, 너비 720척, 높이 8척, 두께 7척 5푼, 깊이 7척이며, 2개의 수문이 있었다. 만석거와 마찬가지로 관리 인원으로 도감관 1명, 감관(監官) 1명, 농감(農監) 1명, 동감(洞監) 각 2명, 색리 1명, 사령 2명, 권농 2명이 배치되었다.⁹⁷⁾

만석거와 만년제, 축만제의 정비는 둔전의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둔전은 기존에 방치된 토지를 활용하였다. 화성에 둔전을 개척한 배경에는 기존 전지에서 수용할 만한 곳이 없어서 지방의 농토를 개간해야 하는 상황이 하나의 이유였다.⁹⁸⁾ 축조 비용은 군역청에서 빌리는 형식으로 했다. 축만제가 완성되면서 서둔인 축만둔도 조성되었다. 둔전의 운영 방식은 지주전호제 형태로 수확의 절반을 유수부에서 가져가는 병작반수제였다.⁹⁹⁾ 둔전의 운영은 정조도 고심하던 문제였다. 정전제의 개념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지주전호제의 관행을 무시하기 어려웠다. 수원유수였던 조심태가 정조와 나눈 대화를 보면 화성의 둔전 경영이 처음부터 확정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당시 정조와 조심태의 대화는 다음과 같다.

(전략)“대유둔을 힘들게 설치한 것은 오로지 부(府)의 백성들이 농사일에 힘쓰도록 하는 정사를 펴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창설한 초기라서 모든 일에 대해 아직 규례를 정하지 못하였다. 관천고(筥千庫)가 소관하는 원소(園所)의 조(租)는 그 반을 취하니 대유둔도 이 규례대로 하라. 또 20말의 조를 쌀로 바꾸어 내게 하여 8말의 쌀을 거두어들이는데 쌀을 찢어서 정해진 수량대로 거두어들이 때에 폐단이 적지 않고 한다. 이번에 도지(賭地)를 다시 정하는 때에 적은 수량을 거두는 쪽으로 힘써서 힘없는 백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하니, 조심태는 아뢰기를, “신이 본부에 재직하고 있을 때에 미처 도지를 정해 주지 못한 것은 대유둔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새로 개간한 땅이 비옥한지 척박한지 구분이 되지 않고 또 두락(斗落)의 크기도 단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니 몇 년 동안 기다렸다가 규례를 세우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도지를 정하여 줄 때에 적은 수량을 거두는 쪽으

93) 김준혁, 앞의 논문, 113~114쪽; 『일성록』 정조 22년 2월 2일(병신); 『태호집(太湖集)』 권4, 문○장(文○狀), 화성둔전사의계(華城屯田事宜啓).

94) 『홍재전서』 권29, 윤음(綸音)4.

95) 염정섭, 앞의 논문, 67~69쪽; 김준혁, 앞의 논문, 116~118쪽; 『일성록』 정조 22년, 2월 21일(을묘); 『태호집(太湖集)』 권4, 문○장(文○狀), 화성둔전사의계(華城屯田事宜啓).

96) 『일성록』 정조 21년, 8월 18일(갑인).

97) 김준혁, 앞의 논문, 118~120쪽; 염정섭, 앞의 논문, 78~79쪽; 『태호집(太湖集)』 권4, 문○장(文○狀), 화성둔전사의계(華城屯田事宜啓).

98) 『일성록』 정조 19년, 8월 4일(임오).

99) 김준혁, 앞의 논문, 118~120쪽.

로 힘쓴다면 장교와 아전, 관례(官隸)들이 중간에서 전토를 받아서 다시 소작농에게 주어 몰래 스스로 이익을 취하려고 할 것이니 반드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상의해야 할 부분입니다.”하고, 서유린은 아뢰기를, “도지를 거두는 논의 경우 원소의 군병이 점점 더 심하게 폐단을 일으키고 있고 장교와 아전, 관례는 못된 짓을 흉내 내고 있으니 결단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폐단입니다. 또 거두어들이는 벼짚은 친군위(親軍衛)가 입방(入防)할 때나 성내에 기와를 쌓는 일 등에 매우 긴요하게 쓰이는데 모두 도지를 거두는 전토로 만든 뒤에는 벼짚이 나올 데가 다시는 없으니 이것이 매우 불편합니다.”하여, 내가 이르기를,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으니 속히 바로잡지 않아서는 안 된다. 다시 하교하겠다. 성을 쌓는 터전이나 관부(官府)의 터전은 가옥의 터전과는 다르니 세(稅)를 면제해 주어야 하는데도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작년에 이곳에 왔을 때에 부로(父老)를 불러다 물어보고 면제해 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미처 대령하지 못하였으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번에는 또한 하교하여야 할 것이다.”¹⁰⁰⁾

정조는 대유둔의 경우 창설 초기에 규례를 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행궁의 관천고(筥千庫)에서 지출하는 방안을 구사하고 있다. 둔전의 조세를 도지(賭地)로 운영하되 박하게 수취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도록 했다. 둔전을 정비한지 초기이므로 소출의 비율을 추정할 단계가 아니었고, 운영 관원의 행태를 사전에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조는 둔전의 경영을 병농일치(兵農一致)라는 구상에 맞추어 운영하기 위해 왕실의 재정을 투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화성 둔전에 대한 정조의 입장은 병농일치의 개념으로 피력되었다. 정조는 둔전 제도가 한 소제(漢昭帝) 때 장액군(張掖郡)에서 시작된 것이며, 병농(兵農)을 겸하여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이면 야경을 돌아 군량을 운반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서도 식량과 꼴이 충분하게 한 방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후세에 그와 반대가 되어 농부는 농부대로, 군대는 군대대로 갈라져 재정상의 문제가 되었다고 보았다. 병농일치가 고심사여서 한 곳이라도 정전(井田)을 시도해 보자는 뜻으로 경기와 관동 등 몇 개 고을에 실시해 보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병(兵)이 농(農)을 하고 농이 병을 하는 일을 못하고 있으며, 서남(西南) 각도의 영둔전(營屯田)도 경작은 백성이 하고 군대는 먹기만 하며, 흉년 때의 재실(災實)도 민결(民結)과 똑같이 하고 있다면서 현실적 한계를 피력했다.¹⁰¹⁾

수원 화성의 둔전은 지역 지주에게 정가를 주고 구입한 뒤 기민을 고용하여 개척하

였다. 정조의 명으로 왕실의 자금으로 시행한 것이므로 국가의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 화성 외부의 지주들이 소유한 토지들은 대부분 척박하여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이곳에 비료를 투여하고 관개 수로를 구비하면서 둔전 농지로 개량한 것이다. 고용인들에게는 금전을 지급하여 생활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므로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였다. 특히 기존 한양 소재 군영의 둔전들이 지방에 분포되어 그 소출을 운반하는 것에서부터 폐단을 유발하여 군병은 물론 둔전 민에게도 실익이 없었다. 반면 화성 둔전의 경우 장용영 외영 소속이었으므로 성내의 인민이 곧 둔전민이면서 외영 소속의 군병이 되는 경우가 다수였다. 둔전민이 합심하여 농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였으며, 둔전이 국영이었으므로 관리만 공적으로 유지되면 작폐가 발생할 소지가 없었다.¹⁰²⁾ 이런 배경에서 둔전의 관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화성에서 제와 보의 관리에 능통한 자들을 파견해서 활용하도록 했다.¹⁰³⁾ 예컨대 수원판관이면서 성역의궤 편찬의 주무를 담당했던 홍원섭이 연안부사로 파견되었을 때에 제언의 수리와 관리를 개선하였다.¹⁰⁴⁾

정조가 수원 화성의 조성을 계기로 선대에 대한 효심을 표출한다는 명분을 세우면서, 역대 국왕들이 고심한 정전제 개념 하에 병농일치의 이상사회를 구현하고자 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둔전의 운영이 기본적으로 군영이나 각 아문의 증가된 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의도에서 운영한 것이라면, 수원 화성의 둔전도 장용영이라는 새로운 군영의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정비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국왕이 정전제를 염두에 두고 둔전을 운영하고자 한 것을 놓고 본다면, 수원 화성의 존재는 주자 성리학에서 주장하던 병농일치의 농업 중심 국가 운영론에 근접한 유형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조가 80세 고령의 이석조라는 수원의 세거 사족을 선발하고 그의 논설을 정계에 확산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논설이 이석조의 『집설』이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채택된 것이 정전제 개념의 둔전이었다.

102) 『태호집(太湖集)』 권4, 문 장(文 狀), 화성둔전사의계(華城屯田事宜啓).

103) 『정조실록』 권50, 정조 22년(1798), 11월 30일(기축).

104) 『태호집』 권4, 문 장, 남지장(南池狀).

맺음말

정조대 수원 화성의 이미지는 국가 중심의 개혁론을 정면으로 보여주는 대상이었다. 정조가 통군치국(統軍治國)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정국을 운영하면서, 전례 없는 수도권 신도시를 개발한 것은 왕조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평가되어 왔다. 정조의 효심과 왕권 강화 등의 이유로 그의 시책이 설명되었다. ‘정조문화권’이라고 표명되는 이미지도 그런 연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그런데 지지하다시피 역사적 실체에 대한 접근은 시대적 맥락에서 분석되어야 정합적인 성찰이 가능한 것이다. 수원 화성이 등장하는 18세기는 탕평의 시대이면서도, 명청 교체 이후에 화이론에 입각한 세계관이 정립되는 시기였다. 국왕이 명나라 황제를 기린다면 궁궐에 세운 대보단, 유럽이 명나라 황제의 절의를 계승한다며 세운 사당, 이민족에 대항한 열녀와 충신의 정문(旌門)과 책자 등의 등장을 추구하던 여론의 확산이 대표적 현상이었다. 17세기의 중화질서 재편은 조선 왕조가 성리학적 세계관의 구축을 심오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며, 18세기는 그 결과적 양상이 정착하기 시작하던 전환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정조의 수원 화성 구상이 등장하였으며,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오늘날의 ‘정조문화권’이라고 하는 당대의 문화 양상일 것이다. 또한 그 속에는 수원 지역의 사대부로 시대의 지식 흐름을 대변해 주던 이석조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가 80의 노구에도 정조에게 시무책의 형태로 올린 『집설』에는 성리학적 관점에서 경세론(經世論)을 주장하였다. 이석조도 논어의 절용애민(節用愛民) 사민이시(使民以時)를 언급하면서 성인의 말을 종신토록 수행해야함을 역설하였다.¹⁰⁵⁾ 물론 한편으로는 수치를 중시하여 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과학적 태도를 보였다.¹⁰⁶⁾ 그의 대부분 논설이 도덕적 인간형의 완성을 통한 철인의 정치와 사회 구성원 각자가 윤리적 의식을 구비하여 이상적 공동체 사회를 완성하자는 내용이다. 자칫 조선 왕조의 사대부들이 삼대의 정치를 회구하거나, 요순의 통치를 모범으로 내세우는 통상적인 언사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석조가 생존한 시기는 성리학이 왕조 사회를 좌우하던 시기이면서 체득화(體得化)되던 시기였으므로, 반복되는 듯한 도덕적 연사의 등장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사실 조선시대 성리학이 추구하던 인간형인 도덕적 기준에 적합한 개인 욕망의 억제와 사리 추구의 배제는 근대 사회에서 사적 소유의 보장과 이윤 추구를 개인의 미덕으로 보던 것과는 상충되는 세계관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시각과는 달리 당대의

105)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 1, 2013, 58쪽.

106)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 2, 2015, 160~162쪽.

맥락에서 성리학의 ‘진화’됨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시각에서 국왕과 사대부가 공통으로 지향하던 성리학의 완성체가 정조대 화성의 조성에 반영되고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정전제를 통한 병농일치는 국가 재정의 절용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이상적 고제(古制)인 왕도 정치를 구현하는 첫 단계이다. 다만 당대에 이미 사적 소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던 상황에서, 화성을 매개로 하여 둔전을 개발해서 정전제 형태로 관리하고자 했던 것이다. 정조가 이석조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였으며, 나아가 이석조의 견식이 유형원으로부터 전래되던 개혁안의 연장임을 인식하던 것은, 성리학자들이 추구하고 동의하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석조라는 수원 출신의 문신 관료는 정조의 이상을 정당화하고 합리화 시킬 수 있는 논설을 제시한 것이며, 그 결과물이 정조의 의지대로 중앙에서 편찬된 『집설』이었다. 앞으로 이석조의 저술을 통해 정조대 시행된 각종 시책들을 대비하면, ‘정조문화권’의 실체를 오늘날 재현시키는 것에 일조를 더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홍재전서』, 『일성록』
『동국여지지』, 『청선고』, 『반계수록』, 『경세유표』, 『미호집』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 1, 2013.

수원박물관, 『국역 집설』 2, 2015.

화성시사편찬위원회, 『화성시사-지방세력의 형성과 지방사회』 2020.

김문식, 『정약용의 경학과 경세학』 단국대학교출판부, 2021.

송양섭, 『조선후기 둔전 연구』 경인문화사, 2006.

송양섭, 『18세기 조선의 공공성과 민본이념 : 손상익하의 정치학, 그 이상과 현실』 태학사, 2015.

김준혁, 「정조시대 장용영외영의 병농일치 군제개혁 구상과 둔전경영」, 『한국사연구』 168, 2015.

박인호, 「유형원의 동국여지지 편찬을 위한 고투와 실학적 지리학」, 『조선사연구』 26, 2017.

송양섭, 「17세기 군영문 둔전의 확대와 경영 형태의 변화」, 『역사와 현실』 36, 2000.

송양섭, 「18·19세기 軍 衙門 屯田의 管理和 屯民의 存在樣態」, 『사학연구』 66, 2002.

송양섭, 「正祖代『軍國總目』의 체재와 군비 군사재정의 파악」, 『사림』 38, 2010.

송양섭, 「정조(正祖)의 왕실재정 개혁과 “궁부일체(宮府一體)”론(論)」, 『대동문화연구』 76, 2011.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公 이념과 이상국가론」, 『조선후시대사학보』 64, 2013.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公田制論과 그 이념적 지향」, 『민족문화연구』 58, 2013.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지방제도 개혁론」, 『한국실학연구』 27, 2014.

송양섭, 「반계 유형원의 국가재정 개혁구상과 녹봉제 실시론」, 『한국실학연구』 36, 2018.

염정섭, 「18세기말 화성부 수리시설 축조와 둔전 경영」, 『농업사연구』 제9권 1호, 한국농업사학회, 2010.

정대영, 『유형원의 수원부 읍치 이전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08.

황미숙, 「18세기 말 수원 사대부 李奭祚의 華城 진흥책」, 『역사민속학』 49, 2015.

황미숙, 「수원 사대부 李奭祚『輯說』의 均田論」, 『역사민속학』 50, 2016.

황미숙, 『18세기 水原 士大夫 李奭祚의 時務論 연구 : 『輯說』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황미숙, 「18세기말 수원지역 老論系 李奭祚의 經世論 고찰」, 『중앙사론』 51, 2020.

~~~~~ 正祖文化遺産

# 정조문화유산 사료총서 제2권

2021 정조문화유산 세계유산화 지원사업

**총괄** : 장덕호

**기획** : 노현균, 조두원, 김도형

**연구집필진** : 노영구, 이왕무

**교정·교열** : 조두원, 김도형

**발행일** : 2021.12.14.

**발행처**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우)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Tel.** 031-231-8527

**출판** : 더조은프린트 1544-1466

비매품

**ISBN** 978-89-999-0222-2